

속표지



photo by Inhyeong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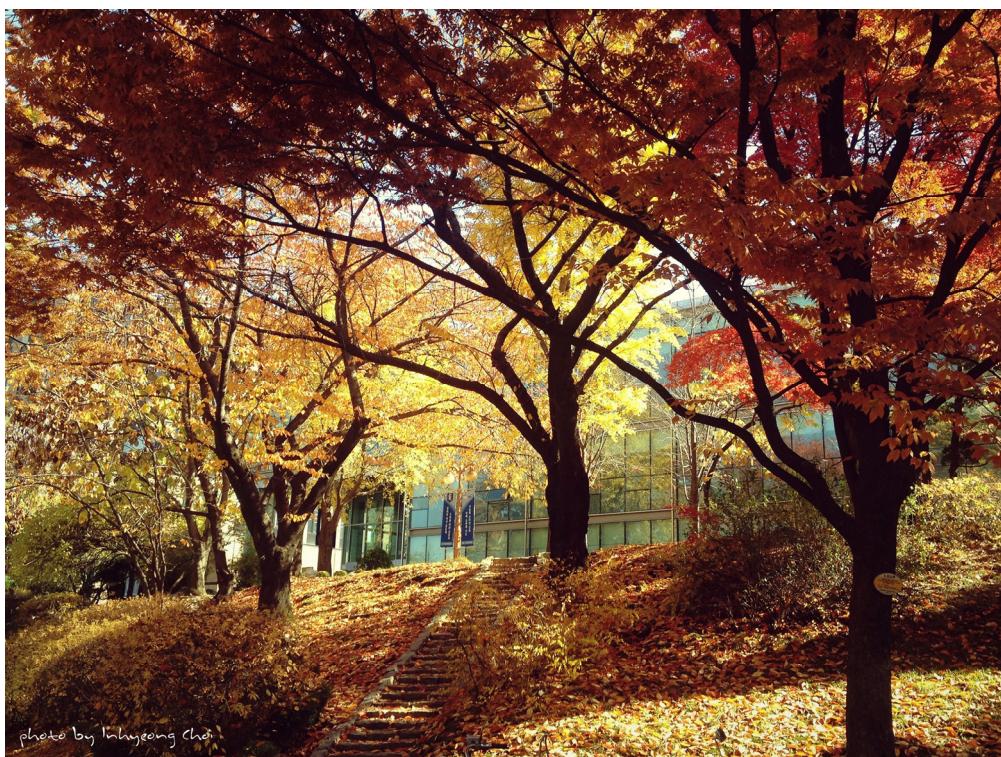


photo by Inhyeong Choi

기초교육원 전경(61동)

2016 서울대새내기
힘차게 출발합시다!

목차

* 신입생을 맞으며 - 안병직 기초교육원장

1. 우리 학교 기초교양교육과 배움의 윤리 8

- 1.1. 기초교양교육이란? 8
- 1.2. 배움의 윤리 : 배움에도 윤리가 있다?! 11
 - 1.2.1. 배움의 윤리는 왜 중요한가? 11
 - 1.2.2.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12

2. 교양교과목에는 어떤 과목이 있나? 14

- 2.1. 학문의 기초 16
 - 2.1.1. 사고와 표현 18
 - 2.1.2. 외국어 19
 - 2.1.3. 수량적 분석과 추론 22
 - 2.1.4. 과학적 사고와 실험 23
 - 2.1.5. 컴퓨터와 정보 활용 25
- 2.2. 학문의 세계 26
 - 2.2.1. 언어와 문학 29
 - 2.2.2. 문화와 예술 31
 - 2.2.3. 역사와 철학 33
 - 2.2.4. 정치와 경제 37
 - 2.2.5. 인간과 사회 39
 - 2.2.6. 자연과 기술 41
 - 2.2.7. 생명과 환경 42
- 2.3. 선택교양 43
 - 2.3.1. 체육 45
 - 2.3.2. 예술 실기 47
 - 2.3.3. 대학과 리더십 48
 - 2.3.4. 창의와 융합 49
 - 2.3.5. 한국의 이해 51

3. 수강신청은 어떻게? 52

- 3.1. 수강신청 안내 52
 - 3.1.1. 학기당 취득학점 52
 - 3.1.2. 수강신청변경 53
 - 3.1.3. 재수강 53
 - 3.1.4. 수업선택 및 신청관련 유의사항 54
 - 3.1.5. 수업시간 55
 - 3.1.6. 수강신청 홈페이지 사용시 유의사항 55
- 3.2. 수강신청 기능 및 사용법 56
 - 3.2.1. 로그인 56
 - 3.2.2. 학번 및 비밀번호 찾기 57
 - 3.2.3. 수강신청 인적정보(수강신청 비밀번호 변경) 58
 - 3.2.4. 수업교시 기준 59
 - 3.2.5. 강좌검색 59
 - 3.2.6. 관심강좌 62
 - 3.2.7. 예비수강신청 63
 - 3.2.8. 예비수강신청 내역 64
 - 3.2.9. 수강신청 65
 - 3.2.10. 수강신청 내역 67

4. 수강시 지켜야 할 몇 가지 68

- 4.1. TEPS 및 기초영어 · 대학영어 1 · 대학영어 2 · 고급영어 이수규정 68
 - 4.1.1. 이수규정(2014학번 이후 입학생에 해당됨)
..... 68
 - 4.1.2. 수강자격 확인(TEPS성적 기준, 학번/소속 단과대학별 수강 규정에 따름) 71
 - 4.1.3. 동시수강 및 재수강 관련 규정 등 74
 - 4.1.4. 학번별 수강안내 75
 - 4.1.5. LAB 수업 이수 규정 78
- 4.2.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79
- 4.3. 수학 및 과학 교과목 84
 - 4.3.1. 수학성취도 측정시험에 의한 교양수학 수강 안내 84
 - 4.3.2. 교양 물리 교과목 수강 안내 87
 - 4.3.3. '기초수학 1,2' 및 '기초과학 1,2' 교과목 수강 안내 88
 - 4.3.4. '고급수학 및 고급물리학' 수강 안내 89

4.4. 신입생 세미나(Freshman Seminars) 수강 .. 90	
5. 2016학년도 대학별 교양 이수규정 .. 93	
6. 강의평가 :	
내가 만드는 멋진 강의를 위해서 · 133	
6.1. 작성방법	133
6.2. 평가문항 예시	134
7. 새내기에게 주는 글 :	
1950년대~2000년대 살펴보기 136	
• (1950년대) 생활은 ‘스케줄’ 밑에서 시행, 시야를 세계에 두고 야망에 불타라! - 윤태립 교수 ... 136	
• (1960년대) 후례쉬맨은 두뇌 내면의 재조정으로부터 출발해야 - 김기두 교수 139	
• (1970년대) 대학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 한완상 교수 142	
• (1980년대) 신입생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 심재룡 교수 147	
• (1990년대) 들뜬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 박완서 소설가 149	
• (2000년대) 내가 대학생활을 다시 한다면 - 오세정 교수 150	
• 개구리 주저앉은 것은 멀리 뛰려는 뜻 - 구인환 교수 152	
• 내가 사랑하는 서울대생들 - 국양 교수 159	
• 신입생세미나, 그리고 코소보 - 박태균 교수 ... 161	
• 고기잡이 스페 쌍기 - 유재준 교수 163	
전년도 입학식사(2015학년도) .. 165	
옛 사람에게 듣는 책읽기와 배움의 자세	
- 다산 정약용 외 167	
관악캠퍼스 안내도	

신입생을 맞으며



신입생 여러분!

새 꿈을 안고 벅찬 가슴으로 서울대학교 교정에 들어선 여러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캠퍼스에서 보람찬 대학생활이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입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대학인으로서 새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학업입니다. 대학의 학업은 크게 전공과 아울러 기초교양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교육은 개개 분과학문별 전문교육인 반면 기초교양교육은 일반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교양교육은 특정 학문분야에 국한된 개별 전문지식이 아니라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대학교육을 받은 이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지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교양교육은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의 비중에서 전공교육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사실 기초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토대이며,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과과정은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문의 기초』는 글쓰기, 외국어, 수리 능력 등 대학에서의 학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학습능력을 익히는 교과영역입니다. 『학문의 세계』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요 학문영역과 주제들에 관하여 균형 있는 지적 소양과 폭넓은 통찰력을 키우는 교과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교양』은 예체능 실기 교과목을 비롯해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영역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하는 이 책자에는 주요 3개 기초교양교과 영역에 속한 개별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여러분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도 함께 건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꿈꾸는 대로 대학학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업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쳐 왔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여러분은 주어진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학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수교과목을 제외하고는 전공이든 기초교양이든 수강 강좌의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장된 이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의 학업에 의미 있고 유용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우리 대학의 교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도 여러분이 외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학업에서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없는 지적 모험과 도전 정신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학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없이 여러분의 학업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혀 새로운 지식의 영역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으며, 감당하기 벅찬 학습과제도 마다 않는 왕성한 지식욕과 향 학열이야말로 여러분이 대학에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편 대학이 보장하는 학업의 자율은 동시에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학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만큼 그 결과도 여러분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대학이 정한 학업 이수규정을 숙지하고 스스로 학사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종종 학사 규정에 어긋나거나 규정을 채우지 못해 졸업이 유예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일어난다는 점에 대해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발을 딛는 이 대학이라는 배움의 터전은 여러분에게 아무 것도 보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식에 관한 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지적 잠재력을 무한히 개발하고 무궁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적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기초교육원장 안 병 직

1. 우리 학교 기초교양교육과 배움의 윤리

1.1. 기초교양교육이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왜 하고, 받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는 그만큼 교육이 인간의 삶에서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한 공감과 그 가치에 대한 체감은 일련의 교육의 과정이 끝난 다음이나 혹은 최소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서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서울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가, 이러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고 그 답을 찾는 일은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겪은 이후에 말없이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로는 성실한 대답보다 창의적인 질문이 더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작업일지 모른다. 교육은 사실상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일체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해의 틀과 실천의 능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존재수준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은 그 자체로 서울대인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명한 인식은 나아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힘든 자기 단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디게 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 대학의 학사교과과정은 전공과정과 기초교양과정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대학교육을 통해 하나의 학문분야를 깊이 이해하여 해당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지적인 유산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안목과 지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졸업 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준비

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공교육’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목적과 의의 가운데는 이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의 교육은 특정한 직업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학문활동 혹은 예술활동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분화된 특정 학문 영역의 제한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문제의식, 학문적 방법론을 체득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일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며, 보다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이해의 틀과 자질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전공교육에 앞서, 혹은 그와 병행하여 체험하게 되는 ‘기초교양교육’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목적은 표면상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교육과정의 한 축을 이룬다. 그것은 특정분야의 전공학자가 되기 이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며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기 이전에 ‘인간다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기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양과정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사고능력과 이를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
-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복잡한 것을 명료하게 환원시키는 능력
- 반성적 사고를 하며, 이를 정연하게 표현하는 능력
- 도덕적 판단력
-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 이제껏 인식하지 못했던 측면을 발견하는 능력
-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 사태의 이해로부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
-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며 새로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기초교양교육은 인간이 일구어낸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반추하는 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사유를 밝혀준다. 그것은 한 인간을 온전한 전체로 성숙·발달시켜 주기에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고등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되어왔으며, 민주사회일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받을 가치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으로 추구되어 왔다. 기초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의 요체로서, 시대와 역사의 변천에 따라 대학의 사회제도적 성격과 기능은 계속 변해 왔으나 대학은 기초교양

교육의 이상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확보하며 존속해 왔다. 이러한 기초교양교육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활성화될수록 전공영역의 교육, 직업준비교육,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 졸업 후의 사회적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이와 의미가 더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우리 학교는 특별히 기초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기초교양 교육과정 교과목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다양한 학문을 배울 때 반드시 사전에 습득하고 있어야 할 사고 능력, 의사소통과 표현 능력, 수리분석적 능력, 과학적 능력 등을 배양하는 『학문의 기초』, 다양한 학문의 근본이 되는 폭넓은 개념을 이해하고 학문적 태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학문 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삶과 학문을 연계시키고, 학문과 학문을 연결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이해와 사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된 『학문의 세계』, 이에 더하여 학생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잠재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택교양』 등으로 편성된다. 『선택교양』에는 ‘신입생세미나’, ‘고전읽기강화 교과목’, ‘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사회봉사교과목’, ‘자아개발 교과목’, ‘관악모둠강좌’, ‘예술과학융합 교과목’, ‘체육과학융합 교과목’, ‘리더십교과목’, ‘국제화 교과목’ 등의 특별 교과목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신입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서울대학교 교육의 신선한 힘이자 역동적 주체이다. 학교와 교수들은 이를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향연장에서 인류의 위대한 유산과 풍부한 문화적 가능성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자기 자신의 발전적 변형을 위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의미 있는 교육적 체험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고 내실 있는 수강계획을 세우며 열의를 다하여 배움에 전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자 소중한 권리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초교양교과목을 통해 진정한 학문의 가치와 교육의 의의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위대한 창조적 지식인이자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1.2. 배움의 윤리 : 배움에도 윤리가 있다?!

1.2.1. 배움의 윤리는 왜 중요한가?

대학에 입학하면 대개 한 학기 동안 대여섯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1년 동안에는 교양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필수로 수강하게 되어 있는 글쓰기의 기초나 글쓰기 과목에서는 대개 한 학기에 3~4개 이상의 글쓰기 과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교양과목들에서도 글쓰기 과제와 시험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과제물을 작성해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작성과 시험을 위해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기존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과목에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자신이 누구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기약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학습윤리를 함양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히 교양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장차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의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기초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양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탐구하여 그 결과를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학습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능력을 기를 때에만 온전히 체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학생시절부터 정직한 학습 윤리를 학문의 기본자세로 익혀야만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자질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회의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간에 창의적인 인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세계에서 학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정직한 연구윤리를 필수적인 자질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공부과정에서 정직한 학습윤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1.2.2.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1) 표절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표절입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 실험결과, 통계자료, 도표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탐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표절에 해당됩니다.

- 출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 출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료(도표, 그림, 통계 등)를 사용하는 경우
- 원전과 다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정인의 연구방법, 논리전개, 문장구조를 모방하는 경우
- 진위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사회적·자연적 현상을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
- 출전을 밝히지 않고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짜깁기를 한 경우

2) 자료 위조

자료 위조란 본인이 직접 실험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실험이나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자료의 전체나 일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과제물을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사례들이 자료 변조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실험, 설문, 답사, 통계 등의 경험 자료를 위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
- 사상, 이론,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 등의 문헌자료 혹은 대상작품을 위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

3) 자료 변조

자료 변조란 필요한 연구과정을 수행했지만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과제물을 작성·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험, 설문, 답사, 통계 등의 경험 자료를 변조하여 과제물을 작성
- 사상, 이론,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 등의 문헌자료 혹은 대상작품을 변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

4) 자기복제와 중복제출

자기복제 혹은 중복제출이란 다른 과목에서 제출한 과제물의 일부나 전체를 다시 제출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물을 두 과목 이상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전문(全文)을 중복 제출하는 경우
- 구성이나 문장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서론이나 결론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서 제출하는 경우
- 자료와 내용의 보완 없이 일부를 완성된 과제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5) 무임승차

무임승차란 말 그대로 공동실험이나 공동연구 및 학습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과제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연구 과정과 과제물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
- 개별 과제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각자 제출하는 경우

6) 과제물 구매 및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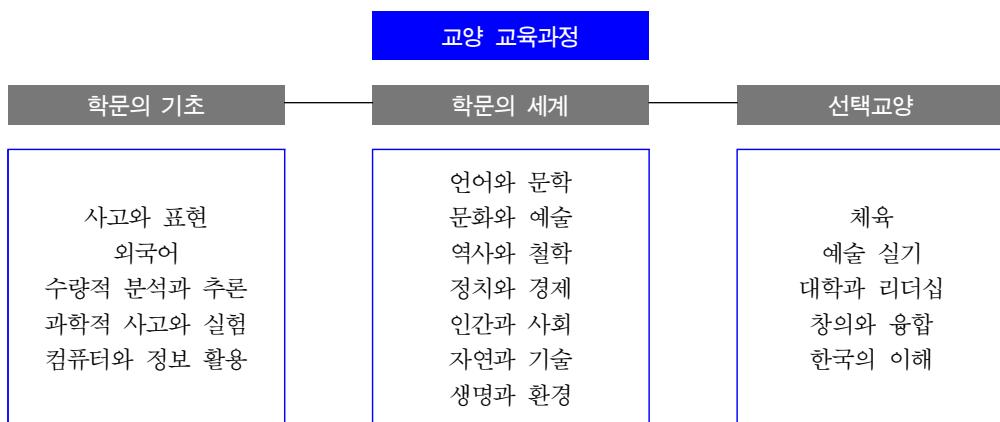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과제물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자신의 과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과제물 작성을 도와주는 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학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시험부정 등

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부탁하는 행위 등도 당연히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과제물(창작 전시물 등도 포함)을 훼손하는 행위도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 교양교과목에는 어떤 과목이 있나?

서울대학교 교양교과목의 구성은 지성인으로서 핵심적인 소양을 교육시키고, 나아가 학문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다.



학점 구조는 예를 들어 3-3-0인 경우에는 3학점 과목에 이론 강의 주당 3시간, 3-2-2인 경우에는 3학점 과목에 이론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학점구조의 예시]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구조	비고
031.001	글쓰기의 기초	3 - 3 - 0	3학점, 강의 3시간
035.00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 2 - 2	3학점,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

이제 다음 절에서는 각 영역별 해당 교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해당 교과목들의 세부 내용은 포털 마이스누(my.snu.ac.kr) 아래 메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조회 : 포털마이스누(로그인 후)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교과목 → 교육과정조회
(교과목 기준 탭 이용)

The screenshot shows the 'Education Curriculum Inquiry' system interface. The search results for 'Handwriting' (글쓰기) are displayed under the 'Curriculum Inquiry' tab (교육과정조회).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Subject' (구분) as '설치학과별' (by department), 'Subject Category' (교과과정) as '학사' (Undergraduate), and 'Usage Area' (사용여부) as 'Y'. The results table shows the following information: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구조	사용여부	상세보기
031.001	글쓰기의 기초	교양	주당 3	Y	

Below the table, there i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urse:

교과목정보

교과목번호	031.001	교과목명	글쓰기의 기초
한국인들의 글쓰기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 나아가 저성인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바탕이 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및 한국어 문장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글쓰기 실습을 함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팀원의 글 읽기기를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넓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발표 및 토론 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목개설이력

년도	학기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개설학과	교과구분	학점	수강인원	담당교수
2014	1학기	031.001	001	국어국문학과	교양	3 - 3 - 0	0	조해숙
2014	1학기	031.001	060	국어국문학과	교양	3 - 3 - 0	0	
2014	1학기	031.001	003	국어국문학과	교양	3 - 3 - 0	0	
2014	1학기	031.001	004	국어국문학과	교양	3 - 3 - 0	0	

[건수:60건] 조회되었습니다

상세정보

교과목번호	031.001	교과목명	글쓰기의 기초	사용여부	Y		
교과과정	학사	교과목영문명	College Writing: Process & Structure	시스템구분	Y		
주관대학(원)	인문대학	주관학과(부)	국어국문학과	주관세부전공	본교교과목	Y	
학년	1	학기	1학기	교과구분	교양	영역	사고 표현
상위영역	학문의 기초	교과목영문명	수업진행	이론	성적부여	A~F	
신설년도	2013	신설학기	2학기	적용년도	2014	적용학기	1학기
반복이수 가능 학기	1	학점	3	강의시간		실험실습시간	
교과목대체 외		신청학점제한	N	외국어강의 여부	N	재이수 가능 횟수	999

2.1. 학문의 기초

『학문의 기초』는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이다. 모국어와 외국어의 말과 글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정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 학문적 논의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수리 통계적 분석과 추론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 과학적 기초지식을 익마하고 실험실습 방법을 체득하는 기초과학분야 교과목,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처리의 원리와 적용방법을 이해하는 교과목 등을 포함한다.

학문의 기초	편성과목 수	2016. 1학기 개설 강좌 (2016.2.1.기준)
사고와 표현	7	121
외국어	81	271
수량적 분석과 추론	20	110
과학적 사고와 실험	42	159
컴퓨터와 정보 활용	3	16
합계(5개 영역)	153	677

〈사고와 표현〉은 학문활동에 필요하며 추후 지식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읽기 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각 학문분야의 전통과 양식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말과 글을 통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영역이다.

〈외국어〉는 다양한 외국어를 통하여 대학에서의 학문활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학교육을 경험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외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영역이다.

〈수량적 분석과 추론〉은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적용하고 수식, 도표, 통계결과 등을 해석하여 판단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영역이다.

〈과학적 사고와 실험〉은 과학적 사고와 실험 실습의 능력을 함양하여 창의적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 영역이다.

〈컴퓨터와 정보 활용〉은 학문활동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며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기본 원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활용능력을 함양하는 교과 영역이다.

이제 총 7개 영역에 걸쳐있는 『학문의 기초』 교과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2.1.1. 사고와 표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제 1영역〉				
031.001	글쓰기의 기초	College Writing: Process & Structure	3-3-0	국어국문학과
031.002	인문학글쓰기	Writing in Humanities	3-3-0	기초교육원
031.003	사회과학글쓰기	Writing in Social Sciences	3-3-0	기초교육원
031.004	과학과 기술 글쓰기	Writing in Science & Technology	3-3-0	기초교육원
〈제 2영역〉				
031.031	말하기와 토론	Speech and Debate	3-3-0	기초교육원
031.032	창의적 사고와 표현	Critical Thinking and Expression	3-3-0	기초교육원
031.033	논리와 비판적 사고	Logic and Critical Thinking	3-3-0	철학과

2.1.2. 외국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32,001	초급한국어	Elementary Korean	2-3-0	국어국문학과
032,002	중급한국어 1	Intermediate Korean 1	3-3-0	국어국문학과
032,003	중급한국어 2	Intermediate Korean 2	3-3-0	국어국문학과
032,004	고급한국어	Advanced Korean	3-3-0	국어국문학과
032,005	초급한문 1	Elementary Classical Chinese 1	3-3-0	중어중문학과
032,006	초급한문 2	Elementary Classical Chinese 2	3-3-0	중어중문학과
032,007	중급한문	Intermediate Classical Chinese	3-3-0	중어중문학과
032,008	한문명작읽기	Readings in Classical Chinese Masterpieces	3-3-0	중어중문학과
032,009	역사와 철학 한문원전읽기	Selected Classical Chinese Readings in History and Philosophy by Chinese and Korean Writers	3-3-0	국사학과
032,010	초급중국어 1	Elementary Chinese 1	3-3-1	중어중문학과
032,011	초급중국어 2	Elementary Chinese 2	3-3-1	중어중문학과
032,012	중급중국어 1	Intermediate Chinese 1	3-3-0	중어중문학과
032,013	중급중국어 2	Intermediate Chinese 2	3-3-0	중어중문학과
032,014	중국어회화 1	Chinese Conversation 1	3-3-0	중어중문학과
032,015	중국어회화 2	Chinese Conversation 2	3-3-0	중어중문학과
032,016	미디어중국어	Media Chinese	3-3-0	중어중문학과
032,017	대학영어 1	College English 1	2-3-1	영어영문학과
032,018	대학영어 2: 글쓰기	College English 2: Writing	2-3-0	영어영문학과
032,019	대학영어 2: 말하기	College English 2: Speaking	2-3-0	영어영문학과
032,020	고급영어: 산문	Advanced English: Prose	2-3-0	영어영문학과
032,021	고급영어: 학술작문	Advanced English: Academic Writing	2-3-0	영어영문학과
032,022	고급영어: 영화	Advanced English: Exploring Film	2-3-0	영어영문학과
032,023	고급영어: 연극	Advanced English: Drama Workshop	2-3-0	영어영문학과
032,024	고급영어: 문화와 사회	Advanced English: Culture and Society	2-3-0	영어영문학과
032,025	고급영어: 발표	Advanced English: Presentation	2-3-0	영어영문학과
032,026	고급영어: 문학	Advanced English: Literature	2-3-0	영어영문학과
032,027	초급프랑스어 1	Elementary French 1	3-3-1	불어불문학과
032,028	초급프랑스어 2	Elementary French 2	3-3-1	불어불문학과
032,029	중급프랑스어 1	Intermediate French 1	3-3-0	불어불문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32.030	중급프랑스어 2	Intermediate French 2	3-3-0	불어불문학과
032.031	프랑스어 글쓰기	French Composition	3-3-0	불어불문학과
032.032	프랑스어 말하기	French Conversation	3-3-0	불어불문학과
032.033	시사프랑스어	Current French	3-3-0	불어불문학과
032.034	초급독일어 1	Elementary German 1	3-3-1	독어독문학과
032.035	초급독일어 2	Elementary German 2	3-3-1	독어독문학과
032.036	중급독일어 1	Intermediate German 1	3-3-0	독어독문학과
032.037	중급독일어 2	Intermediate German 2	3-3-0	독어독문학과
032.038	독일어 글쓰기	German Composition	3-3-0	독어독문학과
L0441. 000300	독문강독	Readings in German Texts	3-3-0	독어독문학과
032.040	시사독일어	Contemporary German	3-3-0	독어독문학과
032.041	초급러시아어 1	Elementary Russian 1	3-3-1	노어노문학과
032.042	초급러시아어 2	Elementary Russian 2	3-3-1	노어노문학과
032.043	중급러시아어 1	Intermediate Russian 1	3-3-0	노어노문학과
032.044	중급러시아어 2	Intermediate Russian 2	3-3-0	노어노문학과
032.045	러시아어 말하기	Russian Conversation	3-3-0	노어노문학과
032.046	러시아어로 읽는 문화와 예술	Readings in Russian Art and Culture	3-3-0	노어노문학과
032.047	시사 러시아어	Exploring Russian Media	3-3-0	노어노문학과
032.048	초급스페인어 1	Elementary Spanish 1	3-3-1	서어서문학과
032.049	초급스페인어 2	Elementary Spanish 2	3-3-1	서어서문학과
032.050	중급스페인어 1	Intermediate Spanish 1	3-3-0	서어서문학과
032.051	중급스페인어 2	Intermediate Spanish 2	3-3-0	서어서문학과
032.052	스페인어 글쓰기	Spanish Composition	3-3-0	서어서문학과
032.053	스페인어 말하기	Spanish Conversation	3-3-0	서어서문학과
032.054	시사스페인어	Current Spanish	3-3-0	서어서문학과
032.055	포르투갈어입문 1	Introduction to Portuguese 1	3-3-1	서어서문학과
032.056	포르투갈어입문 2	Introduction to Portuguese 2	3-3-1	서어서문학과
032.057	이태리어 1	Italian 1	3-3-1	언어학과
032.058	이태리어 2	Italian 2	3-3-0	언어학과
032.059	스와힐리어 1	Swahili 1	3-3-1	언어학과
032.060	스와힐리어 2	Swahili 2	3-3-0	언어학과
032.061	몽골어 1	Mongolian 1	3-3-1	언어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L0441. 000100	핀란드어 1	Finnish 1	3-3-1	언어학과
L0441. 000200	히브리어 1	Hebrew 1	3-3-1	언어학과
032.063	산스크리트어 1	Sanskrit 1	3-3-0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64	산스크리트어 2	Sanskrit 2	3-3-0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65	고급일본어 1	Advanced Japanese 1	3-3-0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66	고급일본어 2	Advanced Japanese 2	3-3-0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67	아랍어 1	Arabic 1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68	아랍어 2	Arabic 2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69	힌디어 1	Hindi 1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0	힌디어 2	Hindi 2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1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Malay-Indonesian 1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	Malay-Indonesian 2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3	터키어 1	Turkish 1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4	터키어 2	Turkish 2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5	베트남어 1	Vietnamese 1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6	베트남어 2	Vietnamese 2	3-3-1	아시아언어문화학부
032.077	고전그리스어 1	Classical Greek 1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032.078	고전그리스어 2	Classical Greek 2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032.079	라틴어 1	Latin 1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032.080	라틴어 2	Latin 2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2.1.3. 수량적 분석과 추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33.001	수학 및 연습 1	Calculus 1	3-2-2	수리과학부
033.002	수학 및 연습 2	Calculus 2	3-2-2	수리과학부
033.003	고급수학 및 연습 1	Honor Calculus and Practice 1	3-2-2	수리과학부
033.004	고급수학 및 연습 2	Honor Calculus and Practice 2	3-2-2	수리과학부
033.005	미적분학 및 연습 1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1	4-3-2	수리과학부
033.006	미적분학 및 연습 2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2	4-3-2	수리과학부
033.007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Calculus for Life Science 1	3-3-0	수리과학부
033.008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Calculus for Life Science 2	3-3-0	수리과학부
033.009	경영학을 위한 수학	Calculus for Business	3-3-0	수리과학부
033.010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 1	Calculus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	3-3-0	수리과학부
033.011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 2	Calculus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	3-3-0	수리과학부
033.012	수학의 기초와 응용 1	Mathematics: The Basics and Applications 1	4-3-2	수리과학부
033.014	공학수학 1	Engineering Mathematics 1	3-3-0	기초교육원
033.015	공학수학 2	Engineering Mathematics 2	3-3-0	기초교육원
033.016	기초수학 1	Basic Calculus 1	1-0-2	수리과학부
033.017	기초수학 2	Basic Calculus 2	1-0-2	수리과학부
033.018	미적분학의 첫걸음	Elementary Calculus	2-2-2	수리과학부
033.019	통계학	Statistics	3-3-0	통계학과
033.020	통계학실험	Statistics Lab.	1-0-2	통계학과
033.021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Statistics Concept and Lab.	3-2-2	통계학과

2.1.4. 과학적 사고와 실험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34.001	물리학 1	Physics 1	3-3-0	물리·천문학부
034.002	물리학 2	Physics 2	3-3-0	물리·천문학부
034.003	고급물리학 1	Honor Physics 1	3-3-0	물리·천문학부
034.004	고급물리학 2	Honor Physics 2	3-3-0	물리·천문학부
034.005	물리의 기본 1	Foundation of Physics 1	3-3-1	물리·천문학부
034.006	물리의 기본 2	Foundation of Physics 2	3-3-1	물리·천문학부
034.007	물리학	Physics	3-3-0	물리·천문학부
034.008	인문사회계를 위한 물리학	Physics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3-0	물리·천문학부
034.009	물리학실험 1	Physics Lab.1	1-0-2	물리·천문학부
034.010	물리학실험 2	Physics Lab.2	1-0-2	물리·천문학부
034.011	물리학실험	Physics Lab.	1-0-2	물리·천문학부
034.012	기초물리학 1	Basic Physics 1	1-0-2	물리·천문학부
034.013	기초물리학 2	Basic Physics 2	1-0-2	물리·천문학부
034.014	천문학	Astronomy	3-3-0	물리·천문학부
034.015	천문학실험	Astronomy Lab.	1-0-2	물리·천문학부
034.016	화학 1	Chemistry 1	3-3-0	화학부
034.017	화학 2	Chemistry 2	3-3-0	화학부
034.020	화학	Chemistry	3-3-0	화학부
034.022	화학실험 1	Chemistry Lab.1	1-0-2	화학부
034.023	화학실험 2	Chemistry Lab.2	1-0-2	화학부
034.024	화학실험	Chemistry Lab.	1-0-2	화학부
034.025	기초화학 1	Basic Chemistry 1	1-0-2	화학부
034.026	기초화학 2	Basic Chemistry 2	1-0-2	화학부
034.027	생물학 1	Biology 1	3-3-0	생명과학부
034.028	생물학 2	Biology 2	3-3-0	생명과학부
034.029	생물학	Biology	3-3-0	생명과학부
034.030	인문사회계를 위한 생물학	Biology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3-0	생명과학부
034.031	생물학실험 1	Biology Lab.1	1-0-2	생명과학부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34.032	생물학실험 2	Biology Lab.2	1-0-2	생명과학부
034.033	생물학실험	Biology Lab.	1-0-2	생명과학부
034.034	기초생물학 1	Basic Biology 1	1-0-2	생명과학부
034.035	기초생물학 2	Basic Biology 2	1-0-2	생명과학부
034.036	지구환경과학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3-3-0	지구환경과학부
034.037	지구환경과학실험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Lab.	1-0-2	지구환경과학부
034.038	대기과학	Atmospheric Science	3-3-0	지구환경과학부
034.039	대기과학실험	Atmospheric Science Lab.	1-0-2	지구환경과학부
034.040	지구시스템과학	Earth System Science	3-3-0	지구환경과학부
034.041	지구시스템과학실험	Earth System Science Lab.	1-0-2	지구환경과학부
034.042	해양학	Oceanography	3-3-0	지구환경과학부
034.043	해양학실험	Oceanography Lab.	1-0-2	지구환경과학부
034.044	지구과학	Earth Science	3-3-0	지구과학교육과
034.045	지구과학실험	Earth Science Lab.	1-0-2	지구과학교육과

2.1.5. 컴퓨터와 정보 활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35.00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Digital Computer Concept and Practice	3-2-2	공과대학
035.002	컴퓨터의 기초	Fundamentals of Computer System	2-2-0	재료공학부
L0444. 000100	과학 계산을 위한 컴퓨터 활용	Computer Application for Scientific Computation	3-2-2	수리과학부

2.2. 학문의 세계

『학문의 세계』는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주요 학문영역과 주제들에 관해 대학 교육을 받은 자유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균형있는 지적 소양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과영역이다. 대학교육을 경험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 학문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각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론도 체득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조사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자기 주도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인간의 삶과 사회 및 자연의 주요 문제들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참여능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대략적인 과목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영 역	편성과목 수	2016. 1학기 개설 강좌수 (2016.2.1.기준)
언어와 문학	40	40
문화와 예술	41	69
역사와 철학	71	113
정치와 경제	30	18
인간과 사회	30	25
자연과 기술	19	15
생명과 환경	30	18
합계(7개 영역)	261	298

〈언어와 문학〉 영역의 교과목은 다양한 언어와 문학작품의 특징과 구조, 맥락을 이해하고 대한 학문적 지식과 접근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읽기와 감상, 발표와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언어 및 문학작품을 통합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와 예술〉 영역의 교과목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시각적·청각적 예술작품과 활동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접근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독서와 발표와 토론, 공연과 감상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합적이며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와 철학〉 영역의 교과목은 인류의 정신적 자산인 동서양의 철학적, 종교적, 미학적 가치체계(진·선·미)들과 동서양의 다양한 사회의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고전적 사유에 대한 기본소양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통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 분과학문의 평면적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 분과학문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개념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권장한다.

〈정치와 경제〉 영역의 교과목은 개인과 기업, 국가 및 국제사회의 규범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과 상호작용, 그 변화 등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과 다양한 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현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유의 방식과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선택과 가치의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관점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인간과 사회〉 영역의 교과목은 한 개인과 집단, 사회와 인류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교육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반 양상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접근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학문분야에 어떤 종류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을 체득하며, 구축된 이해의 틀을 체득함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통찰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유의 방식을 획득하며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관점을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자연과 기술〉 영역의 교과목은 과학기술사회에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과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 사고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갖게 하는 통합적 교과목, 과학의 언어로서 수학을 이해하고 수리적 사고를 배우게 하는 교과목, 자연과학 어느 한 분야의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과학의 방법론을 배우게 하는 교과목,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이해하게 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의 다양한 지식 배경을 고려하여 내용의 포괄성과 깊이, 이론 교육과 실험, 시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생명과 환경〉 영역의 교과목은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명과 환경에 대한 기본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학문과 인간 활동의 제반 영역에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생명, 지구 및 환경 과학의 기본 소양을 배우게 하는 교과목,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의 발전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인류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통합적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 체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들을 포함하면서, 이론 교육과 실험, 시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로 표시된 교과목은 해당 학문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밀도 있는 훈련을 시키는 권장과목이다. 이 권장과목 중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과대학이 있으나 본인 소속 단과대학별 이수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수하도록 한다.

이제 각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2.1. 언어와 문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 041.004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	Language and Culture of the Korean	3-3-0	국어국문학과
★ L0545.	한국문학과 세계문화 000500	Korean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 L0545.	한국문학과 여행 000600	Journeying in Korean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 L0545.	한국 문학의 깊이와 상상력 000700	The Depth and Imagination of Korean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L0545.	미디어 언어의 이해 000400	Understanding Media Language	3-3-0	국어국문학과
041.009	한국어 어휘와 표현	Korean Vocabulary Training	3-3-0	국어국문학과
041.010	한국현대시 읽기	Reading Modern Korean Poetry	3-3-0	국어국문학과
041.011	21세기 한국소설의 이해	Understanding 21st-Century Korean Fiction	3-3-0	국어국문학과
L0545.	한국한문강독 000800	Readings in Sino-Korean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041.017	한국의 한자와 한자어	Korean Usage of Chinese Characters	3-3-0	국어국문학과
041.018	한글맞춤법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Hangul Orthography	3-3-0	국어국문학과
★ 041.019	동양의 고전	Introduction to Oriental Classics	3-3-0	중어중문학과
L0545.	중국인의 언어와 문화 000900	Understandi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3-3-0	중어중문학과
★ 041.021	현대사회와 국제어	Modern Society and Global Language	3-3-0	영어영문학과
★ 041.022	서양근대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Literature, 1500-1900	3-3-0	영어영문학과
★ 041.023	문학과 정신분석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3-3-0	영어영문학과
★ 041.024	서양서사시의 전통	Epic Tradition in the West	3-3-0	영어영문학과
★ 041.025	문학과 철학의 대화	Literature and Philosophy in Dialogue	3-3-0	영어영문학과
L0545.	영어 대중소설 읽기 000300	Reading Popular Fiction in English	3-3-0	영어영문학과
041.027	영시의 이해	Understanding English Poetry	3-3-0	영어영문학과
041.028	영어로 읽는 세계문화	World Literature in English	3-3-0	영어영문학과
★ 041.029	말과 마음	Language in the Mind	3-3-0	불어불문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 041.030	인간 복제와 문학	Human Cloning and Literature	3-3-0	불어불문학과
041.031	프랑스명작의 이해	Understanding French Masterpieces	3-3-0	불어불문학과
★ 041.032	문학과 사회	Literature and Society	3-3-0	독어독문학과
★ 041.033	여성과 문학	Women and Literature	3-3-0	독어독문학과
041.034	독일명작의 이해	Understanding German Masterpieces	3-3-0	독어독문학과
★ 041.035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Dostoevsky and Tolstoy	3-3-0	노어노문학과
041.036	러시아명작의 이해	Understandings Russian Masterpieces	3-3-0	노어노문학과
★ 041.037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사회	Literature and Society of Latin America	3-3-0	서어서문학과
★ 041.038	문학과 영상	Literature and Film	3-3-0	서어서문학과
041.039	스페인어권명작의 이해	Understanding of Hispanic Masterpieces	3-3-0	서어서문학과
★ 041.040	언어의 세계	World of Languages	3-3-0	언어학과
041.041	언어의 이해	Understanding Language	3-3-0	언어학과
041.043	알타이민족의 언어	Languages of Altaic Peoples	3-3-0	언어학과
041.044	그리스비극	Greek Tragedy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041.045	그리스·로마신화	Greek & Roman Mythology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041.046	고대그리스·로마문학의 세계	World of Ancient Greek & Roman Literature	3-3-0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L0545. 000100	동서양 명작 읽기	Reading Masterpieces of Eastern and Western Literature	3-3-0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041.047	법과 문학	Law and Literature	3-3-0	법학부

2.2.2. 문화와 예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42.002	드라마의 이해와 감상	Understanding Drama	3-3-0	국어국문학과
042.003	창작의 세계	Understanding Creative Writing	3-3-0	국어국문학과
042.004	한국의 신화	Korean Mythology	3-3-0	국어국문학과
★ 042.005	한자와 동양문화	Chinese Character and Oriental Culture	3-3-0	중어중문학과
042.006	중국어권의 사회와 문화	Understanding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Sinophone World	3-3-0	중어중문학과
★ 042.007	미국문화와 현대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Culture and Contemporary Society	3-3-0	영어영문학과
042.008	영미문화 읽기	Reading Anglo-American Culture	3-3-0	영어영문학과
★ 042.009	상상력과 문화	Imagination and Culture	3-3-0	불어불문학과
042.010	프랑스어권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Francophone Culture	3-3-0	불어불문학과
★ 042.011	서양연극의 이해	An Introduction to Western Drama and Theater	3-3-0	독어독문학과
042.012	독일어권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Germanic Culture	3-3-0	독어독문학과
★ 042.013	러시아인의 삶과 문화	Russian Life and Culture	3-3-0	노어노문학과
042.014	스페인어권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Hispanic Culture	3-3-0	서어서문학과
★ 042.015	동양의 미술과 문명	Art and Civilization in Asia	3-3-0	고고미술사학과
★ 042.016	현대종교와 문화	Contemporary Religion and Culture	3-3-0	종교학과
042.017	종교와 영화	Religion and Film	3-3-0	종교학과
042.018	종교와 예술	Religion and Arts	3-3-0	종교학과
042.019	현대문화와 기독교	Modern Culture and Christianity	3-3-0	종교학과
L0546. 000200	예술의 가치와 비평	Art Criticism and Values of Art	3-3-0	미학과
042.021	예술과 사회	Art and Society	3-3-0	미학과
042.023	공연예술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Performing Arts	2-2-0	미학과
042.024	미술론입문	Introduction to Theory of Fine Arts	2-2-0	미학과
042.025	음악론입문	Introduction to Theory of Music	2-2-0	미학과
042.028	예술과 신화	Art and Myth	3-3-0	미학과
042.029	예술과 과학	Art and Science	3-3-0	미학과
042.031	영상예술의 이해	Introduction to Cinema	2-2-0	미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42.032	동양예술론입문	Introduction to Theory of Arts in Asia	3-3-0	미학과
042.033	대중예술의 이해	Understanding Popular Arts	2-2-0	미학과
042.034	페미니즘 미학과 예술	Feminist Aesthetics and Arts	3-3-0	미학과
042.035	디자인과 생활	Design and Everyday Life	3-3-0	디자인학부
042.036	아시아미술의 이해	Perspectives on Asian Art	3-3-0	동양화과
042.037	서양의 미술과 문명	Art and Civilization of Western World	3-3-0	서양화과
042.038	서양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Art	3-3-0	서양화과
042.039	미술명작의 이해	Understanding Masterpieces of Art	3-3-0	서양화과
L0546.	현대미술의 이해 000100	Understanding Contemporary Art	3-3-0	서양화과
L0546.	음악과 사회 000400	Music and Society	3-3-0	작곡과
042.041	현대음악의 이해	Introduction to Modern Music	3-3-0	작곡과
042.042	음악 속의 철학	Philosophy in Music	3-3-0	작곡과
042.043	음악의 원리	The Elements and Structural Principles of Music	3-3-0	작곡과
042.044	한국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Traditional Music	3-3-0	국악과
042.045	서양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Music	3-3-0	작곡과

2.2.3. 역사와 철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 L0547. 001200	규장각과 한국문화	The Kyujanggak Archive and Korean Culture	3-3-0	국사학과
★ 043.003	한국사의 새로운 해석	New Perspective on Korean Cultural History	3-3-0	국사학과
★ 043.004	근·현대 한국민족주의	Nationalism in Modern & Contemporary Korea	3-3-0	국사학과
★ L0547. 001000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Historical Disputes among East Asian Countries	3-3-0	국사학과
★ 043.006	역사와 역사 재현	History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3-3-0	국사학과
043.007	한국사	Korean History	3-3-0	국사학과
043.008	한국인의 역사의식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3-3-0	국사학과
L0547. 000800	한국문화와 불교	Korean Culture and Buddhism	3-3-0	국사학과
L0547. 000700	한국 근대사회와 민족운동	Modern Korean Society and National Movements	3-3-0	국사학과
043.013	한국현대사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Contemporary History	3-3-0	국사학과
L0547. 001100	한국고대사의 쟁점	Issues in Ancient Korean History	3-3-0	국사학과
043.016	한국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of Korea	2-2-0	국사학과
L0547. 000900	한국사 속의 유학	Confucianism in Korean History	3-3-0	국사학과
043.019	인물로 본 한국사	Korean History Viewed through Lives of Great Figures	2-2-0	국사학과
043.020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Division of Korea and Korean War	2-2-0	국사학과
L0547. 001500	조선의 역사적 성취와 유산	Historical Achievements and Legacy of the Joseon Dynasty	3-3-0	국사학과
L0547. 001600	한국 중세의 사회와 문화	Society and Culture in Medieval Korean History	3-3-0	국사학과
★ L0547. 000300	중국의 전통과 현대	Tradition and Modernity in China	3-3-0	동양사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 L0547. 000400	동서문명의 만남과 실크로드	The Silk Road and the Confluence of Civilizations	3-3-0	동양사학과
★ L0547. 001800	동아시아의 왕권	Royal Authority in Traditional East Asia	3-3-0	동양사학과
★ L0547. 001900	이슬람 문명의 역사	History of Islamic Civilization	3-3-0	동양사학과
L0547. 002100	테마 중국사	Themes in Chinese History	3-3-0	동양사학과
L0547. 002000	역사 속의 중화와 그 이웃	China and its Neighbors in History	3-3-0	동양사학과
L0547. 001700	일본의 인물과 역사	Major Personalities in Japanese History	3-3-0	동양사학과
★ 043.028	서양의 문화적 전통	Cultural Traditions of the West	3-3-0	서양사학과
★ 043.029	현대서양의 형성	Modern Civilization of the West	3-3-0	서양사학과
043.030	시민의 역사	Citizen and the Bourgeoisie in History	3-3-0	서양사학과
043.031	유托피아의 역사	History of Utopianism	3-3-0	서양사학과
L0547. 002300	기독교와 서양문명	Christianity and Western Civilization	3-3-0	서양사학과
043.033	역사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History	3-3-0	서양사학과
043.034	서양문명의 역사 1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1	3-3-0	서양사학과
043.035	서양문명의 역사 2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2	3-3-0	서양사학과
043.037	서양사 속의 제국	Empire in Western History	3-3-0	서양사학과
043.038	민족과 국민의 역사	History of Nation	3-3-0	서양사학과
L0547. 002200	서양사 속의 젠더	Gender in Western History	3-3-0	서양사학과
★ 043.041	문명의 기원	The Origin of Civilization	3-3-0	고고미술사학과
L0547. 000200	인류문화의 기원	The Origins of Human Culture	3-3-0	고고미술사학과
043.042	고고학개론	Introduction to Archaeology	3-3-0	고고미술사학과
043.044	한국미술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043.045	동양미술사입문	Introduction to Oriental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043.046	서양미술사입문	Introduction to Western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 043.047	서양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Philosophy	3-3-0	철학과
★ 043.048	동양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Asian Philosophy	3-3-0	철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 043.049	현대사회와 윤리	Modern Society and Ethics	3-3-0	철학과
★ 043.050	한국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Philosophy	3-3-0	철학과
★ 043.052	철학자와 그의 시대	Philosophy in Historical Context	3-3-0	철학과
043.053	철학개론	Introduction to Philosophy	3-3-0	철학과
L0547. 001400	불교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Buddhist Philosophy	3-3-0	철학과
043.058	생명의료윤리	Bio-Medical Ethics	3-3-0	철학과
043.060	사회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Social Philosophy	3-3-0	철학과
043.064	동양철학의 고전	Classics in Oriental Philosophy	3-3-0	철학과
043.065	과학과 비판적 사고	Critical Understanding of Scientific Reasoning	3-3-0	철학과
043.066	과학의 철학적 이해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Science	3-3-0	철학과
043.069	성의 철학과 성윤리	Philosophy of Gender and Sexual Morality	3-3-0	철학과
043.070	컴퓨터와 마음	Computer and Mind	3-3-0	철학과
043.071	논리학	Logic	3-3-0	철학과
043.072	중국고전과 중국사상	Chinese Classics and Chinese Thought	3-3-0	철학과
L0547. 000100	도덕적 추론	Moral Reasoning	3-3-0	철학과
L0547. 000600	법과 가치	Law and Values	3-3-0	철학과
★ 043.074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	Religious Wisdom in East and West	3-3-0	종교학과
★ 043.075	성서와 기독교 사상의 이해	Understanding Bible and Christian Thought	3-3-0	종교학과
★ 043.076	종교 상징의 세계	Understanding Religious Symbols	3-3-0	종교학과
L0547. 002400	종교학의 이해	Understanding Religious Studies	3-3-0	종교학과
043.078	인간과 종교	Man and religion	3-3-0	종교학과
043.079	신화와 역사	Myth and History	3-3-0	종교학과
043.080	세계종교입문	Introduction to World Religions	3-3-0	종교학과
L0547. 002500	명상과 수행	Meditation and Practice	3-3-0	종교학과
★ 043.083	미학과 예술론	Aesthetics and Art Theory	3-3-0	미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I0547. 002600	철학으로 예술 보기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Art	3-3-0	미학과
043.085	자아탐색과 자아실현	Self-reflection and Self-realization	3-3-0	사회교육과
043.086	사상과 윤리	Social Thought and Ethics	3-3-0	윤리교육과

2.2.4. 정치와 경제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L0548. 000100	역사 속의 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 in History	3-3-0	정치외교학부
044.002	현대정치의 이해	Introduction of Contemporary Political World	3-3-0	정치외교학부
044.003	정치와 정치이념	Politics and Political Ideology	3-3-0	정치외교학부
044.004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Understanding and Analyzing Korean Politics	3-3-0	정치외교학부
044.005	현대한국인의 탄생	Birth of the Modern Korean	3-3-0	정치외교학부
044.006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3-0	정치외교학부
044.007	국제정치학입문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3-3-0	정치외교학부
L0548. 000400	영화 속 세계정치	Politics and World Leaders on Film	3-3-0	정치외교학부
044.008	인간생활과 경제	Human Life and Economy	3-3-0	경제학부
044.009	현대경제의 이해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y	3-3-0	경제학부
044.01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3-0	경제학부
044.011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	Prospects of South-North Relations and Unification	3-3-0	기초교육원
044.012	기업과 사회	Business and Society	3-3-0	경영학과
044.013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Business	3-3-0	경영학과
044.014	국가발전의 기본원리	Principles of National Prosperity	3-3-0	협동과정 기술경영 · 경제 · 정책전공
044.015	인류와 식량	Mankind and Food	3-3-0	농경제사회학부
044.016	현대사회와 법	Society and Law	3-3-0	법학부
044.017	젠더와 법	Gender and Law	3-3-0	법학부
044.018	시장경제와 법	Market Economy and Law	3-3-0	법학부
044.019	민주시민과 헌법	Democratic Citizenship, Constitution and Civil Rights	3-3-0	기초교육원
044.020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3-3-0	법학부
044.021	법과 윤리	Law and Ethics	3-3-0	법학부
044.022	국가와 시민	The State and Citizenship	3-3-0	윤리교육과
044.023	북한학개론	North Korean Studies	3-3-0	윤리교육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44.024	글로벌 이슈와 윤리적 사고	Global Issues and Ethical Thinking	3-3-0	윤리교육과
044.025	소비자와 시장	Consumer and the Market	3-3-0	소비자아동학부
044.026	현대국가와 행정	The Modern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044.027	공공행정의 이해	Understanding Public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044.029	현대사회와 리더십	Modern Society and Public Leadership	3-3-0	행정학과
044.030	정책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3-3-0	행정학과

2.2.5. 인간과 사회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45.001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Human Rights, NGO, and International Community	3-3-0	사회학과
045.002	사회학의 이해	Invitation to Sociology	3-3-0	사회학과
045.003	한국인과 한국사회	People and Society in Korean Modernity	3-3-0	사회학과
045.004	인간과 문화	Man and Culture	3-3-0	인류학과
045.005	언어와 사회	Language and Society	3-3-0	인류학과
045.006	진화와 인간사회	Evolution and Human Society	3-3-0	인류학과
045.007	전통과 일상의 한국문화론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in Everyday Life	3-3-0	인류학과
L0549. 000900	일본대중문화	Japanese Popular Culture	3-3-0	인류학과
L0549. 001000	문화와 질병	Culture and Illness	3-3-0	인류학과
L0549. 000400	행복수업	Happiness Lessons	3-3-0	심리학과
045.011	청년기 생애 설계 심리학: 혼들리는 20대	Mapping your life across time	3-3-0	심리학과
045.012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3-3-0	심리학과
045.013	인간관계의 심리학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3-3-0	심리학과
045.014	세계와 지역의 환경문제	Glob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3-3-0	지리학과
L0549. 000800	공간정보와 시각화	Spatial information and Visualization	3-3-0	지리학과
045.016	자연환경과 인간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3-3-0	지리학과
045.017	생활공간과 인간	Geographic Space and People	3-3-0	지리학과
045.018	행복한 삶과 사회복지	Happiness and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과
045.019	복지국가의 이해	Understanding Welfare states	3-3-0	사회복지학과
045.020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Contemporary Society and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과
045.021	국제개발협력과 사회복지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과
045.022	미디어와 현대사회	Media and Contemporary Society	3-3-0	언론정보학과
045.024	페미니즘의 이해	Understanding of Feminism	3-3-0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L0549. 000100	섹슈얼리티와 성평등	Sexuality and Gender Equality	3-3-0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045.025	삶과 교육	Life and Education	3-3-0	교육학과
045.026	교육의 이해	Understanding Education	3-3-0	교육학과
045.027	국토와 환경교육	Our Living Place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3-3-0	지리교육과
045.028	부모교육	Parenting	3-3-0	소비자아동학부
045.029	결혼과 가족	Marriage and Family	3-3-0	아동가족학과
045.030	패션과 사회	Fashion and Society	3-3-0	의류학과

2.2.6. 자연과 기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46,001	문명과 수학	Mathematics in Civilization	3-3-0	수리과학부
046,002	정보사회와 수학	Mathematics in Information Age	3-3-0	수리과학부
046,003	불확실성의 세계와 통계학	The World of Uncertainty and Statistics	3-3-0	통계학과
046,004	양자개념과 인류문명	Quantum Theory and Human Civilization	3-3-0	물리·천문학부
046,005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Micro-world and Macro-world	3-3-0	물리·천문학부
046,006	인간과 우주	Man and the Universe	3-3-0	물리·천문학부
046,007	외계행성과 생명	Extraterrestrial Planets and Life	3-3-0	물리·천문학부
046,008	물리학의 개념과 역사	Concepts of Physics From Historical Perspectives	3-3-0	물리·천문학부
046,009	우주의 진화	Evolution of the Universe	3-3-0	물리·천문학부
L0550. 000100	에너지	Energy	3-3-0	물리·천문학부
046,010	자연과학의 세계	The World of Natural Sciences	3-3-0	화학부
046,011	10억불분자	A Billion Dollar Molecule	3-3-0	화학부
046,012	지구의 이해	The Earth: Present & Past	3-3-0	지구환경과학부
046,013	화산과 지진	Volcanoes and Earthquakes	3-3-0	지구환경과학부
L0550. 000200	자연재해의 관측과 이해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of Natural Disaster	3-3-0	지구환경과학부
046,014	역사속의 과학	Understanding Science in the Historical Setting	3-3-0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046,015	서양문명과 과학기술	Western Civiliz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3-3-0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046,016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Computational Civilization	3-3-0	컴퓨터공학부
046,017	기술과 경제	Technology and Economy	3-3-0	협동과정 기술경영· 경제·정책전공

2.2.7. 생명과 환경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47.001	생물의 진화	Biological Evolution	3-3-0	생명과학부
047.002	생명의 이해	Understanding Life	3-3-0	생명과학부
047.003	식물과 생활	Plants and Society	3-3-0	생명과학부
047.004	미생물과 인류복지	Microorganisms for Human Welfare	3-3-0	생명과학부
047.005	생태계와 환경오염	Ecosystem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3-3-0	생명과학부
047.006	인체생물학	Biology of Human Body	3-3-0	생명과학부
047.007	두뇌의 이해	Understanding Brain	3-3-0	생명과학부
047.008	인간과 지구환경	Man and the Earth Environments	3-3-0	지구환경과학부
047.009	지구환경변화	Global Environment Change	3-3-0	지구환경과학부
L0551. 000300	바다과학기행	Voyage to the Sea	3-3-0	지구환경과학부
047.010	물의 위기	Water Crisis	3-3-0	건설환경공학부
047.011	생활원예	Home Horticulture	2-2-0	식물생산과학부
047.012	숲과 인간	Forest and Man	3-3-0	산림환경학전공
047.013	삶의 혁명-생명공학	Revolution of Life Biotechnology	3-3-0	식품·동물생명공학부
047.014	곤충과 인간	Insects and Humans	3-3-0	응용생물학전공
047.015	영양과 건강	Nutrition for Health	2-2-0	식품영양학과
047.016	식생활과 환경	Food and Environment	2-2-0	식품영양학과
047.017	약과 건강	Drug and Health	3-3-0	약학과
047.018	우리 몸의 이해	Understanding the Human Body	3-3-0	의학과
047.019	사람 뇌의 구조와 기능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rain	3-3-0	의학과
047.020	인간생명과학개론	Introduction to Human Life Science	3-3-0	의학과
047.021	참살이의학특강	Topics in Well-being Medicine	3-3-0	의학과
047.022	죽음의 과학적 이해	Understanding Death: A Scientific View	3-3-0	의학과
047.023	비만과 건강관리	Obesity and Health	3-3-0	보건학과
L0551. 000200	환경과 기후변화의 미래	The Future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3-3-0	환경계획학과
047.025	환경과 건강	Environment and Health	3-3-0	환경보건학과
047.026	생활구강건강관리	Understanding Oral Health in Life	3-3-0	치과대학
047.027	녹색 생활과 소비	Green Life and Consumption	3-3-0	기초교육원
047.028	녹색 에너지	Green Energy	3-3-0	기초교육원
047.029	기후변화와 건강	Climate Change and Health	3-3-0	기초교육원

2.3. 선택교양

『선택교양』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영역이다.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과 지적 경험을 도모하여 사고의 모험과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의 인성과 진로를 개척하고 발전시켜가는 토대를 제공한다. 〈체육〉과 〈예술 실기〉 교과목, 대학의 삶과 학문에 대한 신입생들의 입문을 돋고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교과목,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자율교과목과 개별 분과학문을 넘어서 통합적 지식과 현대 사회의 복합성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적 교과목,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도록 돋는 교양교과목(영어강의)으로 구성된다.

『선택교양』은 〈체육〉, 〈예술 실기〉, 〈대학과 리더십〉, 〈창의와 융합〉, 〈한국의 이해〉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편성된 과목수와 개설 강좌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영 역	편성과목 수	2016. 1학기 개설 강좌수 (2016.2.1.기준)
체육	31	116
예술 실기	11	15
대학과 리더십	13	46
창의와 융합	27	64
한국의 이해	14	5
합계(5개 영역)	96	246

〈체육〉 영역은 건강한 신체적 운동 능력과 바람직한 스포츠맨십, 그리고 공동체적 협동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실기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학업과 이후의 삶에 필수적인 건전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 실기〉 영역은 시각적, 청각적, 공감각적 예술적 체험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는 자질과 감상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제공하는 실습과목들로 구성된 교양교과영역이다.

〈대학과 리더십〉 영역은 신입생이 대학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학문적 삶에 입문하도록 돋는 교과목과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인성과 가치를 함양하는 교과목과 실천하며 섬기는 봉사의 자세와 공적 책임감을 동반하는 리더십 개발 교양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와 융합〉 영역은 학생자율연구, 학생자율세미나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주제를 여러 학문적 관점과 맥락에서 조망하고 비교, 분석, 융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돋는 교과 영역이다.

〈한국의 이해〉 영역은 영어(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양교과목들로서, 주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역사 등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과영역이다. 특히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3.1. 체육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1.001	체육 1	Physical Education 1	1-0-2	체육교육과
051.002	체육 2	Physical Education 2	1-0-2	체육교육과
051.003	축구	Soccer	1-0-2	체육교육과
051.004	배구	Volleyball	1-0-2	체육교육과
051.005	양궁	Archery	1-0-2	체육교육과
051.006	야구	Baseball	1-0-2	체육교육과
051.007	태권도	Taekwondo	1-0-2	체육교육과
051.008	에어로빅	Aerobics	1-0-2	체육교육과
051.009	한국무용	Korean Dance	1-0-2	체육교육과
051.010	현대무용	Modern Dance	1-0-2	체육교육과
051.011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1-0-2	체육교육과
051.012	수영 1(평영)	Swimming 1	1-0-2	체육교육과
051.013	수영 2(평영)	Swimming 2	1-0-2	체육교육과
051.014	수영 3(자유형)	Swimming 3	1-0-2	체육교육과
051.015	수영 4(자유형)	Swimming 4	1-0-2	체육교육과
051.016	수영 5(접영)	Swimming 5	1-0-2	체육교육과
051.017	호신술	Martial Arts	1-0-2	체육교육과
051.018	체력단련	Weight Training	1-0-2	체육교육과
051.019	테니스초급	Beginner's Tennis	1-0-2	체육교육과
051.020	테니스중급	Intermediate Tennis	1-0-2	체육교육과
051.022	골프초급	Beginner's Golf	1-0-2	체육교육과
051.023	댄스스포츠	Dance Sport	1-0-2	체육교육과
051.024	농구초급	Beginner's Basketball	1-0-2	체육교육과
051.025	배드민턴초급	Beginner's Badminton	1-0-2	체육교육과
051.026	탁구초급	Beginner's Table Tennis	1-0-2	체육교육과
051.027	탁구중급	Intermediate Table Tennis	1-0-2	체육교육과
051.028	인라인스케이트	Inline Skate	1-0-2	체육교육과
051.029	건강과 삶	Health and Life	1-1-0	체육교육과
051.030	운동과 영양	Exercise and Nutrition	1-1-0	체육교육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1.031	운동과 건강	Exercise and Health	1-1-0	체육교육과
051.033	현대사회와 스포츠	Modern Society and Sports	1-1-0	체육교육과

2.3.2. 예술 실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2,001	도예의 기초	Introduction to Ceramics	2-0-4	공예과
052,002	수묵화의 기초	Introduction to Sumukhua	2-1-2	동양화과
052,003	수채화의 기초	Introduction to Watercolor	2-0-4	서양화과
052,004	소묘의 기초	Introduction to Drawing	2-0-4	서양화과
052,005	교양연주-합창	Music performance-Chorus	1-0-2	성악과
052,006	교양연주- 색소폰 1	Music performance- Saxophone 1	1-0-2	기악과
052,007	교양연주- 색소폰 2	Music performance- Saxophone 2	1-0-2	기악과
052,008	교양연주- 가야금	Music performance- Gayageum	1-0-2	국악과
052,009	교양연주- 거문고	Music Performance- Geomungo	1-0-2	국악과
052,010	교양연주- 단소	Music performance- Danso	1-0-2	국악과
052,011	교양연주- 해금	Music Performance- Haegeum	1-0-2	국악과

선택교양

2.3.3. 대학과 리더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3.001	신입생세미나	Freshman Seminars	1-1-0	기초교육원
053.002	미래를 위한 자기이해와 리더십 개발	Self Development and Leadership Training	1-0-2	기초교육원
053.003	사회봉사 1	Volunteer Social Service 1	1-0-2	기초교육원
053.004	사회봉사 2	Volunteer Social Service 2	1-0-2	기초교육원
053.005	사회봉사 3	Volunteer Social Service 3	1-0-2	기초교육원
053.006	글로벌 인턴십 1	Global Internship 1	1-0-2	기초교육원
053.007	글로벌 인턴십 2	Global Internship 2	3-0-6	기초교육원
053.008	직업세계의 이해와 진로설계	Career Development: Exploration and Planning	2-1-2	기초교육원
053.010	그린리더십	Green Leadership	3-3-0	기초교육원
053.011	그린리더십 인턴십	Green Leadership Internship	3-0-6	기초교육원
053.012	예술·디자인과 녹색사회	Art · Design and Green Society	3-3-0	기초교육원
053.013	녹색도시와 커뮤니티 디자인	Green City and Community Design	3-3-0	기초교육원
053.014	지속가능한 사회와 제도	Sustainable Society and Institution	3-3-0	기초교육원

2.3.4. 창의와 융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4.001	학생자율연구 1	Undergraduate Independent Study 1	2-1-2	기초교육원
054.002	학생자율연구 2	Undergraduate Independent Study 2	2-1-2	기초교육원
054.003	학생자율세미나	Peer Group Seminar	1-0-2	기초교육원
054.004	관악모둠강좌(인물)	Gwanak Omnibus Course (Historical Figures)	3-3-0	기초교육원
054.006	관악모둠강좌(주제)	Gwanak Omnibus Course (Themes)	3-3-0	기초교육원
054.007	창의적 사고와 삶	Creative Thinking and Life	3-3-0	기초교육원
L0655. 000300	독서 세미나 - 고전에 길을 묻다	Great Books Reading Seminar	3-3-0	기초교육원
L0655. 000400	인간학 개론 -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Human Nature and the Good Lif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3-3-0	기초교육원
054.008	소그룹 고전원전읽기 1	Readings in Classics 1	1-2-0	인문대학
054.009	소그룹 고전원전읽기 2	Readings in Classics 2	1-2-0	인문대학
L0655. 000100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1 - 인간과 사랑	Reading Classics in the Humanities 1 - Human being and Love	3-3-0	인문대학
L0655. 000200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2 - 개인과 세계	Reading Classics in the Humanities 2 - Individuals in the World	3-3-0	인문대학
054.012	주제로 읽는 고전: 성과 사랑	Classics Theme: Sexuality and Eros	3-3-0	기초교육원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A Glance at Korean Contemporary Urbanism and Architecture	3-2-2	기초교육원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The Science of Sound, and Experience of Music Instrument Design and Evaluation	3-2-2	기초교육원
054.021	창조와 디자인	Creativity and Design	3-2-2	기초교육원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Technology and Art: Exhibit • Art • Engineering	3-2-2	기초교육원
054.023	과학기술과 대중문화	Science, Technology and Popular Culture	3-3-0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054.024	과학기술과 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3-0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Engineering Ethics and Leadership	3-3-0	공과대학
054.027	창업과 경제	Entrepreneurship and Economy	3-3-0	연합전공 기술경영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Patent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3-3-0	협동과정 기술경영· 경제·정책전공
054.030	신체활동의 이해와 실습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Physical Activity	2-1-2	체육교육과
054.031	산과 인생	Mountain and Life	2-1-2	체육교육과
054.032	자전거와 스포츠과학	Bicycle and Sports Science	2-1-2	체육교육과
054.033	건강과 사회	Health and Society	3-3-0	보건학과
054.034	도시의 이해	Interpreting Cities	3-3-0	환경계획학과

2.3.5. 한국의 이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영문명	학점구조	주관부서
055.001	한국어 <국제하게강좌 전용(외국인 대상)>	Korean Language	2-2-0	기초교육원
055.002	한국의 언어	The Korean Language	3-3-0	기초교육원
055.003	한국어와 한국문화	Korean Language and Culture	3-3-0	기초교육원
055.004	동아시아의 문인문화	Literati Culture in East Asia	3-3-0	기초교육원
055.005	한국근대소설의 이해	Modern Korean Fiction	3-3-0	기초교육원
055.006	현대한국의 삶과 문화	Life in Contemporary Korea	3-3-0	기초교육원
055.007	한국문학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3-0	기초교육원
055.008	동아시아 불교문화	Buddhist Culture in East Asia	3-3-0	기초교육원
055.011	한국경제: 역사와 최근의 변화	The Korean Economy : History and Recent Changes	3-3-0	기초교육원
055.015	현대한국사회론	Contemporary Korea	3-3-0	기초교육원
055.016	두 개의 한국: 근대한국의 역사와 사회	Two Koreas: Modern Korean History and Society	3-3-0	기초교육원
055.019	한국법의 이해	Korean Law	3-3-0	기초교육원
055.020	세계음악	Music of the World	3-3-0	기초교육원
055.021	한국음악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Musical Culture	3-3-0	기초교육원

3. 수강신청은 어떻게?

3.1. 수강신청 안내

3.1.1. 학기당 취득학점

대 학	학기당 취득학점	비 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단, 입학 후 최초 1, 2번째 학기는 20학점 취득 가능)	18	
수의과대학(수의예과), 간호대학	19	
약학대학	20	
수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학사 · 전문석사통합과정(학사과정)	21	
의과대학(의예과)	23	
의과대학(의학과)	24	

※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단, 직전 2개 학기는 계절학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재이수 등으로 조정되지 않은 당해학기 취득성적 기준임.)

1) 수강신청절차

- 수강편람 및 공고문 숙지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수강지도
→ 인터넷(<http://sugang.snu.ac.kr>)에서 직접 입력한다.

2) 강의계획서 열람

- 수강정보는 교양, 전공, 대학원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정별, 교과목명을 클릭하면 강의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다.
 - 조회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교과목
→ 수강편람조회

3.1.2. 수강신청변경

1) 변경기간 : 2016. 3. 2.(수) ~ 3. 8.(화), 09:00 ~ 18:00 (5일간)

2) 변경가능학점 : 6학점 이내

3) 변경절차

※ 반드시 수강신청내역을 포털 마이스누(본인 ID로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수업 → 나의수강내역)에서 확인한 후 신중을 기하여 변경해야 한다.

- 정보화포털에서 자기가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과 강좌번호를 확인한다.
- 신청된 교과목을 취소하거나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은 다음 취소 또는 신청한다.
- 변경된 내용은 인터넷에서 직접 입력한다.

4) 변경기간 이후 수강교과목 취소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업일수 2분의 1선까지는 교과목수 또는 학점수에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교과목은 성적란에 “W”로 표기된다.
-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증명이 필요함(예: 진단서 등)

3.1.3. 재수강

재수강 자격제한으로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의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경우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 1) 수강신청 시 재수강 표시란에 수강하였던 연도 및 학기를 입력한다.
 - 2012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 재이수년도 및 학기 표기란에 「2012년도 1학기」 입력
- 2) 재수강 시 성적은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학사과정 유급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수의과대학, 의과대학)과 대학원 학생은 예외로 한다.
- 3) 2015학년도 처음개설 되는 교과목부터 재수강 시 학점상한 “A0”을 받으며, 2015학년도 이전 이미 개설된 교과목을 재수강 시 1회에 한해 학점상한 “A+”를 2회차부터 학점상한 “A0”을 받는다.

3.1.4. 수업선택 및 신청관련 유의사항

- 1)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의 수업시간이 중복되면 입력할 수 없다.
- 2) 수강편람에 표시된 수강정원만큼 수강 가능하다.
- 3) 수강자격을 강좌별로 제한한 교과목은 학생의 수강자격과 부합되는 강좌를 신청하여야 한다.
- 4) 수강편람의 비고란에 “타학과 학생 수강불허”라고 표기되어 있는 교과목은 타학과 학생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이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하여야 한다.
- 5) 동일명칭의 교과목을 중복 수강해서는 안되며, 동일명칭의 학기완성 교과목 및 통년완성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도 안된다.
- 6) 개설교과목 중 「별도기준의 수강생 선발 교과목」으로 고지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원에 관계없이 홀·짝수 학번별로 각각 지정된 날짜에 수강신청을 한 후 셋째날 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 공고하면 탈락된 학생은 잔여기간 중에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한다.
 - 교과목 목록은 홈페이지 및 정보화포털 게시판에 등재되어 있다.
- 7) 교과과정 개편으로 일부 과목이 폐지 또는 신설되었으므로 기존에 수강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동일, 대체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조회 : 포털마이스누(로그인 후) → 학사행정 → 수업/성적 → 교과목 → 동일/대체 교과목 검색
- 8)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 9) 대학별 시간표가 별도로 운영되는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등의 개설 과목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개별 시간표를 해당 대학에 확인하여 수강 신청한 다른 과목과의 시간충복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하여야 한다.

3.1.5. 수업시간

1) 50분 수업

교시	0	1	2	3	4	5	6	7	8	9	10
시간	08:00 ~08:50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2) 75분 수업 : 예) 1.5-1.5교시(9:30~10:45), 3-1.5교시(11:00~12:15)

3.1.6. 수강신청 홈페이지 사용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시 보안문자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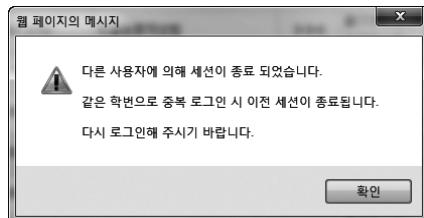
- 수강신청하기 클릭 전 보안문자(2자리 숫자)를 입력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
(보안문자 5회 이상 오류시 자동 로그아웃)

2) 서비스 URL : <http://sugang.snu.ac.kr>

- 수강신청 및 수강편람 검색을 위해서 서울대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snu.ac.kr>)에 접속하거나, 포털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수강편람 검색

3) 유의사항

- 복수 로그인 금지
 - 하나의 PC에서 여러 학번으로 동시에 로그인 불가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로 모든 브라우저가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하나의 PC에서 하나의 학번으로 여러 브라우저 사용 불가
[“이미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사용중입니다.”]라는 메시지 출력



- 하나의 학번으로 여러 PC에서 로그인 불가하며, 복수 로그인 시 이전 로그인 사용자에게 [“다른 사용자에 의해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출력
- 브라우저 및 최적 해상도
 - Internet Explore(V. 6 이상), Firefox(V. 3 이상) 등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 수강신청 화면은 (1024*768) 해상도 이상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며 Internet Explore(V.7 이상), 해상도 (1280*1024)에 최적화되어 있음.
- 팝업 허용
 -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팝업차단을 설정한 경우, 일부기능을 위해 팝업허용할 웹사이트로 <http://sugang.snu.ac.kr> 추가 필요
 - :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팝업차단 - 설정 - 허용 사이트에 추가
 - ※ 브라우저별 설정방법은 다를 수 있음.
- 수강신청 메뉴 사용 제한시간
 - 수강편람 및 수강신청 메뉴와 수강신청 버튼은 1초에 2회 이상 클릭할 수 없다.
- 미사용 시간 체크
 - 서비스 페이지 로그인 후 일정 시간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세션이 끊어지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세션이 끊어진 경우는 수강신청 페이지에 재접속해야 함.

3.2. 수강신청 기능 및 사용법

3.2.1. 로그인

(신입생은 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이 예비수강신청 전날부터 가능하며, 수강검색 등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함)

사용자란에 학번을 “-”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본인이 지정한 수강신청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본인의 학번 및 수강신청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학번/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하거나 [포털(my. snu.ac.kr)-학사행정-개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의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로 초기 입력되므로 로그인 후 ‘수강신청인적 정보’에서 변경 가능하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NU CRS Course Registration System.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수강편람' (Course Catalog), '수업교시기준' (Teaching Schedule Criteria), '강좌검색' (Search Courses), '수강신청' (Enrollment), 'MBA 수강신청' (MBA Enrollment), and links for 'HOME', 'NOTICE', 'FAQ', 'Q&A', and 'ENGLISH'. Below the header, a 'Login' form is displayed with fields for '학번' (Student ID) and '비밀번호' (Password). A '로그인' (Login) button is next to it. A note below the form states: '201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입니다.' and '2012학년도 동계계열학기부터 수강신청 버튼 클릭 후 매기정보(예상학간, 대기자 수)가 표시 됩니다.' A large table titled '수강신청 구분' (Enrollment Category) lists various enrollment categories with their respective dates, days, times, and target students.

3.2.2. 학번 및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에 필요한 학번을 찾기 위해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과정을 입력한 후 [학번찾기]/[비밀번호 초기화]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번을 입력하고 [SMS로 보내기], [mySNU 메일로 보내기], [등록된 외부메일로 보내기] 중 원하는 방법을 클릭하면 초기화된 비밀번호가 SMS, 학교메일(나의 포털id@snu.ac.kr), 등록된 외부메일 중 학생이 선택한 확인수단으로 전송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비밀번호 초기화가 불가능한 관계로, 비밀번호는 임의 초기화되어 학생 연락처로 발송된다.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또는 수강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강신청인적정보에서 수강신청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mySNU 개인정보 항목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password recovery page of the SNU CRS system. It features a 'Login' form with fields for '학번' (Student ID) and '비밀번호' (Password). Below the form is a note: '▶ 본인 학번 및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A '학번/비밀번호 찾기' (Find Student ID/Password) button is located to the right. A table titled '수강신청 구분' (Enrollment Category) lists various enrollment categories with their respective dates.

3.2.3. 수강신청 인적정보(수강신청 비밀번호 변경)

‘수강신청인적정보’는 수강신청 대상자가 구성된 경우, 해당 수강신청 기간의 본인의 과정, 전공, 등록학수, 수강가능학점, 변경가능학점, 반복교과목 이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유의할 것은 수강신청 대상자 구성은 해당학기 준비를 위한 학적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종 수강신청 대상 인적이 구성되므로, 간혹 현재 존재하는 수강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메시지가 뜰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강좌를 검색하고 원하는 학기의 관심강좌를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강신청일정’란의 명칭이 화면 상단의 대표타이틀 일정과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강좌검색 및 관심강좌 기능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

최종으로 수강신청 인적정보 구성은 늦어도 예비수강신청 일정 이전에는 완료되므로 예비 수강신청 기간에는 자신의 변경가능 학점, 이전학기 성적, 반복교과 이수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선택교과목 이수 내역이 없습니다.

3.2.4. 수업교시 기준

서울대 수업교시 기준 및 교시별 수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는 50분, 75분 수업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교시	50분 수업(정시 시작)	75분 수업(정시 시작)	75분 수업(30분 시작)
0교시	08:00~08:50		
1교시	09:00~09:50		09:30~10:45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11:00~12:15	
4교시	12:00~12:50		12:30~13:45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14:00~15:15	
7교시	15:00~15:50		15:30~16:45
8교시	16:00~16:50		
9교시	17:00~17:50		
10교시	18:00~18:50		
11교시	19:00~19:50		
12교시	20:00~20:50		
13교시	21:00~21:50		

3.2.5. 강좌검색

강좌검색은 기존의 수강편람의 강좌 조회 서비스와 동일하며 수강편람은 강좌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사전수강신청, 관심강좌, 수강신청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다.

강좌검색은 크게 간편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된다. 강좌검색을 들어가면 초기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시작하게 된다.

강좌검색 후 검색된 교과목은 [관심강좌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강좌에 등록하거나 예비수강신청이나 수강신청 기간에는 [예비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예비수강신청 내역에 등록하거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도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Course Search' page of the SNU CRS system. At the top, there are search filters for year (2013), semester (2nd semester), subject code (교과목번호), subject name (교과목명), professor (교장명), and search type (전체). On the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조건지우기' (Clear Conditions), '상세검색' (Advanced Search), and 'SEARCH'. Below the filters is a note: '※ 이전 학기의 경과 및 상세 조건별 조회는 '상세검색'에서 가능합니다.' (Previous semester's results and detailed search by condition are available in 'Detailed Search'). The main area is titled '검색건수 0건' (0 results found) and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선호 (Preference), 강의 (Lecture), 교과 (Major), 계열학과 (College Major), 학년 (Year), 교과목 번호 (Subject Number), 강좌 번호 (Lecture Number), 교과목명 (Subject Name), 학점-강의-영점 (Credit-Lecture-Point), 수업교시 (Lecture Session), 수업 형태 (Lecture Type), 강의실 (동-호) (Lecture Room (Room-Block)), 주담당 교수 (Responsible Professor), 수강 신청 인원 (Number of Registrants), and 비고 (Remarks).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수강신청' (Enrollment), '예비수강신청' (Pre-enrollment), and '관심강좌저장' (Save to Interested Courses).

■ 간편검색

간편검색은 최근 년도, 학기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학과, 교양구분, 교과목번호와 명칭 등으로 빠르게 조회하며, [조건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했던 조회 조건을 모두 초기화하여 새로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욱 다양한 조건으로의 검색은 [상세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 강좌검색

년도 2013	학기 2학기	학년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조건지우기
교과목번호 025.004	교과목명	교양영역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상세검색
개설학과 전체	전체	SEARCH		

▶ 이전 학기의 정보 및 상세 조건별 조회는 "상세검색"에서 가능합니다.

검색건수 1건

선택	강의계획서	교과구분	개설학과	학년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부제명)	학점-강의-슬	수업교시	수업 형태	강의실 (동-호) (#연간)	주담당 교수	정원	수강 신청 인원	비고
▶	교양	교육학과	1학년	025.004	설과 교육		3-3-0	금(10:00~12:50)	이론	006-103	김지현	60	53		

▶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신청 카운팅되는 동안에는 수강 일련번호가 비활성화 됩니다.

4 1 [] 수강신청 ▶ 예비수강신청 [관심강좌저장] [액셀저장]

[<<] [<] 1 [>] [>>]

■ 상세검색

상세검색은 간편검색 상태에서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상세검색은 수강신청 이용 폭주 시간대 등 특정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세검색은 간편검색 조회 조건을 포함하여 학점, 강의동 위치, 정원, 수업교시, 교수명, 수강신청인원 등 다양한 조건으로 수강을 원하는 다양한 강좌를 검색 할 수 있다. 또한 강의동이나 수업교시는 캠퍼스맵과 수업교시기준을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강좌검색

년도 2013	학기 2학기	학년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조건지우기			
교과목번호 025.004	교과목명	교양영역 전체 전체	전체 전체	간편검색			
개설학과 전체	전체	교과구분 전체	학점 ~	강의동 전체	선택	별과수명	SEARCH
교수명	정원	수강신청인원	~	수업교시	교시선택		
수업진행형태 전체	영어강의여부	성적부여형태 전체	정원미달여부				

▶ 이전 학기의 정보 및 상세 조건별 조회는 "상세검색"에서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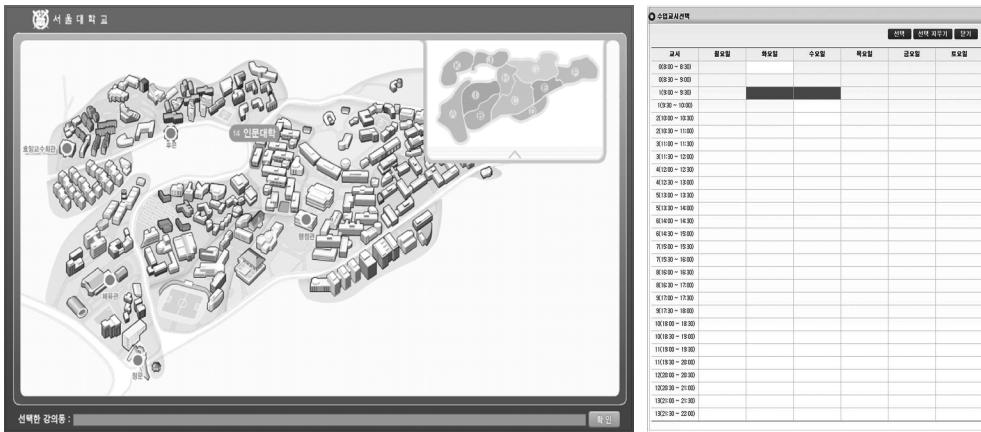
검색건수 1건

선택	강의계획서	교과구분	개설학과	학년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부제명)	학점-강의-슬	수업교시	수업 형태	강의실 (동-호) (#연간)	주담당 교수	정원	수강 신청 인원	비고
▶	교양	교육학과	1학년	025.004	설과 교육		3-3-0	금(10:00~12:50)	이론	006-103	김지현	60	53		

▶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신청 카운팅되는 동안에는 수강 일련번호가 비활성화 됩니다.

4 1 [] 수강신청 ▶ 예비수강신청 [관심강좌저장] [액셀저장]

[<<] [<] 1 [>] [>>]



■ 강좌 상세 조회

고급검색 및 간편검색을 통해 조회된 결과에서 교과목명을 클릭하면 상세조회, 강의계획서, 수강반, 2군 교과목, 동일대체교과목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부제 코드	부제명		
025.004					
교과목명	학시	교과구분	교양	개설학과	교육학과
교과목개설		교양영역	핵심교양 - 사회와 이념	학년	1
학점	3	강의시간	3	설립일습시간	0
담당교수	김지현	정원	60	개설학기 학점당 수강료	0
수업진행 형태	이론	수업 진행 언어		성적부여형태	A~F
상대평가 교과목	YES	제한 교과목	NO	외국인 수강제한 교과목	NO
교직 교과목	NO	동년 교과목	NO	반복 교과목 (반복이 수학기 가능)	NO
논문연구 교과목	NO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 교과목	NO	외국인시험 대체 교과목	NO
면담시간					
비고					

■ 관심강좌로 저장하기

관심강좌로 추가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심강좌저장] 버튼을 통해 자신이 검색한 년도 학기의 강좌를 미리 관심강좌로 추가해 둘 수 있다. 단, 관심강좌에 담아둔 정보는 교과목과 강좌코드만을 기억하며 추후 강의실, 수업교시 등이 변경될 경우 현재 조회한 값과 다를 수 있다.

관심강좌로 등록해 두면 학생별로 과목별, 강좌별로 어떤 제약 없이 담아둘 수는 있으나 등록 개수는 학기별로 1인당 특정 수량으로 제한된다.

■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하기

실제 예비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 기간인 경우는 자신이 검색한 년도 학기의 강좌를 [예비수강신청하기] 및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예비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을 바로 할 수도 있다.

3.2.6. 관심강좌

관심강좌는 [수강편람 > 강좌검색]에서 [관심강좌저장]을 통해 저장해둔 내역을 관리하는 메뉴이다.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기간에는 본 화면에서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화면에서도 [관심강좌에서 신청하기]탭을 통해 쉽고 빠르게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 관심강좌 시간표 보기

관심강좌 메뉴에서 원하는 강좌 조합들을 선택하고 [시간표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해당 시간표가 펼쳐지게 된다. 시간표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관심강좌 시간표를 출력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 관심강좌' (Interest Courses) section of the university's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수강편람' (Course Catalog), '수강신청' (Enrollment Application), and 'MBA 수강신청' (MBA Enrollment Application). Below these are buttons for '수강신청방법안내' (Enrollment Method Guide) and 'ENGLISH'. A search bar and a '관심강좌' (Interest Courses) button are also present.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courses with columns for '선택교과구분' (Subject Selection Category), '교과목명' (Course Name), '학점-강의-학습' (Credit-Lecture-Study), '수업교시' (Lecture Time), '수업 형태' (Type of Instruction), '강의실 (동-호) (주제)' (Lecture Room (Building-Room) (Topic)), '주담당 교수' (Primary Instructor), '정원' (Capacity), '수강 신청 인원' (Number of Registrants), and '비고' (Remarks). Below the table, there are two informational messages: one about course information and another about enrollment method. At the bottom, there is a large table for viewing the course schedule, with columns for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and '토요일' (Saturday). The schedule lists various lecture times and room numbers for different courses. A '시간표인쇄' (Print Schedule)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schedule table.

3.2.7. 예비수강신청

예비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실제 수강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기간이 아니더라도 화면을 볼 수 있다. 다만, 예비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다.

예비수강신청은 수강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되어 강좌별 신청인원 수에는 제한이 없어 실제 수강신청에서처럼 선착순이 아니다. 즉, 정해진 기간동안 편한 시간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방법 습득과 개인의 강의계획을 세워보고 또한 자신이 신청한 강좌의 예비수강신청자수를 통해 경쟁률을 가늠할 수 있다.

예비수강신청한 내역이 수강신청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지만 사전에 본인의 시간표 중복, 동일교과목, 제한과목, 수강반 제어 등의 실제 수강신청에서의 제약사항을 미리 검토한 내역이므로 실제 수강신청 시 빠르고 편리하게 수강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비수강신청 방법

예비수강신청 방법으로는 아래 화면과 같이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교과목번호로 신청]의 3가지 화면이 제공된다. 각각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예비수강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비수강신청 내역으로 가게 된다.

참고로 앞서 설명된 다른 화면에서의 예비수강신청 방법으로는 [수강편람 > 강좌검색]과 [수강편람 > 관심강좌]에서의 신청 방법이 있다.

■ 예비수강신청 목록 삭제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및 [교과목번호로 신청]을 통하여 예비수강 신청한 교과목 목록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다. 삭제는 [수강신청 > 예비수강신청 내역]에서도 가능하다.

3.2.8. 예비수강신청 내역

예비수강신청기간 동안 신청된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며, 필요시 수정, 삭제, 엑셀저장이 가능하고 등록된 예비수강신청 내역의 개인시간표 출력 기능이 제공된다.

예비수강신청한 내역에서는 특히 재이수정보를 확인 관리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재이수정보의 여부를 체크하면 본인이 수강한 강좌 중 해당 교과목과 동일/대체인 재수강 가능한 교과목 목록이 뜨고 이 중 선택한다. 재이수정보의 수정된 내역은 추후 수강신청 시 예비수강신청 내역에서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된 사항대로 신청이 바로 이루어진다.

학번		이름		수강편람		수강신청	예비수강신청	수강신청내역	MBA수강신청	HOME · NOTICE · FAQ · Q&A	수강신청방법안내	ENGLISH				
수강신청면책정보		로그아웃														
■ 예비수강신청내역																
신청가능학점 21학점 / 신청학점 14학점 / 신청강좌 5건																
선택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부제목)	교과구분	전공구분	재미수정보				정원	예비수강 신청인원			비고		
						여부	년도	학기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총	적		전체	
<input type="checkbox"/>	101.401A		한국어발언학	전선	주전 공					30	3	2	5			
<input type="checkbox"/>	005.010	001	심리학개론	교양						80	12	8	20			
<input type="checkbox"/>	200.113A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일선						100	27	27	54			
<input type="checkbox"/>	003.053		현대예술의 이해	교양						80	13	7	20			
<input type="checkbox"/>	001.014		국어회화	교양						40	5	4	9			

삭제 | 엑셀저장

평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08:00 ~ 08:30)					
0(08:30 ~ 09:00)					
1(09:00 ~ 09:30)			현대예술의 이해 (007-105)		
1(09:30 ~ 10:00)	국어회법 (006-105)		국어회법 (006-105)	현대예술의 이해 (007-106)	
2(10:00 ~ 10:30)	국어회법 (006-105)		국어회법 (006-105)	현대예술의 이해 (007-106)	
2(10:30 ~ 11:00)	국어회법 (006-105)		국어회법 (006-105)	현대예술의 이해 (007-106)	
3(11:00 ~ 11:30)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083-404)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083-404)		
3(11:30 ~ 12:00)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083-404)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083-404)		
4(12:00 ~ 12:30)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083-404)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083-404)		
4(12:30 ~ 13:00)				심리학개론 (016-110)	
5(13:00 ~ 13:30)				심리학개론 (016-110)	
5(13:30 ~ 14:00)				심리학개론 (016-110)	

3.2.9. 수강신청

실제 수강신청을 하는 화면이다. 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해당기간이 아니더라도 화면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다. 실제 수강신청 기간에도 사전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준비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할 내역을 예비수강신청내역이나 관심 강좌 내역에 등록해둔 경우는 실제 신청시간에 클릭만으로 빠르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수강신청 방법으로는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교과목번호로 신청]의 4가지 화면이 제공된다.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수강 신청하기 버튼(보안문자를 입력해야 신청가능)**을 누른다.

■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탭이 맨 첫 화면으로 나오며 여기서는 예비수강신청기간 중 등록한 예비수강신청내역이 조회되며 이 중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목록을 한 강좌씩 선택하여 **보안문자 입력 후 수강신청**을 한다. 이때 예비수강신청 내역에 있는 강좌는 예비수강신청 시 미리 검증이 이루어져 다른 제약사항에 위배되는 내역은 없으므로 정제된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강신청

■ 교과목 검색 및 신청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교과목번호로 신청		재미수정보											
선택	교과 구분	개설학과	학년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부제명)	학정- 강의- 실습	수업교시	수업 형태	강의실 (동-호) (#-연간)	주담당 교수	정원	수강 신청 인원	년도	학기	교과목 번호	비고		
																		8	8
□ 전선	국어국문학과	4학년	101.401A			한국어발언학	3~3-0	화(15:30~16:45)	01론	001-207	정승철	30	11						
□ 교양	심리학과	1학년	005.010	001		심리학개론	3~3-0	금(12:30~15:20)	01론	016-110	이병주	80	64						
□ 전선	언론정보학과	1학년	200.113A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3~3-0	월(11:00~12:15)	01론	083-404	이준용	100	121						
□ 교양	미학과	1학년	003.053			현대미술의 이해	2~2-0	목(09:00~10:50)	01론	007-106	홍숙진	80	80						
□ 교양	국어국문학과	1학년	001.014			국어회화	3~3-0	화(09:30~10:45)	01론	006-105	김승현	40	22						
▶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신청된 강좌에는 숫자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8 8 수강신청 ▶

■ 관심강좌에서 신청

[관심강좌에서 신청]탭을 클릭하면 수강신청기간 전에 평상시에 관심강좌에서 등록해 두었던 과목목록이 조회되며 이 중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강좌를 한 개씩 선택하여 보안문자 입력 후 [수강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수강신청

■ 교과목 검색 및 신청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교과목번호로 신청		비고												
선택	교과 구분	개설학과	학년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부제명)	학정- 강의- 실습	수업교시	수업 형태	강의실 (동-호) (#-연간)	주담당 교수	정원	수강 신청 인원	년도	학기	교과목 번호	비고			
																		8	8	수강신청 ▶
□ 교양	심리학과	1학년	005.010	001		심리학개론	3~3-0	금(12:30~15:20)	01론	016-110	이병주	80	24	40	64					
□ 교양	언론정보학과	1학년	005.023A	001		미디어와 현대사회	3~3-0	월(12:30~13:45)	01론	083-604	박지경	80	37	38	75					언론정보학과 학생 수강불허
□ 전선	국어국문학과	4학년	101.404A			한국어워리미스	3~3-0	월(14:00~15:15)	01론	006-106	전영월	40	15	12	27					
□ 전선	언론정보학과	1학년	200.113A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3~3-0	수(11:00~12:15)	01론	083-404	이준용	100	56	65	121					
▶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신청된 강좌에는 숫자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8 8 수강신청 ▶

■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탭을 클릭하면 수강신청하기 위한 교과목 조회화면이 표시되며, 교과목번호 및 강좌번호로 검색 후 선택하여 보안문자 입력 후 수강신청하기 한다. 단, 수강신청 부하시간에는 교과목명으로 검색하는 것은 제한된다.

■ 수강신청

■ 교과목 검색 및 신청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교과목번호로 신청		SEARCH												
선택	교과 구분	개설학과	학년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부제명)	학정- 강의- 실습	수업교시	수업 형태	강의실 (동-호) (#-연간)	주담당 교수	정원	수강 신청 인원	년도	학기	교과목 번호	비고			
																		8	8	수강신청 ▶
□ 교양	영어영문학과	1학년	010.003B	001		대학영어_1	2~3-0	월(09:30~10:45)	01론	002-106	Christiaan Prinsloo	20	10	10	20					수강기준에 맞지않을시 FC'TEPS 및 기초영어 대학영어1 대학영어2 고급영어 이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교양	영어영문학과	1학년	010.003B	002		대학영어_1	2~3-0	월(09:30~10:45)	01론	002-104	황은희	20	7	14	21					수강기준에 맞지않을시 FC'TEPS 및 기초영어 대학영어1 대학영어2 고급영어 이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신청된 강좌에는 숫자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8 8 수강신청 ▶

■ 교과목번호로 신청

[교과목번호로 신청]탭을 클릭하여 사전에 염두한 교과목 번호 및 강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보안문자 입력 후 수강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

■ 교과목 검색 및 신청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interface for course numbers. It includes fields for '교과목번호' (Course Number) and '강좌번호' (Lecture Number), both with placeholder text '교과목번호'. Below these fields is a note: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신청 체크되는 동안에는 수강 신청권이 비활성화 됩니다.' (While a registered course is checked, the registration right is disabled). At the bottom are two buttons: '8 8' and '수강신청' (Register).

■ 수강신청 목록 삭제

[예비수강신청에서 신청, 관심강좌에서 신청, 교과목 검색하여 신청 및 교과목번호로 신청, 강좌검색]을 통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동일화면의 수강신청 내역에서 보여지는데 내역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과목을 선택하여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수강신청된 내역의 삭제는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도 가능하다.

3.2.10. 수강신청 내역

수강신청된 강좌는 [수강신청 > 수강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 내역에서는 신청된 교과목을 삭제하거나, 교과구분, 전공구분, 재이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 목록을 엑셀로 저장하며, 시간표를 출력할 수 있다. 재이수 정보의 여부를 체크하면 본인이 수강한 강좌 중 해당 교과목과 동일/대체인 재수강 가능한 교과목 목록이 뜨고 이 중 선택한다.

The screenshot displays a table of registered courses. The columns include: 선호번호 (Preference Number), 교과목 번호 (Course Number), 강좌 번호 (Lecture Number), 교과목명 (부제명) (Course Name (Subtitle)), 교과구분 (Major Category), 전공구분 (Major Department), 재이수정보 (Re-enrollment Information), 수강신청인원 (Number of Registrants), 정원 (Capacity), 정원 충족 여부 (Capacity Filled Status), and 비고 (Remarks). There are three entries:

선호번호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부제명)	교과구분	전공구분	재이수정보			수강신청인원	정원	정원 충족 여부	비고		
						여부	년도	학기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001.014	국어회화		교양			여부	년도	학기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40	11	10	22
010.093	002	홀로그램어_2	교양								20	8	6	14
101.212A	한국어플론		전선	주간표							40	12	15	27

Below the table is a time-table grid showing available slots for different days and times. The grid includes columns for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and 토요일 (Saturday). Specific times listed include 09:00 ~ 09:30, 10:30 ~ 11:00, 11:10 ~ 11:30, etc. At the bottom right is a button labeled '시간표인쇄' (Print Schedule).

4. 수강시 지켜야 할 몇 가지

4.1. TEPS 및 기초영어 · 대학영어 1 · 대학영어 2 · 고급영어 이수규정

- ※ 1학년 교양 필수 교과목인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교과목을 1학년 또는 단과대별 이수 학기에 미수강할 경우 졸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동계계절학기에는 ‘대학영어 1’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4.1.1. 이수규정(2014학번 이후 입학생에 해당됨)

1) 전 대학 공통사항

- (1) 영어 필수 이수 교과목 수와 종류, 영어 교과목 면제 여부는 입학 시 TEPS 성적 (입학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내 정기 TEPS 성적 및 신입생 TEPS 특별시험 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결정된다. 각 학생의 구체적인 『학문의 기초』〈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은 단과대학 이수규정에 따른다.
 - (2) 입학 시 TEPS 성적 기준으로 결정된 영어 필수이수 교과목은 졸업시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TEPS 점수가 실제 영어 구사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영어 교수진의 심사를 통해 강좌를 재배정 받아야 하며, 상위 단계 교과목으로 재배정 받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영어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수는 변경되지 않는다(외국인 학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학번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됨).
 - ※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 시 TEPS 성적보다 높은 TEPS 성적을 취득하여 상위반 배정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영어 사무실(3동 212호)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 요건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입학 후 취득한 TEPS 성적으로는 영어 교과목 면제가 불가능하다.
 - ※ ‘기초영어’ 대상자 중 입학 시 TEPS 성적보다 높은 TEPS 성적을 취득하여 상위반 배정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후 2개월 내에 대학영어 사무실(3동 212호)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요건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TEPS 성적이 없는 경우 ‘기초영어’를 포함한 영어 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입학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내 정기 TEPS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 TEPS 특별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2) 단과대학별 이수규정

학번	단과대학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2014학번 이후	인문대학 (1과목 또는 2과목 필수)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2과목 필수)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수의과대학 (1과목 필수)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고급영어: 발표 수강 필수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800점 이하: 1과목 필수; 801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가능
	그 외 대학 (900점 이하: 1과목 필수; 901점 이상: 영어 이수 면제)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900점: 수강 필수; 901점 이상: 수강 가능
2009~2013학번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그 외 대학	550점 이하	55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필수	801점 이상: 수강 필수
2006~2008학번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간호대학 2006학번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그 외 대학 및 간호대학 2007~2008학번	550점 이하	551~75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5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2003~2005학번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대학영어 1 면제, 고급영어 수강 가능
2000~2002학번		500점 이하	501~700점: 수강 필수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수강 필수
1999학번 이전		TEPS 성적 없이 수강 가능	TEPS 성적 없이 수강 가능	701~800점: 수강 가능	701점 이상: 수강 가능

(1)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원자핵공학과 제외),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영어 1과목 필수

※ 『학문의 기초』〈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 외국어 2개 교과목 필수(단, 자유전공학부는 외국어 8학점 또는 9학점 필수)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900점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TEPS 901점 이상(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반드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한다.

(2) 수의과대학: 영어 1과목 필수

※ 『학문의 기초』〈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 영어 1개 교과목 및 외국어 1개 교과목 필수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발표’를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반드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한다.

(3) 인문대학: 영어 1과목 또는 2과목 필수

※ 『학문의 기초』〈외국어〉 영역 이수 조건: 제2외국어 9학점, 영어 2학점 또는 4학점 필수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 혹은 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고급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TEPS 성적을 받은 학생의 경우 전체 교양 최저이수 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대학영어 2’ 이수

후에는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1’을 이수하고, 이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4) 공과대학(원자핵공학과): 영어 2과목 필수
-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두 과목을 수강하여 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 ② TEPS 801점 이상 성적 소지자는 ‘고급영어’ 두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대학영어 2’ 이수 후에는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1’을 이수하고, 이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1.2. 수강자격 확인(TEPS성적 기준, 학번/소속 단과대학별 수강규정에 따름)

※ 수강자격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마감 이전에 대학영어 사무실에 문의해야 한다.

- 1) TEPS 최고 성적 기준으로 수강 교과목이 결정됨(TOEIC, TOEFL 등 불인정)
- (1)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수강기준 (학번,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다름)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있어야 한다.

학번	수강 기준 TEPS 성적
2014학번 이후	입학 시 TEPS 성적(입학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내 정기 TEPS 성적 및 신입생 TEPS 특별시험 성적 중 최고 성적)
2013학번 이전	유효기간 상관없이 수강 학기의 개강 전까지 취득한 TEPS 성적(신입생 TEPS 특별시험 성적 포함) 중 최고 점수 ※ 2016학년도 1학기의 경우 TEPS 정기시험은 211회(2016년 1월 30일 시행) 성적까지만 인정된다.

(2) TEPS 외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TOEIC, TOEFL 등 불인정)

※ 단,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영어 사무실로 TOEFL 성적을 제출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제출한 TOEFL 성적으로 수강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다.

2) 대학영어 사무실로 TEPS 성적 제출 불필요(2010년 1학기부터 실행)

- (1) 2010학년도 1학기부터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TEPS 성적을 일괄적으로 받아 수강 자격을 확인하므로 대학영어 사무실에 TEPS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2) 단, 외국에서 TEPS에 응시했거나 외국인(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TEPS관리위원회의 성적 조회 시 0점으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대학영어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의 수강자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3) 입학 시 TEPS 성적보다 높은 TEPS 성적을 취득하여 상위반 배정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TEPS 성적표를 대학영어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인 학생

(1) 2009학번 이후

- ① 2009학번부터는 외국인 학생도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수강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09학번부터는 외국인 학생도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수강자격 부여 기준 성적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있어야 한다.
- ② 수강기준에 맞는 TEPS 성적이 없는 경우 “F” 처리된다.

(2) 2008학번 이전

- ① TEPS 성적 없이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TEPS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적에 따라 수강 교과목이 결정된다.
- ② 비영어권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현지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한다.
※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의 현지 학교를 다녔으나 담당교수가 판단하기에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경우에는 ‘고급영어’를 수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비영어권/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고급영어’를 수강한다.

(3) 한 학기에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두 개 이상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F” 처리된다.

※ 2006~2008학번 학생 중 TEPS 751점 이상 혹은 TOEFL 583(CBT 237, iBT 93)점 이상의 성적 사본을 기초교육원 행정실로 제출한 학생은 ‘대학영어 1’ 이수를 면제하되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2003~2005학번 학생의

경우 TEPS 701점 이상 혹은 TOEFL 560(CBT 220, iBT 85)점 이상)

4)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 (1) TEPS 성적 없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 (2) 한 학기에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두 개 이상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F” 처리된다.

5)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 학생

- (1) TEPS 성적 없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 (2)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신체상의 이유로 TEPS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여 입학관리본부나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그 사유를 인정받은 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3) 한 학기에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두 개 이상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F” 처리된다.

6) 수강자격 확인 결과 성적이 “F” 처리되는 경우

- ※ 아래와 같은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 “F” 처리되므로 수강신청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1)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수강기준에 적합한 TEPS 성적이 없고,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이전 단계에 속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는 경우
 - (2) 본인의 TEPS 성적보다 낮은 단계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 ① ‘고급영어’ 학점 취득자 또는 TEPS 성적상 ‘고급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대학영어 2’ 또는 ‘대학영어 1’ 또는 ‘기초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 ② ‘대학영어 2’ 학점 취득자 또는 TEPS 성적상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대학영어 1’ 또는 ‘기초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 ③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 또는 TEPS 성적상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이 ‘기초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 (3) 단계가 다른 교과목을 한 학기에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 (예)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1’을 한 학기에 동시 수강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2’를 한 학기에 동시 수강
‘기초영어’와 ‘고급영어’를 한 학기에 동시 수강
‘대학영어 1’과 ‘대학영어 2’를 한 학기에 동시 수강

‘대학영어 1’과 ‘고급영어’를 한 학기에 동시 수강
‘대학영어 2’와 ‘고급영어’를 한 학기에 동시 수강

7) TEPS 성적이 필요 없는 경우

- (1) ‘기초영어’ 학점취득자가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경우
- (2) ‘대학영어 1’ 학점취득자가 ‘대학영어 2’ 또는 ‘고급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 (3) ‘대학영어 1’ 또는 ‘대학영어 2’ 학점취득자가 ‘고급영어’를 수강하는 경우
- (4)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학생(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 (5) 국내외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 (6) 2008학번 이전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
- (7) 대학원생

4.1.3. 동시수강 및 재수강 관련 규정 등

1) 동시수강 관련 규정

- (1)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에서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을 동시 수강할 수 없으며, 동시 수강할 경우 “F” 처리된다.
- (2) 단,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글쓰기, 말하기) 및 ‘고급영어’에 속한 7개 과목 (산문, 학술작문, 영화, 연극, 문화와 사회, 발표, 문학)은 한 학기에 최대 2개까지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2) 재수강 관련 규정

- (1) 재수강의 경우,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영어 1’을 ‘대학영어 2’나 ‘고급영어’로 재수강할 수 있다.
※ 단, 대체교과목 재이수로 신청해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재이수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과목을 따로 들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글쓰기, 말하기)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되며, ‘고급영어’에 속한 7개 과목(산문, 학술작문, 영화, 연극, 문화와 사회, 발표, 문학)도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 단, 대체교과목 재이수로 신청해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며, 재이수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과목을 따로 들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3) 2009학년도부터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가 모두 2학점 3시간으로 개설되므로 이를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3학점이 아닌 2학점만을 인정받는다.

※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교과목의 학점구조 변경(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으로 인해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 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4) ‘교양영어’ 재수강생

1999학년도 이전에 수강했던 ‘교양영어’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로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TEPS 성적 없이 수강할 수 있다.

3)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불가(2009년 2학기부터 실행)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만약 교생실습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교생실습과 관련된 일체의 유계결석을 담당교수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적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다.

4.1.4. 학번별 수강안내

1) 2009~2013학번 재학생

(1)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자연계),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 혹은 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 ② TEPS 801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고급영어’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고급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TEPS 성적을 받은 학생은 『학문의 기초』 영역 최저 이수학점에서 2학점이 부족하여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 최저 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대학영어 2’ 이수 후에는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단,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경우 TEPS 50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1’을 이수하고, 이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단,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경우 TEPS 50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 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대학영어 1’을 이수하고, 이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인문계), 자유전공학부, 음악대학, 미술대학

① 학사과정 학생은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교양필수)

② TEPS 801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고급영어’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③ TEPS 701~8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한다.

④ TEPS 55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 단, 음악대학, 미술대학의 경우 TEPS 501~700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⑤ TEPS 55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반드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한다.

※ 단, 음악대학, 미술대학의 경우 TEPS 500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기초 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기초영어’ 이수 후에는 반드시 ‘대학영어 1’을 이수해야 한다.

2) 2006~2008학번 재학생

(1) TEPS 551~750점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TEPS 751점 이상 혹은 TOEFL 583(CBT 237, iBT 93)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영어 1’ 이수를 면제하되 ‘고급영어’를 수강하거나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수강기준에 맞는 TEPS 성적이 없어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TEPS 701~800점의 성적을 가진 학생은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 단, ‘고급영어’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없다.

※ 개별적으로 응시한 시험에서 TEPS 751점 이상 혹은 TOEFL 583(CBT 237, iBT 93)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대학영어 1’ 이수를 면제받으려는 학생은 TEPS나 TOEFL 성적 사본을 졸업 사정 이전까지 기초교육원 행정실(61동 203호)로 제출해야 한다.

(2)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이 ‘대학영어 1’ 혹은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재) 수강할 경우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교과목의 학점구조 변경(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으로 인해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3) 2003~2005학번 재학생

(1) TEPS 501~700점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영어 1’을 수강해야 한다. TEPS 701점 이상 혹은 TOEFL 560(CBT 220, iBT 85)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영어 1’ 이수를 면제하되 ‘고급영어’를 수강하거나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수강기준에 맞는 TEPS 성적이 없어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TEPS 701~800점의 성적을 가진 학생은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 단, ‘고급영어’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없다.

※ 개별적으로 응시한 시험에서 TEPS 701점 이상 혹은 TOEFL 560(CBT 220, iBT 85)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대학영어 1’ 이수를 면제받으려는 학생은 TEPS나 TOEFL 성적 사본을 졸업 사정 이전까지 기초교육원 행정실(61동 203호)로 제출해야 한다.

(2)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이 ‘대학영어 1’ 혹은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재) 수강할 경우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교과목의 학점구조 변경(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으로 인해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4) 2000~2002학번 재학생

(1) TEPS 점수에 따라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가운데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TEPS 501~700점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영어 1’, TEPS 701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고급영어’를 수강해야 한다.

(2)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수강기준에 맞는 TEPS 성적이 없어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으며, TEPS 701~800점의 성적을 가진 학생은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 단, ‘고급영어’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없다.

(3)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이 ‘대학영어 1’ 혹은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재) 수강할 경우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교과목의 학점구조 변경(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으로 인해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5) 1999학번 및 그 이전 재학생

- (1) TEPS 성적 없이 ‘대학영어 1’을 수강할 수 있다.
- (2)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수강기준에 맞는 TEPS 성적이 없어도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 (3) TEPS 701~800점의 성적을 가진 학생은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 (4) TEPS 701점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 (5) ‘고급영어’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없다.

4.1.5. LAB 수업 이수 규정

- 1)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모두 LAB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 2)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15주(매주 50분씩) 동안 영어 말하기교실 수업을 수강해야 하며, 영어 말하기교실 수강 점수는 수강과목 총점의 10%이다.
- 3) ‘대학영어 1’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당 최소 1회 영어 글쓰기교실을 방문하여 지도 받아야 하며,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점수는 수강과목 총점의 5%이다.
- 4) ‘기초영어’, ‘대학영어 1’을 재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과거 LAB 수업 이수 여부에 상관 없이 LAB 수업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 5) ‘대학영어 2’와 ‘고급영어’ 수강생은 LAB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영어 글쓰기 교실의 자율적 방문이 가능하다.
 - ※ 영어 말하기교실 수업은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본 수업 수강신청과 동시에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 개강 첫 날 수업시간에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예약 일정 및 방법 관련 안내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므로 이 안내 자료를 확인한 후 영어 글쓰기교실 방문 예약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대학영어 사무실: 3동 212호 (전화: 880-5881, 5487)

* 영어 글쓰기교실: 3동 203호 (전화: 880-4010)

4.2.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4.2.1. 매학기 운영되는 『학문의 기초』의 <외국어> 영역(제2외국어) 교과목 수강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규정을 어긴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 “F” 처리될 수 있다. 수강신청 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은 다음의 해당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 베트남어 1
- 2)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은 다음의 해당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초급중국어 1-2, 초급프랑스어 1-2, 초급독일어 1-2, 초급러시아어 1-2, 초급스페인어 1-2, 아랍어 1-2, 베트남어 1-2
- 3)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12년 거주)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의 해당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 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2, 핀란드어 1, 히브리어 1

4.2.2. 동일 외국어 교과목의 역수강을 금지한다.

- 고급 ⇒ 중급, 중급 ⇒ 초급 순서의 수강 금지
〈초급외국어 1, 초급외국어 2, 중급 외국어〉 사이에는 역수강이 금지
(* 역수강 금지 교과목 현황 : 목록 참고)

◆ 역수강 금지 교과목 목록 (2016학년도 1학기 기준)

교과목코드	성적 취득 교과목	선이수 교과목코드	역수강 금지 교과목
032.011	초급중국어 2	032.010	초급중국어 1
032.012	중급중국어 1	032.010	초급중국어 1
		032.011	초급중국어 2
032.013	중급중국어 2	032.010	초급중국어 1
		032.011	초급중국어 2
		032.012	중급중국어 1
032.014	중국어회화 1	032.010	초급중국어 1
		032.011	초급중국어 2
032.015	중국어회화 2	032.010	초급중국어 1
		032.011	초급중국어 2
032.016	미디어중국어	032.010	초급중국어 1
		032.011	초급중국어 2
		032.012	중급중국어 1
		032.014	중국어회화 1
032.006	초급한문 2	032.005	초급한문 1
032.007	중급한문	032.005	초급한문 1
		032.006	초급한문 2
032.008	한문명작읽기	032.005	초급한문 1
		032.006	초급한문 2
032.017	대학영어 1	100.001	기초영어
032.018	대학영어 2: 글쓰기	032.017	대학영어 1
		100.001	기초영어
032.019	대학영어 2: 말하기	032.017	대학영어 1
		100.001	기초영어
032.020	고급영어: 산문	032.017	대학영어 1
		032.018	대학영어 2: 글쓰기
		032.019	대학영어 2: 말하기
		100.001	기초영어
032.021	고급영어: 학술작문	032.017	대학영어 1
		032.018	대학영어 2: 글쓰기
		032.019	대학영어 2: 말하기
		100.001	기초영어

교과목코드	성적 취득 교과목	선이수 교과목코드	역수강 금지 교과목
032.022	고급영어: 영화	032.017 032.018 032.019 100.001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글쓰기 대학영어 2: 말하기 기초영어
032.023	고급영어: 연극	032.017 032.018 032.019 100.001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글쓰기 대학영어 2: 말하기 기초영어
032.024	고급영어: 문화와 사회	032.017 032.018 032.019 100.001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글쓰기 대학영어 2: 말하기 기초영어
032.025	고급영어: 발표	032.017 032.018 032.019 100.001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글쓰기 대학영어 2: 말하기 기초영어
032.026	고급영어: 문학	032.017 032.018 032.019 100.001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글쓰기 대학영어 2: 말하기 기초영어
032.028	초급프랑스어 2	032.027	초급프랑스어 1
032.029	중급프랑스어 1	032.027 032.028	초급프랑스어 1 초급프朗斯어 2
032.030	중급프랑스어 2	032.027 032.028 032.029	초급프랑스어 1 초급프朗斯어 2 중급프朗斯어 1
032.031	프랑스어 글쓰기	032.027 032.028	초급프랑스어 1 초급프朗斯어 2
032.033	시사프랑스어	032.027 032.028	초급프랑스어 1 초급프朗斯어 2
032.035	초급독일어 2	032.034	초급독일어 1
032.036	중급독일어 1	032.034 032.035	초급독일어 1 초급독일어 2

교과목코드	성적 취득 교과목	선이수 교과목코드	역수강 금지 교과목
032.037	중급독일어 2	032.034 032.035	초급독일어 1 초급독일어 2
032.038	독일어 글쓰기	032.034 032.035	초급독일어 1 초급독일어 2
032.039	독일어로 읽는 문화와 예술	032.034 032.035	초급독일어 1 초급독일어 2
032.040	시사독일어	032.034 032.035	초급독일어 1 초급독일어 2
032.042	초급러시아어 2	032.041	초급러시아어 1
032.043	중급러시아어 1	032.041 032.042	초급러시아어 1 초급러시아어 2
032.044	중급러시아어 2	032.041 032.042 032.043	초급러시아어 1 초급러시아어 2 중급러시아어 1
032.045	러시아어 말하기	032.041 032.042	초급러시아어 1 초급러시아어 2
032.046	러시아어로 읽는 문화와 예술	032.041 032.042	초급러시아어 1 초급러시아어 2
032.047	시사 러시아어	032.041 032.042	초급러시아어 1 초급러시아어 2
032.049	초급스페인어 2	032.048	초급스페인어 1
032.050	중급스페인어 1	032.048 032.049	초급스페인어 1 초급스페인어 2
032.051	중급스페인어 2	032.048 032.049	초급스페인어 1 초급스페인어 2
032.052	스페인어 글쓰기	032.048 032.049	초급스페인어 1 초급스페인어 2
032.053	스페인어 말하기	032.048 032.049	초급스페인어 1 초급스페인어 2
010.048A	시사 스페인어	032.048 032.049	초급스페인어 1 초급스페인어 2
032.056	포르투갈어입문 2	032.055	포르투갈어입문 1
032.058	이태리어 2	032.057	이태리어 1

교과목코드	성적 취득 교과목	선이수 교과목코드	역수강 금지 교과목
032.060	스와힐리어 2	032.059	스와힐리어 1
032.07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	032.071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032.076	베트남어 2	032.075	베트남어 1
032.064	산스크리트어 2	032.063	산스크리트어 1
032.068	아랍어 2	032.067	아랍어 1
032.074	터키어 2	032.073	터키어 1
032.070	힌디어 2	032.069	힌디어 1
032.066	고급일본어 2	032.065	고급일본어 1
032.078	고전그리스어 2	032.077	고전그리스어 1
032.080	라틴어 2	032.079	라틴어 1

4.3. 수학 및 과학 교과목

4.3.1. 수학성취도 측정시험에 의한 교양수학 수강 안내

1) 수강대상

- 자연과학대학
- 공과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제외)
- 사범대학(수학 · 과학 교육계열)
- 수의과대학(수의예과)
- 의과대학(의예과)
- 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
- 치의학대학원 학사 · 전문석사과정

* 치의학대학원 학사 · 전문석사과정의 경우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2'를 수강할 경우 성취도 시험 결과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학 및 연습 1,2'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2'를 수강할 경우 성취도 시험 결과를 적용한다.

2) 수강분류 : 입학 전 수학성취도 측정시험 결과에 따라 첫 학기 수강 과목이 결정

[교양수학 이수규정]

수학성취도 측정시험 결과에 따른 분류	첫 학기 수강 과목
성적우수자(상위 약 10%)	'고급수학 및 연습 1' 수강 가능
기준 성적 이상인 학생	정규과목 (수학 및 연습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미적분학 및 연습 1')
기준 성적 미달 학생	정규과목과 함께 반드시 '기초수학 1' 동시 수강
기준 성적 미달 학생 중 특별 보충이 필요한 학생	반드시 '미적분학의 첫걸음' 수강 (정규과목 수강 불가)
미응시생	반드시 '미적분학의 첫걸음' 수강 (정규과목 수강 불가)

★ 입학 전에 실시되는 수학성취도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자동으로 '미적분학의 첫걸음' 대상자가 됨.

- ★ 지정된 수강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다른 교양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 신청한 교과 목은 F학점이 부여됨(예를 들어 ‘미적분학의 첫걸음’ 수강 대상자가 ‘수학 및 연습 1’을 수강한 경우,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수강 자격이 없는 학생이 ‘고급수학 및 연습 1’을 수강한 경우)
- ★ ‘기초수학 1’ 이수 대상자는 1학기에 반드시 정규과목과 같이 ‘기초수학 1’을 수강 신청해야 함.
- ★ ‘미적분학의 첫걸음’ 수강자는 ‘미적분학의 첫걸음’에서 S를 받아야만 다음 학기에 정규과목(‘수학 및 연습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미적분학 및 연습 1’)을 수강 신청할 수 있음.

[기초수학 1,2와 미적분학의 첫걸음 비교]

구 분	기초수학 1	기초수학 2	미적분학의 첫걸음
수강대상	수학성취도측정시험결과 기준 성적 미달학생	2학기 정규과목 수강 대상자 중 희망자 (단, 1학기, 계절학기 정규과목 성적이 A- 이상이면 수강 불가)	- 수학성취도측정시험결과 기준 성적 미달학생 중 특별 보충이 필요한 학생 - 입학 전 수학성취도측정 시험 미옹시자
개설학기	1학기(봄)	2학기(가을)	1학기(봄), 2학기(가을) 모두 개설됨
수강방식	정규과목(수학 및 연습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미적분학 및 연습 1)과 동시에 수강	정규과목(수학 및 연습 2,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미적분학 및 연습 2)과 동시에 수강	- 미적분학의 첫걸음만 수강 해야 함. - 정규과목과 동시에 수강 불가
수업방식	주당 2시간 튜터의 특별지도	주당 2시간 튜터의 특별지도	2시간 이론수업-2시간 연습
학 점	1학점	1학점	2학점
성적부여	S/U	S/U	S/U
비 고	기초수학 1의 학점 부여는 정규교과목의 학점과 무관하게 수업 참여도에 따라 부여됨	기초수학 2의 학점 부여는 정규교과목의 학점과 무관하게 수업 참여도에 따라 부여됨	S를 받은 이후에만 다음 학기에 정규과목 수강신청 가능

※ 수리과학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ath.snu.ac.kr/taoffice/calculus/basic/notice_basic.html

◆ 수학관련 과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목 안내 참고

<http://www.math.snu.ac.kr/taoffice/calculus/guide.htm>

과 목 명	1학기	2학기
수학 및 연습 1	자연대, 공대, 농생대, 사범대학 자연계열, 수의과대학(수의예과), 자유전공학부(자연계)	재수강생 및 기타 수강생
수학 및 연습 2	재수강생 및 기타 수강생	자연대, 공대, 농생대, 사범대학 자연계열, 수의과대학(수의예과), 자유전공학부(자연계)
미적분학 및 연습 1	수리과학부 · 통계학과군, 물리 · 천문학부	개설되지 않음
미적분학 및 연습 2	개설되지 않음	수리과학부 · 통계학과군, 물리 · 천문학부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자연대(생명과학부), 의과대학(의예과), 수의과대학(수의예과), 농생대, 치의학대학원	재수강생 및 생활과학대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재수강생 및 기타 수강생	자연대(생명과학부), 의과대학(의예과), 수의과대학(수의예과), 농생대, 치의학대학원
고급수학 및 연습 1 〈절대평가〉	수학 및 연습 1 수강 대상자 중 수학성취도 측정 시험 성적 우수자	개설되지 않음
고급수학 및 연습 2 〈절대평가〉	개설되지 않음	고급수학 및 연습 1 수강자 및 수학 및 연습 1 A+ 취득자. 단, 고급수학 및 연습 1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제외함
기초수학 1	수학 및 연습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미적분학 및 연습 1 수강 대상자 중 수학 성취도 측정 시험 기준 성적 미달 학생	개설되지 않음
기초수학 2	개설되지 않음	수학 및 연습 2,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미적분학 및 연습 2 수강 대상자 중 희망자
미적분학의 첫걸음	수학 및 연습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미적분학 및 연습 1 수강 대상자 중 수학 성취도 측정 시험 기준 성적 미달 학생 중 특별보충이 필요한 학생 혹은 수학성취도 측정시험 미응시자	수학 및 연습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미적분학 및 연습 1 수강 대상자 중 수학 성취도 측정 시험 기준 성적 미달 학생 중 특별보충이 필요한 학생 혹은 수학성취도 측정시험 미응시자, 이전 학기 미적분학의 첫걸음에서 U 학점을 받은 학생
경영학을 위한 수학	경영대	재수강생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 1	수강을 희망하는 인문사회계 학생	생활과학대학(고교 수학 “수학 II, 적분과 통계” 미이수자)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 2	개설되지 않음	수강을 희망하는 인문사회계 학생
수학의 기초와 응용 1	자유전공학부(인문계)	개설되지 않음

* 자연대 생명과학부와 농생대의 경우 '수학 및 연습 1,2'와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2' 중 선택하여 수강함.

4.3.2. 교양 물리 교과목 수강 안내

1) 수강대상

교양 물리학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수강분류

첫 학기 수강과목	분류	공통사항
고급물리학 1	입학 전 희망자들에 한해 실시하는 물리학성취도측정시험 결과 성적순 상위 30명 내외 배정(1강좌)	물리학실험 1과 동시 수강해야 함.
물리학 1	물리학성취도측정시험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	
물리의 기본 1	고교 과정에서 물리2(물리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지 않아 물리학1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3) ‘물리의 기본 1,2’ 수강 안내

- (1) 목적: 고교과정에서 물리2(물리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개설
- (2) 교과목명: ‘물리의 기본 1,2’
- (3) 대상 및 운영방법: 3-3-1(학점-강의시간-연습시간)으로 주 3시간 강의와 수강생 5인당 조교 1명을 배정하여 주 2시간의 튜터링 형식으로 진행한다.
 - * ‘물리의 기본 1’
 - 고교에서 물리2(물리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물리학 실험 1’을 동시에 수강해야 한다.
 - * ‘물리의 기본 2’
 - 고교에서 물리2(물리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면서 ‘물리학 1’ 혹은 ‘물리의 기본 1’을 이미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물리학 실험 2’를 동시에 수강해야 한다.
 - ※ ‘물리의 기본 1’(혹은 ‘물리의 기본 2’)를 이수한 학생이 원할 경우 ‘물리학 1’(혹은 ‘물리학 2’)로 재이수 할 수 있으며, 또한 ‘물리학 1’(혹은 ‘물리학 2’)을 이수한 학생이 원할 경우에도 ‘물리의 기본 1’(혹은 ‘물리의 기본 2’)로 재이수 가능함. 단, ‘물리의 기본 1,2’ 교과목의 경우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수강 가능 조건을 만족해야 함.

4.3.3. ‘기초수학 1,2’ 및 ‘기초과학 1,2’ 교과목 수강 안내

1) 목적

고등학교 수학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입생,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학 교과목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거나 적었던 신입생이 해당 교과목을 수강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2) 교과목명 : ‘기초수학 1,2’, ‘기초물리학 1,2’, ‘기초화학 1,2’, ‘기초생물학 1,2’(각 1학점)

3) 대상

- 기초수학 1,2 : 수학성취도측정시험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한 학생
- 기초물리학 1,2 : ‘물리학 1,2’를 수강하는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 물리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물리 교과목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거나, 부족해서 ‘물리학 1,2’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 중 수강 희망자 120명 내외. (고등학교에서 ‘물리2’(‘물리2’와 동급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물리과목) 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물리의 기본 1,2’를 수강할 것을 권장함.)
- 기초화학 1,2 : ‘화학 1’을 수강하는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에서 ‘화학 2’를 이수 하지 않은 학생 중 수강 희망자 150명 내외
- 기초생물학 1,2 : ‘생물학 1’을 수강하는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에서 ‘생물 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 중 수강 희망자 100명 내외

4) 수업방법 : 5명 내외가 한 조가 되어 학부생 조교로부터 주 1~2회 2시간씩 특별·집중지도를 받게 되며, 성적은 S/U로 평가한다.

5) 수강신청 : ‘기초수학 1,2’ 수강자는 수학성취도측정시험 성적에 의해 배정되며 ‘기초 물리학 1,2’, ‘기초화학 1,2’, ‘기초생물학 1,2’의 수강신청은 자유롭게 하되 수요가 많을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다.

※ 고등학교 수학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입생,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학 교과목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거나 적었던 신입생이 해당 교과목을 수강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1학기에 개설된 ‘기초수학 1(033.016), ‘기초물리학 1(034.012), ‘기초화학 1(034.025), ‘기초생물학 1(034.034)’의 경우 신입생은 1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단, 2학기에 개설하는 ‘기초수학 2’, ‘기초물리학 2’, ‘기초

화학 2', '기초생물학 2'는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기초수학 1'(033.016)의 경우 각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문의 기초』 수학 교과목('수학 및 연습 1'(033.001), '미적분학 및 연습 1'(033.005) 또는 '생명 과학을 위한 수학 1'(033.007))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목이므로, '기초수학 1' 만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수학성취도시험 결과 '기초수학 1'이 본인에게 필수인 경우 반드시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수학 교과목('수학 및 연습 1'(033.001), '미적분학 및 연습 1'(033.005) 또는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033.007))과 '기초수학 1'을 함께 수강신청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말 성적이 무조건 F 처리된다.

4.3.4. '고급수학 및 고급물리학' 수강 안내

1) 목적

수학 또는 물리학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신입생을 위해 개설되었다.

2) 교과목명

'고급수학 및 연습 1,2', '고급물리학 1,2'

3) 대상

- 고급수학 및 연습 1: 수학성취도측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3~4강좌)

- 고급물리학 1: 물리학성취도측정시험 성적순 상위 30명 내외 배정(1강좌)

* 물리학성취도시험은 고급물리학을 수강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만 응시

4) 운영방법

- '고급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물리학 1'에서 성적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고급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물리학 2'를 수강할 수 있으며,

- '수학 및 연습 1' 또는 '물리학 1'에서 A+를 받으면 '고급수학 및 연습 2'의 수강자격 또는 '고급물리학 2' 수강을 위한 물리학성취도 측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4.4. 신입생 세미나(Freshman Seminars) 수강

기초교육원에서는 새내기들의 사고력 향상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목표로 〈신입생 세미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 강좌를 통해 새내기들은 작은 클래스에서 교수님과 만나 학문 탐구의 기본태도를 형성하고, 진로를 모색하며 동시에 인생을 얘기하고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1) 교과목 번호 : 053.001
- 2) 교과목 영역 : 선택교양(대학과 리더십)
- 3) 학점 및 학기당 수업시간 : 1학점, 15시간 이상
- 4) 성적평가방식 : S(합격)/U(불합격)
- 5) 수강대상 : 1학년만 수강가능(2개 학기 등록 전에만 신청 가능함)
- 6) 유의사항
 - 재수강 불가
 - 학기당 수강학점 제한의 저촉을 받지 않고 신청 가능함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은 ‘선착순 수강신청 강좌’와 ‘이메일 인터뷰 실시 강좌’로 구분되어 있으니 이를 유념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선착순 수강신청 강좌 : 수강신청 기간 중 온라인으로 다른 과목과 같은 절차로 개별 신청
- ② 이메일 인터뷰 실시 강좌
 - 수강신청 기간 전에 기초교육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자기 소개, 세미나를 신청하게 된 동기, 수업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에세이를 A4 1쪽 이내로 작성하여 담당교수 이메일로 송부(에세이 서식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http://liberaledu.snu.ac.kr>) 자료실에도 탑재)
 - 담당교수가 지정일까지 수강대상자(이메일 인터뷰 합격자) 명단을 기초교육원으로 제출 ⇒ 기초교육원에서 일괄 수강신청 조치(담당교수가 이메일 인터뷰 신청 학생에게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 :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여석이 있는 강좌에 대하여 이메일 인터뷰 유무에 상관없이 전 강좌 선착순 수강신청이 가능함.

◆ 2016. 1학기 《신입생 세미나》 개설 강좌 목록

※ 이메일 인터뷰 기간 : 2016. 2. 16.(화) ~ 2. 18.(목)

강좌 번호	세미나명	담당교수		정원	이메일 인터뷰 시행	비고
		성명	소속			
001	역자와 함께 읽는 세계문학, 세계 고전	박종소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15	
002	언어 다양성	김주원	인문대학	언어학과	15	
003	“Korean History Through Western Eyes”	Milan Hejmanek (하민성)	인문대학	국사학과	15	영어 진행
004	기억의 역사 - 이순신의 경우, ‘민족의 성웅’에서 ‘고뇌하는 인간’까지	안병직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20	
005	토론으로 하는 철학	박찬국	인문대학	철학과	15	
006	개인의 삶과 권력 - 영화를 통해 본 시대와 삶의 의미	정호근	인문대학	철학과	15	○
007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과 근세 수학의 발전	계승혁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15	○
008	데이터 과학의 이해	임요한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15	
009	컴퓨터, 계산과학, 그리고 지식정보사회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15	
010	많은 생명을 살려낸 의과학자들	정가진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5	
011	시사주간지(TIME 등)을 통한 현대사회 이해	최우갑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0	
012	나를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	서종모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15	
013	Plants FEED the World	김도순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15	
014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 Super Animal by Biotechnology	이창규 외	농업생명 과학대학	식품동물 생명공학부	20	
015	Globalization과 농업통상	김한호	농업생명과학 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0	
016	제주 해녀의 환경적응적 삶과 물웃의 변천	이주영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15	

강좌 번호	세미나명	담당교수			정원	이메일 인터뷰 시행	비고
		성명	소속				
017	혈액을 이용한 질병 진단	김용백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5		
018	Human-Animal bond (동물과 인간의 관계)	박재학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5	○	
019	사람과 동물 그리고 기생충	윤희정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0		
020	복제 동물 이야기(부제: 복제양 “돌리”에서 복제개 “스피너”까지)	장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5		
021	새로운 음악의 세계	김승근	음악대학	국악과	15	○	
022	차세대 표적항암제 개발과 신약개발 산업	강재승	의과대학	의학과	20		
023	여성 생리의 거시적/미시적 이해	구승엽	의과대학	의학과	15	○	
024	사랑에 대한 이해 (성의학적 관점)	손환철	의과대학	의학과	15		
025	역사속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의학적으로 분석함	이정상	의과대학	의학과	15	○	
026	공공부문의 이해	김순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5		
027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박태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15	○	
028	스마트폰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드는가 - 정보 기기와 삶의 변화	이중식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15	○	
28개 강좌					450	8	

5. 2016학년도 대학별 교양 이수규정

□ 인문대학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글쓰기의 기초(3)	3		
	외국어	[1-1] 제2외국어(3) [1-2] 제2외국어(3) [2-1] 제2외국어(3)	9		
		[1-2] [2-1] TEPS 성적에 따라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 중 2 또는 4학점 이수	2(4)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이상에서 15학점 이상 이수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선택 교양		소그룹 고전원전읽기 1 또는 소그룹 고전원전읽기 2 중 1과목 (1)	2		
전체 교양 교과목			5(3)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학문의 세계〉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영역의 교과목은 〈학문의 기초〉 '수량적 분석과 추론', '과학적 사고와 실험'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

※ 제2외국어 이수규정

- 인문대 입학생은 졸업 시까지 제2외국어 9학점을 이수하고, 그 가운데 최소 1과목은 중급 이상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제2외국어가 전공인 경우는 영어와 전공외국어를 제외한 별도의 외국어 혹은 고전어를 위 향에 준하여 반드시 이수 해야 함.

※ 중급 이상 외국어 및 고전어 교과목은 아래를 참조함.

외국어 및 고전어	중급 이상 외국어 및 고전어 교과목명
한문	중급한문, 한문명작읽기, 역사와 철학 한문원전읽기
중국어	중급중국어1, 중급중국어2, 중국어회화1, 중국어회화2, 미디어중국어
프랑스어	중급프랑스어1, 중급프랑스어2, 프랑스어 글쓰기, 시사프랑스어
독일어	중급독일어1, 중급독일어2, 독일어 글쓰기, 독문강독, 시사독일어
러시아어	중급러시아어1, 중급러시아어2, 러시아어 말하기, 러시아어로 읽는 문화와 예술, 시사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급스페인어1, 중급스페인어2, 스페인어 글쓰기, 스페인어 말하기, 시사스페인어
기타 외국어 및 고전어	포르투갈어입문2, 이태리어2, 아랍어2, 힌디어2, 스와힐리어2, 터키어2, 베트남어2, 말레이-인도네시아어2, 산스크리트어2, 고급일본어1, 고급일본어2, 고전그리스어2, 라틴어2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사회과학대학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글쓰기의 기초(3)	3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8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1-2]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기술 또는 생명과 환경에서 최소 3학점 이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7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최소 12학점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3)		
전체 교양 교과목			15-17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 및 비고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자연과학대학

교양		44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3		
	외국어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 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25	• 생명과학부 학생은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2(6)를 수강하여도 됨 •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및 물리·천문학부 신 입생: 미적분학 및 연습 1,2(8) 수강을 권장함 • 실험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실험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고급물리학1,2(6)는 물리학실험 1,2(2)를 동시에 수강)	
	과학적 사고와 실험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 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최우수 학생의 경우 학문의 기초 영역(수량적 분석과 추론, 과학적 사고와 실험)에서 최저 6학점, 최고 14학점까지 교과목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면제 받은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수학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다만, 면제학점이 8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교양과목 최저 이수학점(36학점)기준은 지켜져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12	•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전체 교양 교과목	생명과 환경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간호대학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글쓰기의 기초(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 과목 필수 이수 • 화학(3), 생물학(3)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화학실험(1), 생물학실험(1)을 해당학기에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화학(3), 화학실험(1) [1-2] 생물학(3), 생물학실험(1)	8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영역의 권장과목 (*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 4개 영역 이상에서 18학점 이수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생명의료윤리(3)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사회학의 이해(3), 심리학개론(3)	6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경영대학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글쓰기의 기초(3), 제1영역과 제 2영역 중에서 1개 교과목 선택(3)	6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경영학을 위한 수학(3), 통계학(3), 통계학실험(1)	7	•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통계학 실험 을 해당 학기에 동시에 수강해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3	
선택 교양	생명과 환경		3	
	체육	1		
전체 교양 교과목			4-6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건설환경공학부)

교양		45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외국어	[1-1][3-1]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2] 선택적 필수 과목(16) 물리학1·2(또는 고급물리학1·2), 화학1·2, 생물학1·2,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물리학실험1·2, 화학실험1·2, 생물학실험1·2,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통계학실험) 중에서 학기별로 8학점	16	• 통계학 및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2-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 5개 영역(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 아래 참조
학문의 세계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선택 교양		사회봉사 1	1	• 학부 필수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p>(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p>
창의성 교과목군	<p>(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p>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기계항공공학부)

교양		40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2] 선택적 필수 과목(12) [1-1] 물리학1(또는 고급물리학1), 물리학실험1 [1-2] 물리학2(또는 고급물리학2), 물리학실험2 [1-1,2] 화학1·2, 생물학1·2, 화학, 생물학, (통계학), 화학실험1·2, 생물학실험1·2, 화학실험, 생물학 실험, (통계학실험) 중 총 4학점	12	• 통계학 및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학문의 세계	컴퓨터와 정보 활용	[2-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 5개 영역(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 아래 참조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
창의성 교과목군	(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재료공학부)

교양	43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2] 선택적 필수 과목(16) 물리학1·2(또는 고급물리학1·2), 화학1·2, 생물학1·2, 물리학, 화학, 생물학, (통계학), 물리학실험1·2, 화학실험1·2, 생물학실험1·2, 물리학 실험,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통계학실험) 중에서 학기별로 8학점을 이수	16
	컴퓨터와 정보 활용	[1-2] 컴퓨터의 기초	2
	언어와 문학		6
학문의 세계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
창의성 교과목군	(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전기 · 정보공학부)

교양		44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 또는 글쓰기의 기초 중 1과목	3	
	외국어	[1-1][3-1]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1-2] 공학수학 1 [2-1]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 · 2] 선택적 필수 과목(16) - 물리학1 · 2(또는 고급물리학1 · 2), 물리학실험1 · 2를 학기별로 4학점, 총 8학점 - 화학1 · 2, 생물학1 · 2, 화학, 생물학, (통계학), 화학실험1 · 2, 생물학실험1 · 2,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통계학실험) 중에서 학기별로 4학점, 총 8학점	16	• 통계학 및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1-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 5개 영역(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 아래 참조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p>(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p>
창의성 교과목군	<p>(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p>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컴퓨터공학부)

교양		44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외국어	[1-1][3-1]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1-2] 공학수학 1 [2-1] 공학수학 2 [2-2] 통계학, 통계학실험	16	•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 · 2] 선택적 필수 과목(12) - 물리학1 · 2(또는 고급물리학1 · 2), 화학1 · 2, 생물학1 · 2, 물리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실험1 · 2, 화학실험1 · 2, 생물학실험1 · 2,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중에서 [1-1]에 8학점, [1-2]에 4학점	12	• 생명과학부에서 개설하는 '생물학(또는 생물학1)' 과목에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만을 위한 강좌가 별도로 개설되며, 이를 이수할 것을 권장함 •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1-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 5개 영역(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 아래 참조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p>(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p>
창의성 교과목군	<p>(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p>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화학생물공학부)

교양		44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2] 선택적 필수 과목(16) : 기초과학 교과목 4과목(16학점)은 반드시 다음 세 형태 중 하나를 선택 하여 학기 별로 8학점 총 16학점을 이수 (1) 물리학1·2 (또는 고급물리학1·2), 물리학실험1·2, 화학, 화학실험, 생물학, 생물학실험 (2) 화학1·2, 화학실험1·2 물리학, 물리학실험, 생물학, 생물학실험 (3) 생물학1·2, 생물학실험1·2, 화학, 화학실험, 물리학, 물리학실험	16
	컴퓨터와 정보 활용	[1-2]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문화와 예술		
학문의 세계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 및 이전 입학자는 '컴퓨터원리' 이수를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으로 대체 이수 가능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p>(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p>
창의성 교과목군	<p>(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p>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건축학과 공통)

교양		40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 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9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물리학 1(또는 고급물리학 1), 물리학실험 1 (4) [1-1] 통계학, 통계학실험 (4) [1-1,2] 선택적 필수과목 (4) • 물리학 1(또는 고급물리학 1)과 통 계학에서 8학점(실험교과목 포함) 을 반드시 이수하고, 그 외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4학점(실험 교과목 포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고교과정에서 물리 1, 2를 모두 이수하 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 의 기본 1, 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 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언어와 문학		3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3	
학문의 세계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산업공학과)

교양		46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혹은 이수학점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말하기와 토론 [1-2] 글쓰기의 기초 [4-2] 과학과 기술 글쓰기	9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통계학, 통계학실험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6	•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 · 2] 선택적 필수 과목(8) 물리학1 · 2(또는 고급물리학1 · 2), 화학1 · 2, 생물학1 · 2, 물리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실험1 · 2, 화학실험1 · 2, 생물학실험1 · 2,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중에서 학기별로 4학점을 이수함	8	•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1-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 [1-2, 2-1] 5개 영역(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 아래 참조
학문의 세계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먼저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 (2013, 2014학번만 해당)	*[2-2]
창의성 교과목군	(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	*[3-1]

※ 필수과목 및 비고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조선해양공학과)

교양		44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2] 선택적 필수 과목(16) - 물리학1·2(또는 고급물리학1·2), 물리학실험1·2를 학기별로 4학점, 총 8학점 - 화학1·2, 생물학1·2, 화학, 생물학, (통계학), 지구과학, 해양학, 화학실험1·2, 생물학실험1·2,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통계학실험), 지구과학실험, 해양학실험 중에서 학기별로 4학점, 총 8학점	16	• 통계학 및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1-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 5개 영역(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 아래 참조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학문의 세계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먼저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
창의성 교과목군	(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에너지자원공학과)

교양		40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학년 1·2] 선택적 필수 과목(12) 물리학1·2(또는 고급물리학1·2), 화학1·2, 물리학, 화학, 지구시스템과학, 물리학실험1·2, 화학실험 1·2,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지구시스템과학실험 중에서 총 12학점	12	•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1-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언어와 문학		6	
학문의 세계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p>(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p>
창의성 교과목군	<p>(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p>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공과대학(원자핵공학과)

교양		44학점 이상		
영 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 또는 글쓰기의 기초 중 택 1	3	
	외국어	[1-1][3-2] 대학영어1, 대학영어2, 고급영어 중 택 2	4	• 입학 시 TEPS 성적에 따라 영어 교과목 선택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 [2-1] 공학수학 1 [2-2] 공학수학 2	12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선택적 필수 과목(8) 물리학1(또는 고급물리학1), 화학1, 생물학1, 물리학실험1, 화학실험1, 생물학실험1 중에서 총 8학점 [1-2] 선택적 필수 과목(8) 물리학2(또는 고급물리학2), 화학2, 생물학2, (통계학), 물리학 실험2, 화학실험2, 생물학실험2, (통계학실험) 중에서 총 8학점	16	• 통계학 및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1-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문화와 예술		*(3)	• * 아래참조
	역사와 철학		3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3학점 씩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 '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계속)

사회성 교과목군	(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십 3(2013, 2014학번만 해당)
창의성 교과목군	(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0900 창의적 제품개발 1 (전공) M2177,001000 창의적 제품개발 2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계(농경제사회학부)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3)	3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3	
전체 교양 교과목		15-17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학문의 세계 하위 영역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영역 이수는 '자연과 기술' 또는 '생명과 환경'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수하고 〈학문의 기초〉 '수량적 분석과 추론', '과학적 사고와 실험'에서 1과목(3학점) 이수해도 됨.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계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3)	3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2 수학 및 연습 1·2 고급수학 및 연습 1·2	6	
	과학적 사고와 실험 물리학(3) · 물리학실험(1) 화학(3) · 화학실험(1) 생물학(3) · 생물학실험(1) 대기과학(3) · 대기과학실험(1) 지구시스템과학(3) · 지구시스템과 학실험(1)	8	• 물리학, 화학, 생물학, 대기과학, 지구시스템과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대기과학 실험, 지구시스템과학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3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미술대학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12	• 4개 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5-17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사범대학(교육학과 · 윤리교육과 · 국어 · 외국어 · 사회교육계 · 체육교육과)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글쓰기의 기초(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국어교육과 해당없음)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선택 교양		체육계열과목 2학점 필수 이수	2	(※ 체육교육과 해당없음)
전체 교양 교과목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사범대학(수학교육과)

교양	37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3)	3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3) [1-2] 수학 및 연습 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 2(3)	6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 2] 물리학1 · 2(또는 고급 물리학1 · 2), 화학1 · 2, 생물학1 · 2,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중에서 학기별로 1 과목 및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수강	8	• 물리학1 · 2(또는 고급물리학1 · 2), 화학1 · 2, 생물학1 · 2,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물리학실험1 · 2, 화학실험1 · 2, 생물학실험1 · 2,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통계학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 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컴퓨터와 정보 활용	2(3)	• 수학교육과 전공과목 수강에 프로그래밍 기초가 필요하니 이를 다루는 과목의 수강을 권장함
	언어와 문학	3	
	문화와 예술	3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학문의 세계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3	
	선택 교양	2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먼저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에서 2(3)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사범대학(과학교육계)

교양		38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수학 및 연습 1 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 1(3)	3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 2] 수학 및 연습2(또는 고급수학 및 연습2), 물리학1(또는 고급물리학 1), 화학1, 생물학1, 지구과학,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중에서 4과목 및 해당실험과목이 있을 경우 동시수강	14(16)	• 물리학1(또는 고급물리학 1), 화학1, 생물학1, 지구과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물리학실험1, 화학실험1, 생물학실험1, 지구과학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3	
선택 교양		체육계열과목 2학점 필수 이수	2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별도의 절차를 통해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에서 3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은 컴퓨터와 정보 활용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 이수로 인정함.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생활과학대학(소비자아동학부)

교양		42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글쓰기의 기초(3) [2-1] 사회과학 글쓰기(3)	6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8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2] 통계학(3), 통계학실험(1)	4	•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통계학 실험을 해당학기에 동시에 수강해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4-16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교양		40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3) [2-1] 과학과 기술 글쓰기(3) [3-1] 말하기와 토론(3)	9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8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통계학(3), 통계학실험(1) [1-2]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또는 물리학(3)과 물리학실험(1) 중 3 또는 4학점	7(8)	• 화학, 생물학, 통계학, 물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통계학실험, 물리학실험을 해당학기에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화학(3), 화학실험(1) [1-1] 생물학(3), 생물학실험(1)	8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 ‘언어와 문학,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생활과학대학(의류학과)

교양		40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3) [2-1] 사회과학 글쓰기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3) [3-1] 말하기와 토론(3)	9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8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통계학(3), 통계학실험(1) [1-2]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또는 생물학(3)과 생물학실험(1) 중 3 또는 4학점	7(8)	• 화학, 생물학,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통계학실험을 해당학기에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이과 수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1(3) 대신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1(3)을 수강해도 됨.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화학(3), 화학실험(1)	4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4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수의과대학(수의예과)

교양		45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3)	3	
	외국어	영어 1개 교과목 및 외국어 1개 교과목	5	• 입학 시 TEPS 801점 이상의 학생은 “고급영어: 발표”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 2]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혹은 생명과학을 위한 수 학 2(3)	3	•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혹은 2를 선택 함에 있어 수의예과 담당교수와의 상담 을 거쳐 신청해야 함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 2]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2, 생물학 1, 생물학 2 중 2개 교과목 및 해당실험과목	8	•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2, 생 물학 1, 생물학 2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물리학실험 1, 물리학실험 2, 화 학실험 1, 화학실험 2, 생물학실험 1, 생 물학실험2를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물리학 1,2’ 대신 ‘물리의 기 본 1,2’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6	•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영역의 권장과목(*표시)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4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음악대학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12	• 4개 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15-17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의과대학(의예과)

교양		41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말하기와 토론(3)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3)	6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고급수학 및 연습 1, 고급수학 및 연습 2 중 3 학점	3	•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혹은 2를 선택함에 있어 의예과 담당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신청을 해야 하고, 고급수학 및 연습 대상자 중 희망자는 위 교과목 수강 대신 수리과학부의 전공과목 3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 2]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생물학 1, 생물학 2 중 2개 이상 교과목 및 해당실험과목	8	•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생물학 1, 생물학 2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물리학실험 1, 물리학실험 2, 화학실험 1, 화학실험 2, 생물학실험 1, 생물학실험 2를 동시에 수강하여야 하며, 의예과 담당 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신청을 해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12	• 5 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12학점 이상 이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6-8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자유전공학부

교양		36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1]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영역 :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외국어	외국어 3개 교과목 이상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동일 외국어 2개 교과목 이상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수학 및 연습 1, 고급수학 및 연습 1, 수학의 기초와 응용 1 중 1과목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의 기초와 응용 1: 고교과정에서 수2, 적분과 통계 혹은 동등 수준의 교과를 이수한 자는 수강할 수 없음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영역 이상 포함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전체 교양 교과목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치의학대학원 학사 · 전문석사 통합과정(학사과정)

교양		44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점	비 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영역 :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권장: 과학과 기술 글쓰기
	외국어	외국어 2개 교과목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 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개 교과목 선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1 또는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 2
	과학적 사고와 실험	물리학(물리학실험 포함) 화학(화학실험 포함) 생물학(생물학실험 포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학년도 1학기 이전에 기 이수한 물리학 1·2, 화학 1·2(화학실험 1·2 포함), 생물학 1·2(생물학실험 1·2 포함) 교과목은 각각 물리학, 화학(화학실험 포함), 생물학(생물학실험 포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물리학, 화학, 생물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문학/문화와 예술/정치와 경제 영역의 2개 분야 이상에서 6학점 이수
	문화와 예술			
	정치와 경제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선택 교양	선택 교양	체육 2개 교과목 이상 수강, 사회봉사 1(1)	3	
	전체 교양 교과목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 담당 수강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신청해야 함.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 경과조치 : 위 이수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새로운 이수규정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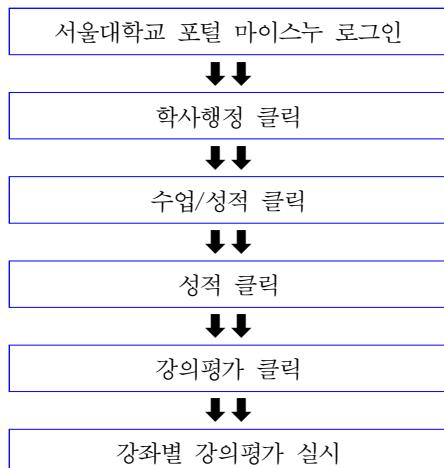
6. 강의평가 : 내가 만드는 멋진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은 학기말에 자신이 수강한 강좌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수강한 소감을 담당교수에게 전함으로써 보다 나은 강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강의평가는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수강한 강좌에 대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면 된다. 모든 강좌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문항은 강의의 전체적인 만족도, 강의 준비와 내용의 충실도, 교육방법의 효과성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객관식 문항과 강의를 수강하면서 좋았던 점, 개선할 점을 묻는 자유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4개 이내의 범위에서 학문분야의 특성에 대해 묻는 선택문항도 추가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이명이 보장되므로 학생들은 솔직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자신이 강의에 대하여 가지게 된 느낌을 해당 보기에서 고르면 된다.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은 해당강의의 담당교수에게 전달되고, 강의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채택되며, 다음 학기의 강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6.1. 작성방법



6.2. 평가문항 예시

강의평가 문항 예시

문항구분	순번	강의평가문항	답1	답2	답3	답4	답5
공통문항 (객관식)	1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강의 준비와 강의 내용이 충실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통문항 (자유응답)	1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적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술				
	2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자유롭게 기술				
선택문항 예시 (객관식)	1	강의계획서가 강좌선택 및 수강에 도움이 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강의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이 강의는 수업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이 강의에 활용된 교재와 보충자료는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시험과 과제, 발표 등은 수업 목표 달성을 도움이 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강의 내용은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강의를 통해 기대했던 부분을 학습할 수 있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성적평가는 안내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강의 시간에 다룬 내용의 분량은 적절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이 강의는 매우 만족스러우므로 주위에 수강을 권고하겠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과제나 시험에 대한 담당 강의자의 피드백은 도움이 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강의자는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강의자는 학생들이 강의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강의자는 결장 없이 충실히 진행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강의평가 문항 예시

문항구분	순번	강의평가문항	답1	답2	답3	답4	답5
	15	강의자는 모든 학생을 공평하고 편견 없이 대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이 강의를 통해 내 역량이 향상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외국어 강의 경우] 강의가 실제 외국어로 이루어졌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융합형 과목 경우] 강의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강의가 강의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교과목의 교육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강의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시행된 평가방법(시험)은 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교수는 중간시험 또는 과제물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 해주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새내기에게 주는 글 :

1950년대~2000년대 살펴보기

• 1950년대

생활은 ‘스케줄’ 밑에서 시행,
시야를 세계에 두고
야망에 불타라!



윤태림 교수 (사범대)

(대학신문 1959년 4월 6일자)

자유와 생활을 찾아 월남한 후 남편을 잃고서 단돈 백원을 벌기 위해 비지 팔러 나간 사이에 어린 두 생명을 불의의 화재로 잃어버린 가엾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하루밤 사이에 육천만원인가의 공금을 놀음에 떼운 정부관리기업체의 경리과장이 있고 세관서 압수한 물건을 공매하는데 정부 요인을 끼고 단 몇 십분 동안에 일억 몇천만원을 삼킨 정치가가 계신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요. 백만원은 이백만원씩 운동기부금을 드려 뒷문으로 들어가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입학은 되었으나 원수의 등록금이 앞길을 막아 흐린 봄날의 날씨와도 같이 우울하기 짹이 없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우리 학원의 모습이다.

이러한 구렁이 속에 입학의 감격이 있을 리 없고, 별로 이렇다 할 감상도 없다는 것이 교문을 나온 사람이나 새 포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는 감회일터인데 한국의 대학같이 장학금 적은 곳도 드물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부하는 독지가도 매우 적은 것을 보면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인 듯도 싶다. 훌륭한 천품과 능력 노력만 가지면 돈 걱정안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외국이 한국에 태어난 여러분으로서는 한없이 그리울 것이다.

앞으로 사년 내지 육년의 대학생활을 함께 있어 제군은 각자의 플렌이 있을 것이고 서울 대학생다운 궁지와 포부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나, 하도 도리의 감각이 없는

마당이니 행여나 비켜나갈까 염려되어 한마디 하여둔다.

옛날에 중국 어느 얼빠진 친구가 이사를 가는데 가장십물을 구르마에 싣고 가다가 생각을 하니 자기 아내를 빼놓고 온 생각이 나서 다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때 어떤 제자가 공자님께 세상에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놈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공자님 말씀이 「세상에는 제 계집커녕 자기 자신까지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그까지 여편네쯤 잊어버린 것이 무슨 큰 허물될 것 있나 글 주같은 임금은 백성을 잘 살도록 다스려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배치되는 모든 포악한 짓만 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 사람들이야 말로 요새말로 셀프 컨트가 없는 사람이고 셀프리알리제이션을 못한 사람아야」고 하셨다 한다.

전차에나 버스 문에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노유부녀자가 있건 말건 태연자약하게 앉아 계신 순경 아저씨 무고한 어린이를 치여죽이는 교통 취체의 백차 물건팔아 먹기에 바쁜 졸병 치부하기에 바쁜 장교님 공무원도 특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전해지는 선거 책임자 이런 것 저런 것이 신문에 나타나고 귀에 들려오니 대학에 들어온 여러분이라고 정신이상자가 아닌 정상인들인가 한번 의심하여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주어야 하겠다. 대학이라는 곳은 교육법 대학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학문하는 곳 즉 공부해야하는 곳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학문은 어디까지나 장차 이루어질 발전을 위한 토대 초석이 될 학문인 동시에 하루 이틀의 수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과 장구한 노력을 요구하는 이론과 실제와 사실과 비판을 연구하는 곳이다.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서울대학은 특히 여러분의 근면과 인내 재능과 지혜를 기대하는 바 큰 것이 있으니 4년 동안 그저 적당히 다방으로 극장으로 당구장으로 빙빙 돌아다닐 터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 놀고 도 학사 중 주는 어느 사립대학으로 가는 것이 상책일 것이요,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지내보자는 생각이라면 등록금 대어준 부형이나 모자가 올 것이다.

지도적 인물이 되기 위하여서도 책을 읽어야 한다. 사서삼경 문교부 제정의 윤리강령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동서고금의 명작인 연애소설이나 시 희곡을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요 명화를 보고 명곡을 듣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방후 우리 학제는 미국을 모방하여 중·고 각 삼년, 대학 사년이라고 하지만 현고등학교 졸업생이란 옛날 중학생보다 별로 다른 것이 없고 대학사년이라지만 옛날 고등학교나 대학예과만도 못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수련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공분야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비하여 현재의 의예과 이년제를 마친 사람들이 대체로 때를 벗고 대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제군은 적어도 대학 일·이년동안 전공과목에 힘쓰는 것보다는 안목을 조그마한 한국에만 한정하지 말고 넓은 세계를 상대로 하여 「타임」, 「뉴스·스워크」, 「뉴욕타임스」 일어판이고 야망을 높이 두고 올바른 인간성을 기르는데 힘쓰는 일면 어학에 주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는 국문학 국사학 한국동물 체육을 전공하니 외국어는 소용없다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할 것이니 외국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이 이십이 지나면 어학의 습득력은 후퇴하고 배움에는 시기가 있는 것이니 적어도 어학 한가지만은 마스터-하도록 연마하여야 할 것이다.

민권의 책을 읽고도 그것을 다 신용하면 처음부터 안 읽는 이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독서에는 사색이 따라야 할 것이오 평생에 한 번쯤은 학로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혼자만이 느끼고 깨닫는 경지에의 심잠이 있어야 할 것이오 「쌀트르」, 「킬케골」이 아니라도 인간은 최후의 경지에 가서는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니 이러한 심연을 거르고 걸치어나온 삶의 의욕이야말로 참다운 인생의 보람과 자각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현재 웃을 때 웃을 줄 모르는 울어야할 때 울줄 모르는 지나치게 약하고 각박하고 어수룩하지 못하고 순진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 싸우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이를 위하여는 어제께의 원수가 오늘날 서로 손을 마주잡는 물기없고 거칠고 거친 문자그대로의 풍진 속에 살고 있다. 꽃을 가꾸고 새를 만지고 나무와 별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 이웃과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종교적인 것 문학·음악·미술이건 혹은 사회활동에 관한 것 이건 어떤 과외활동에 참가하여 얻는 지식과 경험은 서비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오. 친구와 불행한 사람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량과 관용과 인내와 정직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덕인지 좀 더 깨달아야겠고 돈이나 권세에 굽히거나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아무와 비굴함과 배반이 있다면 대학 나온 가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오늘날의 세태가 이대로 계속 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그것은 멸망을 가져올 것 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들의 선조부형들의 죄과도 크지만 현재 우리는 과거를 질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오.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 버리고 새살림 새날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병이 들고도 병든 줄 모르는 악에 전염된 삼십대 이상의 세대에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과 같은 십대 이십대에게 기대와 장래를 두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다.

끝으로 주의 한 가지, 공부하는 이들의 큰 잘못의 하나는 자기 건강에 무관심한 것이다. 먹는 것과 잠자는 것 적당한 휴식과 운동 이것은 평소의 부단의 노력과 주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오. 지나친 음주와 방종은 불규칙 생활과 더불어 폐환 기타의 질병을 가져오기 쉬운 것이니 독일의 대학생활을 상징하는 「트링켄·라-벤운트슈투디-펜」도 맥주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 트링켄으로 대치할 수도 없는 것이오.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까지 일정한 스케줄 밑에서 실행한다면 그 수확은 의외로 클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여둔다.

• 1960년대

후레쉬맨은 두뇌 내면의 재조정으로부터 출발해야



김기두 교수 (법학)
(대학신문 1964년 3월 2일자)

후레쉬맨이란 대학신입생을 의미하는 외래어인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외국어로 대학초년생을 표현하여야 하는지 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즉 이것도 또 하나의 사대주의의 단편이 아닌가라고 - 그러나 그렇게까지 신경질로 생각할 것도 아니다. 대학제도 자체가 서구문화의 요람에서 커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의 그림자가 아직도 곳곳에 깃들여 있어 자연히 이름도 그대로 부르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이 많다.

특히 「후레쉬맨」이란 말은 대학신입생이란 우리말보다 더 싱싱하고 깨끗한 학생, 희망포부에 가득 차 울렁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아름다운 청춘의 대명사와도 같은 어감을 주기 때문이다. 「후레쉬맨」 어머니의 젖꼭지부터 길러온 모든 능력과 지성과 젊음을 가득 실고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서 서있는 청춘의 「엘리뜨」 부모 형제와 거래의 많은 기대와 격려의 환승 속에서 민족문화의 바톤을 쥐고 출발 직전에 있는 믿음직한 모습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데로 향하여 달릴 것인지 -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그들이 달리는 방향은 바로 민족의 운명선과 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까지는 부모나 선생의 손을 잡고 그대로 따라왔던 사람들이다. 모든 방향과 전망도 모르고 그저 착실하게 부모와 스승의 뒤를 따라서 입학시험 준비에만 몰두하여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부터 그러한 부모와 스승의 손에서 해방되어 자기가 자기의 행로뿐만 아니라 민족의 행로까지도 결정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도 생각하고 앞을 내다볼 줄을 알아야 한다. 종전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여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의 머릿속 가득차 있는 외국어나 수학공식은 변두리로 물러나고 인생과 민족과 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인류의 문제가 그 머릿속의 중심부에 있다.’ 외국어나 수학공식은 이 중심부의 시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뇌내면의 재조정이 급선무다.

이 정비가 안되면 대학생활이란 이루어질 수 없고 다시 말하면 후레쉬맨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두뇌 내면의 정비가 된 사람은 그들의 일거일동이 달라진다. 눈은 높은 창공을 바라보는 듯 밝고 태도는 의젓하여지는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서 아롱거리는 현상의 꾸밈과 거짓은 무색하게 되고 그들의 밝은 눈은 언제나 현상 저쪽에 있는 본질만을 뜯어본다. 그들의 밝은 눈빛은 강자를 굴복시키고 약자에 힘을 주는 것이다. 대학이란 세속적인 출세를 바라는 직업훈련소도 아니다. 대학이란 민족과 국가의 등불이다. 언제나 민족과 국가의 앞길을 밝혀서 그가 위험과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지고 있는 것이니 이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다. 후레쉬맨이란 바로 이 민족의 등불을 태우는 기름들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민족의 위기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등불인 대학은 더욱 불심지를 돋구어 촉광을 올려서 일층 밝게 앞길을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후레쉬맨은 더욱 희생적 노력만이 요청되고 있다. 물론 후레쉬맨이란 어감 속에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만이 아니고 청춘의 엘리-뜨를 자부하여 모든 약속과 암박을 떠나 자유분방하게 청춘을 구가하는 유쾌하고 통쾌한 생활이 아로삭여져 있다. 그렇다. 이러한 자유로운 짊음의 환희! 이것도 하나의 인격이 자주적으로 상처 없이 성장하여 가는데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후레쉬맨은 모든 과거의 주름잡힌 구김살을 쭉 펴고 자기 그대로의 인격을 노출시켜서 그 그릇됨과 올바름을 판단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다. 즉 원만하고 활달한 인격 형성의 길을 통과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 말한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김살을 펼 정도로 충분하다. 그것을 잘못 인식하여 또는 과거 안정된 외국의 대학의 후레쉬맨의 모방만을 쫓아서 무조건 청춘을 「엔조이」하는 것이 「후레쉬맨」의 생리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이 인격형성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짊은이들이 있다. 그것은 중대한 시대착오다. 과거의 유럽의 대학생들은 그 놓여있는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위치가 오늘의 우리 대학생들의 그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즉 그들은 안정된 번영일로의 국가민족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평화로운 옛날의 환상을 쫓는다는 것도 대학생 답지 않은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후레쉬맨」은 과거의 구김살을 펼 정도의 자유로운 청춘의 찬가로 그치고 민족의 등불이라는. 심각한 책임 완수의 길을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정상적인 의미있는 「후레쉬맨」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한 한줌의 흙의 사명을 느끼고-.

이러한 방향과 운명지워진 후레쉬맨의 런닝코-스를 자각한 출발의 자세에 대하여 좀 더 신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솔직하라! 우리 겨레는 오랜 봉근과 식민의 후진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장벽이 만어서 서로 솔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솔직하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계급 같은 연령 간에서만 솔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솔직하지 않다는 것은 민주문화의 발전에는 치명적인 암이다. 민주문화는 인류전체의 문화이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면 인간자체를 알 수 없으니 상호이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학생활에 있어서는 솔직하여 손해 볼 것도 없는 보장된 분위기이니 서로 솔직하며 상호이해를 깊이 가져 우리의 솔직치 못하였던 악습을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민주주의의 바탕을 대학에서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정직하여야 한다. 정직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사회에 공통된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내건 것은 이 정직이라는 덕목이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 같기 때문이다. 즉 정직한 자는 손해만 보는 사회였기 때문에 정직하라는 말은 손해보다는 말과 같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늘날의 사람의 사람에 대한 불신은 모든 악순환의 요인이 되어 사회 생활을 불안과 긴장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오늘의 민족의 등불들은 손해를 각오하고 정직하여져서 이 나라 겨레들의 정화운동의 앞장에 서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학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직이란 대학의 생리이다. 정직을 넘어서 우직이란 말이 있다. 대학생은 우직할 정도가 좋다. 진리에는 속임수나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는다. 이 정직은 「후례쉬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셋째로는 근면하여야 한다. 우리는 봉건의 악습에 젖어서 근면을 일부노예나 상놈에게만 강요하고 지배계급은 나태를 자랑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민족경제는 노동력을 총 동원할 뿐 아니고 외국의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근면하게 노력하여야 오늘의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세계적 위치를 살펴야 우리의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육체노동자는 물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율적인 근면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등불인 후례쉬·맨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제1선에 서서 우리의 나태라는 악습타파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근면이라는 점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면 생리화되어 일을 안 하면 불유쾌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단순한 세 가지 질문을 앞에 내세우고 인격 형성의 넓은 대로를 거침없이 걸어가주기를 「후례쉬맨」에 부탁하면서.

• 1970년대

대학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한완상 교수 (사회대 · 사회학)

(1975년 3월 17일 대학신문)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 앞에서 상처 투성이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내외의 악조건 속에서 대학이 창조적인 공동체의 구실을 하지 못한지 이미 오래다. 대학공동체는 실의와 빈사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 기력은 쇠잔해졌고 그 창조력은 녹이 쓸고 있다. 대학공동체의 주역인 교수와 학생들은 각기 자기의 본래적 사명과 역할로부터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인간관계는 최악의 불신 속에 시들어 가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웠으며 가르치는 기회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배움을 포기한 듯 연중 행사처럼 시위와 항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게다가 교수 학생 사이에는 일종의 불신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학생들은 교수가 비겁한 지식인이라고 비판한다.

주지하는대로 대학은 독특한 성격을 지닌 공동체이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목적으로 존중되는 훈훈한 일차집단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게마인 샤프트」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활동과 업적의 합리적 평가를 존중하는 「게젤샤프트」이기도 하다.

사제지간의 관계는 아무리 고도로 산업화된 환경에서라 하더라도 일차집단적인 인간적 관계라야 한다. 불신과 얄팍한 계산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과연 인격과 신뢰에 찬 관계인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그 관계는 점차 기능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불신의 관계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훈훈한 일차집단적 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게마인 샤프트」의 따뜻한 성격은 소실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는 공동체의 합리적인 성격이 부각되어야 한다. 실력과 업적이 향상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교수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본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합리적인 축도 무너져 버린 것 같다. 건전한 「게젤샤프트」적 성격도 퇴색되고 있다.

대학이란 원래 이같이 상이한 두 축 간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발전하는 독특한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축이 무너지면서 대학 공동체는 빈사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은 관악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대학의 본래적 공동체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신입생에게는 대학공동체형성이라는 막중한 과제와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러한 도전을 창조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신입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수년간 어둡고 괴로운 입시지옥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로 등장한 신입생을 나는 환영하기 보다 동정하고 싶은 생각이 앞섬을 고백한다. 그들은 입학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이미 치루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들 자신이 상처투성이의 승자이다. 재수생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상처는 수만의 경쟁자들을 실의와 좌절과 분노 속으로 침잠시켜 놓고 얹어진 것이므로 다분히 가학적 잔인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이토록 급박한 한국적 경쟁상황의 일단을 증언해 준다.

둘째로 오늘날의 신입생들은 인간교육의 참뜻을 제대로 모르는 채 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영악하게 배워온 세대에 속한다. 남을 악착같이 이기는 기술을 터득했을는지 모르나 남과 더불어 살면서 다함께 이기는 공동체적 규범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실제로는 대학입시를 겨냥하는 것이므로 지(知), 정(情), 의(意)의 균형적 성장을 중시하는 전인격교육이란 허구에 불과하다. 더불어 잘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창조적 공동체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우수하나 집단적으로는 허약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다. 외로운 이리같이.

셋째로 어둡고 괴로운 입시준비기간을 벗어나 잠시 동안은 승자가 갖는 감미로운 승리감과 부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가 어두웠기에 대학생들이 된 현재는 밝고 과거가 괴로웠고 눌리었기에 현재는 해방의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쉬 번민과 방황을 동반할 것이다. 즉 심각한 정체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기를 괴롭힐 것이다.

한국교육은 일관성이 없다. 초등학교는 비교적 자유분방하다. 장발을 허용한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까까중이 되는 변신의 충격을 받게 된다. 그 후 고3이 될 때까지 계속 편제화된 교육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또 한 번, 이번에는 보다 심각한 변신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사전에 준비 없이, 너무나 준비 없이 새로운 상황에 내동댕이쳐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장발은 부활된다. 그토록 많은 금기와 금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기 앞에는 많은 선택의 자

유가 도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도전을 책임 있게 관리할 능력을 키워 본 적이 별로 없다. 확대된 자유량을 자율할 수 있는 힘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다. 자유가 자율되지 않는 곳엔 방종이 뒤따르고 자유 없는 곳에 자율을 배울 수도 없는 것이다. 자유도 없고 자율도 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오로지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아온 신입생들이 선택환경이 갑자기 확대된 대학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가누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바로 정체위기의식이다. 고등학교까지는 자기정체가 위로부터 하사된 셈이다. 부모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사한 정체를 지니고 있으면 하면 무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의 환경 속에서 하사된 정체는 깨어지기 쉽다. 그렇다고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정체의 모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형성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만약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할 때는 그곳에 뚜렷한 대학문화가 있어 분명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행동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당장 묻지 않는 일종의 특권(moratorium)을 허용한다. 이 경우 정체위기의식은 실의와 좌절의 원천이 아니라 창조와 발전의 계기가 된다. 대학이 안으로는 튼튼한 공동체가 될 때 밖으로는 성소의 구실을 하게 된다. 온갖 부당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기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자율과 교권의 확립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오늘 한국대학의 자율성이 이토록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대학이 창조적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한국대학이 대학인에 의한 대학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언하려 한다. 특히 지난 사반세기동안 엉성한 연립대학체제에서 탈피하여 관악산기슭에서 새로운 종합대학으로 새 역사를 엮어 가야할 서울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적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의 회복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은 각자의 본래적 역할로부터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교수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학생은 배우는 일에 보다 성실해야 한다. 이같이 너무나 당연한 자기역할에의 복귀가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의 한국대학현실이 이 복귀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중행사처럼 벌어지는 시위와 반항이 학원의 정상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극적 현실은 학원외적 부조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외침이나 요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동방식이 파울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구호나 요구가 전적으로 부당하고 불순하다고 정죄할 교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지난 십년간 학생계층만이 올바른 발언과 행동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사정은 급격히 달라졌지만, 민주화(자유신장), 사회정의(평등신장) 및 부당한 외세배척(민족주체성확립)을 외롭게 외쳐온 계층은 주로 대학생이었다. 우리 사회에선 불행이도 이들의 절규와 요구를 대변해줄 기성세대가 거의 부재한 형

편이었다. 건전한 민주적 압력집단이 부재한 형편이다. 그들의 정당한 외침을 대신 외쳐줄 기성세대를 갖지 못한 한국 대학생들은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생만이 공개적인 비판세력으로 활약하는 사회 상황은 여러모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첫째 침묵을 지키는 기성세대가 부패했던지 아니면 지극히 비겁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의 대학생은 비록 용감한 역사의 전위라 하더라도 졸업 후 이들도 나약하고 비겁한 기성세대로 흡수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오로지 대학생들만이 의로운 비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이들만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히 대학의 한국적 비극인 것이다.

이같은 비극이 지속되는 한,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신뢰와 인격의 찬 관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무관심과 무시와 모멸에 찬 불신관계가 되기 쉽다. 여기에 창조적 대학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가르치는 일에 학생은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자기역할로부터 소외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기성세대로서 교수가 역사의 전위에 서서 지식인의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일에 전심하게 하기위해서도 우리교수가 앞서서 모범적으로 비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불신으로 금이 간 사제지간의 관계는 온전해질 길이 트일 것이며 그 관계는 신뢰와 인격에 찬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에게는 원래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명이외에 민족과 국가에 봉사하는 사명이 있다. 지성인으로서 교수가 국가민족에 봉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노정·비판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식인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에 주목할 때 이제 교수가 민주화 사회주의 및 민족주체성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할 때에만 학생들은 교수의 권고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학생은 자기 본래의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전념케 함으로써 대학공동체 형성에 큰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교수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민주적 압력집단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수는 자기 양심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역사의 꿈무니에 서서 비겁하게 사태를 관망해온 교수들은 자기 역할에로 복귀함으로써 역사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수는 자기의 자아실현을 이룩할 뿐 아니라, 사제지간의 전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창조적 대학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교수가 학생의 올바른 외침과 요구를 대변해 주어야 한다. 이 길만이 대학의 소요를 막을 수 있고 빈사상태에 있는 대학의 동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 교수들이 맘내기지 않는 일에 귀중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해 왔다. 학생들의 시위가 터지면 천편일률의 허약한 논리로써 그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마음 깊숙이 그들과 동조

하면서도 선생이기 때문에 이들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려 하였다. 이젠 이 같은 소극적 자세 아니 자기 기만적 자세를 박차고 나와 우리 스스로 멋떳한 자세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고 연구와 교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권과 교권의 신장을 위해서 사회정의 민주화 및 민족주체성의 고양을 위해서 교수들은 용기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 길만이 자기 자신을 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대학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문제의식이 강한 학생들이 그토록 슬퍼하는 서민대중으로부터의 사회적 유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그들은 과거 학생운동이 노동자 농민과 같은 서민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던 것을 반성하고 자탄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상황판단이다. 허나 사회적으로 볼 때 더욱 비극적인 것은 기성세대의 사회운동이 이들 대중 서민을 무시해 온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비극적이다. 오늘의 대학생이 기성인이 될 때 이점을 계속 반성하고 자탄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학생들이 더욱 슬퍼해야 할 유리가 있다. 이것은 대학사회 내에서 학생들이 교수와 공부로부터의 유리요, 소외이다.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과 밀착하여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졸업 후 얼마든지 있다. 아마도 졸업 후에야 본격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학 시 교수와 연구 및 공부로부터 유리되면 졸업 후 이 유리에서 오는 지적 및 인간적 실조를 회복하기 어렵다. 아니 졸업 후 서민대중을 위해 더욱 알차게 행동하기 위해서도 재학시절에는 도서관과 교수에 밀착하여 지식을 넓히고 깊게 하면서 폭넓은 인격 연마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학생운동은 기성인의 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주요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대학인은 다 같이 자기 역할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면서 새롭고 비판적인 대학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자. 새 푸대에 새 술을 붓는 긍지를 지니면서 이 웅장한 관악기술에서 내실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 1980년대

신입생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재룡 교수 (인문대 · 철학)

(1985년 3월 2일 대학신문)

불꽃처럼 솟구친 관악을 바라보며 서울대학교를 찾는 분들을 맞이하는 첫 상징적 구조물은 〈국립〉의 기역(ㄱ)과 〈서울〉의 시옷(ㅅ), 그리고 〈대학교〉의 디귿(ㄷ)을 영성하게 짜맞춘 철제대문의 어설픈 모습입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 푸른 젖음을 불사르며, 오직 참되고 바른 진리를 찾아, 현실을 바로 보고 과거를 이해하며 미래를 창조할 새 사람들을 맞이하는 대학교의 큰 문으로서는 별로 걸맞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안과 사회라는 밖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경계 짓는 양하여, 더군다나 상아탑이니 등용문이니 마치 사회와 단절된 학문고유의 영역이 존재하는 양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이 됩니다.

저자거리에 바싹 나앉아 있는 서구의 대학과 그 물리적 위치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뭇 다릅니다. 서울대학교의 상징나무는 느티나무요, 상징동물은 학이라고 합니다. 성냥갑처럼 볼품없는 건물에 상징이라도 자연에서 구해 오자는 안간힘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학은 일천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접목한지 얼마되지 않은 서구적 학문 · 연구 · 사회봉사를 위한 세속적 기관입니다.

아무리 관악산 밑에 옹승그리고 앉아 있는 물리적 구조물로 옛날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인 자연과의 일치 · 조화를 강조한다고 억지를 써보았자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들은 이제 치우치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현실감각을 배우러 이 큰 배움의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배움은 다시 일천한 한국역사와 마찬가지로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일삼는 교육정책 - 서울시내의 육교처럼 세웠다 옮겼다 부수었다를 일삼는-의 탓일런가,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고 셋다판처럼 배짱놀음에 놀아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틀에 짜인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짜증을 내셨던 분들은 또 다시 〈서울대학교〉라는 이름과, 무슨 · 무슨 〈대학〉내지 무슨 무슨 〈학과〉 그리고 그것들에 덩달아 붙어다니는 출세 · 성공 취업률 따위로 현혹되지 않고 진짜 참다운 공부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혼자서 그리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들이 물밀 듯이 들어온 1985년의 봄 대학가는 이제 4년을 넘겨 유명무실

해진 졸업정원제 1세대가 한 싸이클을 다하고 썰물처럼 물리난 마당입니다. 그러나 이 마당은 텅 비어 있는 공터가 아닙니다. 무한의 가능성과 창의성이 일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에 맞추어 여러분 나름의 새로운 춤을 이 너른 바다 위에 마음껏 펼쳐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과 장래의 직업에 매달리지 말고 삶의 진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굿거리장단처럼 과거의 악령에 놀아나다가 산 현실을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전통의 짐에 얹눌려 조상의 족보나 팔아먹는 어리석은 새사람이 되지 맙시다. 어떤 이는 죄신예 장난감에 눈이 팔려 코앞의 현실을 스쳐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허황된 꿈으로 부박·퇴폐를 첨단으로 잘못 아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피붙이·땅붙이·학교붙이 등등 안으로 똘똘뭉쳐 너른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의 가위눌림을 당하는 새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야말로 사회화과정의 마지막 훈련기회인 줄로 아시고 너른 아량과 높은 안목을 키우는 마당으로 여기어 이를 적극 활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연고없는 국제주의나 보편주의 내지 세계 시민이란 알량한 허위의식으로 눈 앞의 내 조국, 우리나라, 내 살림, 우리 현실을 백안시하고 초월적 이상 속에 이슬먹는 타인의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총칼로 먹히지 않습니다. 고등술책의 생존전장에서 이기자면 몰가치적과학기술과 몰선호적 평등주의의 탈을 벗기고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새로 건설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학은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곳입니다. 현실은 과거나 미래, 안과 밖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네 측면을 조망할 수 있는 너른 바다입니다. 새사람-참새떼-장년-노년의 네 단계를 지내면서 처음 탔던 배를 깨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에 맞을 내릴 때까지 천지신명의 가호가 있기를.

• 1990년대

들뜬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박완서 (소설가)
(1990년 3월 5일 대학신문)

서울대생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았을까, 또 남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을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드린 공은 얼마나 남달랐을까 슬며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흐뭇해 하셨을테고, 남들은 별을 딴 것처럼 부러워했을테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행가래를 당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봉 떠서 중심이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봉 떴을 때가 있으면 땅을 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높이 높이 뛰운 건 남의 힘이지만 땅을 딛는 건 제 힘이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남의 힘에 맡겼다간 떨어지고 말지 결코 땅을 딛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대생이 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지나가다 스치는 남이라도 “저 사람이 올해 서울대에 붙었대”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서 한번 볼 걸 몇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하와 박수는 구경꾼의 몫이지만, 실은 해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라는 걸, 대단한 일을 해낸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주길 바라는 터무니없이 과중한 침이 지워졌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구상이 아니라 가정에서 누리던 왕자님 공주님의 허상을 벗는 일부터 일지도 모르겠군요. 제 밥그릇 제가 씻고, 제 양말 제가 빨고, 제 방 제가 정돈하고, 라면이나 김치볶음밥쯤은 제 식성에 맞게 제가 만들 수 있는 시시한 일부터 말입니다(이건 결코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따로 겨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 2000년대

내가 대학생활을 다시 한다면



오세정 교수 (물리 · 천문학부)
(서울대 홍보부 자료)

영어에 hindsight라는 단어가 있다. 어떤 영한사전은 “때늦은 지혜”라고 재치있게 풀이하여 놓기도 했는데, 아마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성과 해석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지(叡智)인 foresight는 비범한 선각자만이 발휘할 수 있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hindsight는 나 같은 범인(凡人)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는지 알아낸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별 소용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하지만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앞서 간 선배의 hindsight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을 졸업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사회 경험을 통해 얻은 “때늦은 지혜”를 발휘해서 나의 대학생활을 돌아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대학생활에 대하여 몇 가지 후회가 있다.

첫째는 공부를 너무 좁게 하였다는 점이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물리학이 자연과학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인접학문을 은근히 깔보는 생각이 있었다. 게다가 꾀 보기를 싫어하는 나에게는 중·고등학교 때의 해부 실험만으로도 생물학을 멀리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물학이 자연과학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물리학에서도 biophysics가 가장 잘 나가는 첨단 분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나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감히 그 분야로 뛰어들기를 겁내고 있다. 이제 와서 대학교 때 생물학도 잘 공부해 둘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

둘째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과목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생 시절에는 내 전공인 물리학하기도 바쁜데 무슨 교양과목, 인문사회과학이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점점 필요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충이나 병역특례 확대 등을 논의 할 때에도 결국 인문사회를 전공한 공무원들과 언론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미리 키웠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셋째로는 친구들을 좀 더 폭넓게 사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network 사회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network가 중요하고, 이러한 network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각 분야의 미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공부하는 대학이다. 심지어 미국의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Robert Reich 같은 저술가는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얻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부유한 노예”, 2001, 김영사). 특히 서울대에는 전국의 인재들이 모이므로 이러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한번 미쳐보는 것이다. 그것이 연애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축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학생운동이거나 공부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생활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진정으로 말하고 싶다. 세상을 크게 바꾸는 사람은 결국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

개구리 주저앉은 것은 멀리 뛰려는 뜻 : 내일의 정상, 오늘의 과제



구 인 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밝은 햇살이 창가에 비친다

나의 첫 강의! 그것은 가슴 벅찬 일이요, 청춘의 열기가 넘쳐 거침없이 앞으로 내딛은 첫길의 첫발이었다. 그때처럼 긴장과 의욕, 내일의 향해 설화같이 아롱진 꿈이 서린 때도 드물다. 첫사랑의 포옹이나 입맞춤이 그렇게 설레고, 정상을 향해 내딛는 산행의 발길이 그렇게 경쾌할 수 없으며, 여명에 비치는 햇살이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올 수 없다. 그것은 바윗돌에 부딪치는 파도의 포효같이 힘차고, 단풍 진 보라매 등산같이 가슴 부풀게 하며, 맥주잔 드높이 드는 젊은이의 열기같이 자신에 넘치는 일이다. 거기에는 옆길로 새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다른데 한눈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외길이 있을 뿐이다.

그 길에 들어선 지 40년, 세월 속에 묻힌 하고많은 매듭과 사연들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날의 설렘이 앞선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학문과 사회의 일선에 나가는 젊은이의 투철한 의식과 산이라도 뚫을 기백으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출발한 날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발랄하고 활기찬 학계의 서성임과 대학에서 연구열에 불타거나 사회일선에 거보(巨步)를 내딛는 젊은이들을 보며, 열악했던 옛날에 비해 너무도 좋은 시설이나 환경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가는 길의 디딤돌을 생각해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밝은 햇살이 창가에 비친다. 동산의 나목(裸木)이 곱게 펼고 있는데 까치가 두 마리가 짖어 댄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설화를 곱게 피운 함박눈이 잠시 오고는 구름이 뒤덮다가 간혹 햇빛이 비치는 음울한 날씨에 우울한 겨울, 모처럼 밝은 햇살에 기분이 맑아진다. 헌데 전화 앞에서는 마음이 무겁다.

“또 늦고야 말았네요. 마감은 알고 있지요. 한 주일을 더 연기해 주어야겠어요. 죄송해요. 뭐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청탁받은 원고도 마감을 지키지 못하

고 연기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원고는 마감 날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시간도 많을 사람이 마감 하나 지키지 못하고 썰썰매느냐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여보세요, 구 교수님이시지요, 오늘 11시에 특강이 있는 것 아시지요. 늦지 않게 나오셔야 해요.”

독서능력개발원의 전화다. 독서 교사와 독서 교육에 관심 있는 주부를 위한 특강이다. 50분씩 두 번, 100분 동안 인생과 독서와 학생들의 독서는 물론 평생 교육으로서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강이다. 너무 이론적이어서는 안 되고 평이하게 하면서도 사례를 많이 들어 재미있게 해야한다. 대학의 강의와는 또 다르다. 준비한 노트를 다시 점검하면서 나갈 채비를 한다.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간다. 아침에 특강이 있고, 낮에는 시상식, 저녁에는 논문 심사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 대단한 일도 아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어느 새달력을 넘기게 된다.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느냐는 말을 들으면 실상 하는 일도 없이 나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어떻게 나날을 보내기에 연락이 안 될 정도로 바빠 다니며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세월이 빠르다고만 탓하는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뒷전에 놓아두고 이리저리 얹힌 사람들 관계에서 빚어지는 행사나 만남을 쫓아다니다 보면 세월은 쏟 화살같이 달려간다. 학계나 문단 관계, 그리고 개인들의 일이 얹혀 오늘도 시간을 재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이기는 하다. 가만히 생각하면 살아온 세월이란 게 이렇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쌓여 그 격동의 세상을 거쳐 온 것이니,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면서도 아쉬움이 뒤따른다.

“이것도 가지고 가야지요. 저녁에는 언제 끝나고요?”

몇십 년을 두고 되풀이 되어 온 말에 급히 나가던 발을 멈춘다. 사실 아침 출근길은 초(秒)를 다투리만치 바쁜 시간이다. 출근 시간까지 대야하는 압박감에 쫓겨 제대로 다 준비해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간밤에 친구나 제자들과 한잔이라도 하고 늦게 들어온 날에는 더 봄단장을 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대강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아내의 보조가 필요하다.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거니와, 서두르는 조급증을 멈추어 정상으로 움직이게 해준다.

“아마 늦을 거요. 저녁때에는 논문 심사가 있거든요”

되는 대로 현관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그대로 놓아주지를 않는다.

“어느 대학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보내기가 아까운 사람같이 챙겨 듣다. 대충 그렇게 알고 기다리지 말라는 뜻인데 여자란 그걸로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다. 무엇이든 확실하게 다짐하지 않으면 남성들이 흔히 하는 대로 한잔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龠을 토하다가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기다리면서 일생을 살아왔다는 여인들의 말이고 보면 역시 확실하게 잡아 두는 것이 상책일지도 모른다.

저녁때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주말에도 같이 야외 나들이를 하는 서양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퇴근 뒤에 곧바로 집에 가는 법 없이 친구나 끼리끼리 모여 소주나 맥주 한잔을 하고, 거나해서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다가 아침 일찍 나가니, 어디 아내나 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러시아 사람처럼 될 수 있겠는가. 저녁이면 인적이 드물어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카페 하나도 없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은 도시마다 불야성을 이루어 취향과 낭만이 넘실대니 얼마나 생기가 넘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 도를 넘어 흥청거리니 그게 또 문제이기는 하다.

사실 산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더구나 어제가 아니고 오늘에 산다는 것은 더욱 즐거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관계를 이루어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하지만 이 복도니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거기에 즐거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 그야 사람에 따라 각기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이루고 싶은 내일도 다르게 마련이다. 갑의 행복이 반드시 을의 행복이 아니고, 을의 행복이 반드시 병의 행복이 아니듯이, 살아가는 지향이 다르고 이루고 싶은 그날의 기상도도 다를 수 있다. 소원을 묻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정복하고 나서 나는 왜 저 달을 정복하지 못하는가 하고 탄식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는 불타오르는 정복욕을 충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지상에는 내 양심이 있다”고 말한 칸트에게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부농으로서 귀족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출가하여 방황하다가 아스타포보 역장의 관사에서 딸 알렉산드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 저 저 세상에서……”라고 말하고 영면(永眠)한 톨스토이에게는 만민 평등과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중요했다. 과연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나날을 살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년퇴임을 한 후에 더 바빠진다는 말이 있던데, 그처럼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는 중에 ‘나의 첫 강의’를 되새겨 보는 것은 굴러가는 차를 멈추고 그 옛날을 되새기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으로, 잠시 가던 발을 멈추고 그 옛날로 돌아가 오늘을 바라보게 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내가 첫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60년 초, 4·19혁명으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의 제2공화국이 탄생하고, 1년 뒤 5·16군사정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의 제3공화국이 탄생하여 한일회담과 월남 파병을 논의하던 암울한 시기였다. 한편에는 6·25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고, 국민 소득은 100달러가 채 안되며, 생산

시설이 별로 없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이다.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려 학생을 위주로 하는 시민이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뒤, 사회의 혼란 속에 군사정부가 들어서 미신타파와 근대화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한번 일어서려는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농촌의 아침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시작되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가 강력히 추진되던 때였다.

당시에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해방 전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을 개편한 경성대학에 남녀 사범대학과 상과 농과 약학 공과대학을 종합해 출범한 서울대학교와 도별 국립대, 그리고 고대 연대 동국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몇 대학이 있을 뿐이었다. 학교가 증설되지도 못하고 시설이 더 확충될 수도 없었던 형편이니 자연 교수도 늘릴 수 없어 강사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물론 대학원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학문의 길에 발을 내딛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학교와 은행이 최고 직장이었으나 학문적 열망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도로(徒勞)의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국의 수필가 베이컨이 “학문은 즐거움을 드는 데에, 장식용에,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즐거움으로서의 주 효용은 혼자 한거(閑居)할 때에 나타난다. 장식용으로서는 담화 때 나타나고, 능력에 대한 효과는 일에 대한 판단 처리 때에 나타난다. 숙달한 사람은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개별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구상·통제에서는 학문 있는 사람이 제일 낫다”고 그의 수필 <학문>에서 말한 대로, 학문을 하고 강의하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한 방향으로 믿어 그 길에 발을 내딛은 것이다.

옛날 경성여자사범학교 자리인 용두동 붉은 벽돌 건물의 2층 교실에 올라가는 발길이 가벼우면서도 긴장되었다. 그렇게 바라던 강의를 하게 되니 천하를 얻은 것처럼 벽차고 희망에 찼다. 화사한 봄빛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교수가 되는 거야. 첫인상이 좋아야 만사형통이지. 멋진 강의보다 실속 있는 강의가 돋보인다구요. 준비가 잘 되면 거칠 것 없어요. 그 4년 반에 유달리 튀는 애들이 많아 긴장하는 게 좋을 거요.”

연포(蓮圃) 이하윤 선생님이 지나가듯 한 말이 가슴 가득히 되살아 왔다. 서울사대부고 교사로 있으면서 나가는 첫 강의인데, 그것도 교양국어 정도가 아니고 4학년의 문학비평론 시간이었다. 나는 강의 내용을 완전히 문장화하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를 달면서 몇 번이고 읽어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준비를 했다. 두 시간 연속 강의이니 분량이 꽤 많았다.

사실 그 시절의 교수들은 제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 10분쯤 지나서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 한 30분쯤 늦게 들어와서는 출석을 부르고 강의를 하는데 노트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한 시간 내에 읽고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끝나기 한 20분 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경성제대나 일본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로서 각 분야에서는 권위자로서 명성을 떨치며 궁지가 대단했던 분들이다. 그사이 해방 후에 대학을

나온 교수들이 신진 소장 학자들이요. 우리는 6·25 전후에 대학을 다닌 젊은 세대였다. 말하자면 학계에서 3세대였던 셈이다.

교실에 들어서자 실내의 시선이 일제히 압도해 왔다. 고등학생 앞에서 교단에 선지 7년이 지났으니 웬만한 일로 당황할 리는 없는데 이날은 사정이 좀 달랐다. 평소에는 교단에서면 학생들 하나하나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날은 그 시선이 한 덩어리가 되어 압도해 왔다. 창 밖의 날씨 얘기로 실마리를 풀어 현대사회 속 문학의 위상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보자, 진지한 시선이 하나하나 들어와 안도의 숨을 쉬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다. 아마 선배 교사로 보다가 강의의 열의나 내용에 차차 열중하는 청강의 자세가 된 것이다.

나는 산업사회로 비인간화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문학의 기능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역설하고 싶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던지 그의 강의 노트가 그 후 30여 년 동안 대학 교양 강의 교재로 쓰인 『문학개론』의 ‘문학비평’ 부분에 그대로 수록되었을 정도다.

강사 6년 만에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태릉의 서울여자대학 조교수로 부임하여 4년 동안 봉직하다가, 1972년 1월부터 용두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본교로 오게 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모교의 전임이 되기 위해서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문학 연구를 지속하여, 조선대에 재직하는 동생 구창환 교수와 공저로 『문학의 원리』를 상재해 무교동의 ‘호수 그릴’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다. 또 한편으로 단편 〈동굴 주변〉, 〈판잣집 그늘〉이 박종화 선생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지를 통해 등단하여, 학문과 창작의 길을 양손에 잡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는 독일 속담을 되뇌며 전력을 다하여 살아왔다.

서울여대나 서울대의 전임으로 부임한 뒤에도 첫 강의 시간에 긴장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언제가 선보는 것처럼 어색한 긴장이 감돌았다.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교사로 이사한 뒤 20여 년 동안, 유신체제와 신군부정권의 암울한 시대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는 격동의 회오리 속에서, 오로지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생 지도와 사회봉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관악 교정의 연구실을 지켜왔다. 그사이 『문학개론』, 『한국근대소설연구』, 『이광수 소설연구』, 『한국근대문학의 비평적 탐구』 등 저서 30여 권과 『일어서는 산』, 『동 트는 여명』, 『산 밑 사람들』, 등 장편소설, 〈모래성의 열쇠〉, 〈산정의 신화〉, 〈숨쉬는 영정〉 등 중단편 160여 편과 〈가을에 온 여인〉과 〈한번 사는 세상인데〉, 〈신서유전문〉 등 에세이 470편, 〈춘원의 처녀작〉, 〈동일체 위의 종교와 예술〉, 〈이기영의 두만강〉 등 문학비평 200편을 발표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다.

정말 열심히 다른 눈을 팔지 않고 학문과 창작을 위해 살아왔다. 정년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니 그 고개를 무사하게 넘어가는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그 연장으로 명예교수 생활에 들어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젊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대학의 강단에 선다든가 사회의 일선에 나가는 것은 축복된 일이다.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복을 받았고, 대학을 무난하게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 학문의 길로 가든가 사회 일선으로 나가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욱 축복된 일이다. 그 사이 겪은 수다한 곡절과 굴곡이 뒤엉킨 사연들은 모두가 그날의 영광을 서위하기 위한 수련 과정이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은 험한 파도와 같은 사회의 풍랑을 넘어 자기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그날의 영광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살아가는 자세를 가다듬어 본다.

먼저 자기 자질을 살펴 그날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의 외길을 지향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뜻이 있는 데 길이 있고, 길이 있는데 도달하여 성취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젊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욕구에 불탄다. 또 무엇이든 해보면 잘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과신에 빠지는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을 하여 강단에 서는 경우는 물론 사회의 일선에 나가는 경우도 한 가지 일에 전력을 다하여 프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그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옆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프로의식으로 자신을 가꾸고 실력을 길러야 이 가파른 세파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기능공이나 독일의 마스터[장인(匠人)]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 두께 철판에 골을 낼 수 있어야 기능공이 되고, 그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로서 우뚝 솟을 때 마스터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단 한 번이니 연습 삼아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가장 잘 입고, 잘 먹고 내노라고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것은 잘사는 것이기는 해도 자살 사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큰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강인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다. 우리는 외려 작은 일을 큰일로 벌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세상 사람들 입이나 언론보도는 침소봉대(針小棒大) 하여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다. 옷 로비 사건, 대선 자금 등을 두고 봐도 시간을 끌어 사건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면 된다는 자신과 의욕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면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한 번 실수는 병가(兵家)의 상사(常事)라는 말이나 일곱 번 쓰러지고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칠전팔기(七顛八起)의 오뚝이 자세를 명심하며 살면,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최후의 5분간’이라는 나폴레옹의 말은 하면 된다는 강인한 성취욕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구리 주저앉은 것은 멀리 뛰려는 뜻’이라는 대기만성(大器晚成)의 자세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자세로 나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과 군자대로행(君子大路行)이라는 말대로 서두르거나 졸속으로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이니 차근차근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를 성취하여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그런 자세로 살아가자는 말이다. 사실은 남보다 한 시간 덜 자는 것이 그런 자세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자세로 살아온, 선인들의 자세다.

젊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다. 솔로몬의 영화나 부귀영화보다 더 부럽고 싫진 것이다. 젊음은 패기와 용기가 있어서 저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축복 속에 사회에 나가는 거보(巨步)를 내딛는 젊은이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그 패기와 용기와 슬기로 다 극복될 것이다.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나 사회에 받은 것을 갚고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하여 힘차게 첫발을 내딛자. 나보다 한 시간 덜 자는 자세로 나날을 살아 최후에 웃는 자가 되자.

내가 사랑하는 서울대생들



국 양 교수 (자연대 · 물리학부)
(2003년 11월 3일 대학신문)

요즈음 스물두 살 먹은 아들 녀석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특이한 컬러링 음악이 나온다.

“…알 수 없는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려워…”

이 노래 가사 때문인지, 날씨가 서늘해진 오늘 밤에 쓸데없이 옛날 생각을 한다. 정확히 삼십 년 전 가을, 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얼하며 살까? 군대는 어떻게 할까?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이니 따라서 대학을 왔고, 남들이 다 하는 공부니 따라서 공부를 했고, 그 때의 정치 상황이 답답하여 여럿이 모여 이런저런 공모도 했고, 여자 친구를 만나 호감을 얻기 위해 허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마땅히 진로를 못 찾고 그냥 공부나 계속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나는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 둘 유학을 갔고, 유학이 결정을 유보하는 한 방법이어서 나도 유학을 가게 되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어 이것도 재미있네, 하며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인생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도 대학 시절에는 머리에 세상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담아, 이런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때론 혜매고, 때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떠들곤 하였다. 옛 일을 회상할수록 아들 녀석 핸드폰 음악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얼마나 두려울까 이 녀석이. 아니 이 녀석뿐만 아니라 강의시간에 눈이 별겋게 충혈된 학생들을 보면, 저 녀석 어젯밤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고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이 찡할 때가 종종 있다.

학생들과 술자리라도 할 때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울대학 학생들을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여도, 나는 안다, 이 녀석들이 속이 꽉 찬, 다 자란 어른들이라는 것을. 신문에서는 우리 서울대 문과 학생은 대부분이 고시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이과 학생들도 고시 공부를 하고, 이들은 사회적 출세만을 위해 산다고 한다. 자연대, 공대, 농생대 학생들도 졸업 후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대학원을 가고, 아니면 편한 자리의 군대를 갔다 와서 빨리 유학을 가고, 빨리 박사를 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박사 후연구원을 한 후, 필사적으로 대학교수가 되길 위해 산다고 한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사오십 대에 명예퇴직을 당하기 십상이니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문이 우리 학생들에 대해 무엇이라 쓰건, 나는 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그랬듯이, 아니 예전의 나보다 더 고뇌에 차,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머리에 담아 괴로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다 해주리라고 믿는다. 한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한국의 ‘제임스 조이스’가 될 작가, 정략적 정치인이 아닌 지도자, 통일 후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밝혀줄 역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인터넷 시대의 경제학자, 노벨상을 받을 과학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 기술을 찾아낼 공학자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여럿 나올 것을 나는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 학생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괜한 자신감인가? 흔히 사람들이 자신감의 뒤에는 오판이 숨어 있고, 오판임을 알며 과장할 때는 책임질 수 없다던데….

신입생세미나, 그리고 코소보



박태균 교수 (국제대학원)
(2009년 11월 29일 대학신문)

6월 말 학회 참석 차 네덜란드에 갔을 때 일이다.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하루 일찍 도착했기에 고흐 미술관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15년 전 입장객이 너무 많아 오랫동안 줄을 섰던 기억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발걸음을 재촉해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낮이 익은 학생을 만났다. 3년 전 신입생 세미나에서 만났던 공대 학생이었다. 너무 반가워 맛있는 점심을 함께 했다.

신입생 세미나를 운영한 지 3년이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 학부 1학년생들과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시간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요즈음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 교수에게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생을 위한 수업을 주로 맡고 있는 필자에게 신입생 세미나는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된다.

매 학기 10~15명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다른 세미나가 다 마감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너무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다. 한국의 지옥같은 입시제도를 생각할 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1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2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한 느낌을 받을 때면 답답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몇 년 전인가 신입생 세미나 시간에 코소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코소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이 수강생 중 단 하나도 없었다. 아프리카의 국가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서 매일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학년 때부터 ‘언론 고시’를 준비하는 한두 명을 빼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신문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다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입시 지옥을 통과하고 나면 고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더 나은 직장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자신이 왜 대학에 왔는지, 왜 고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고민하지 않고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서도 뒤늦게 다른 진로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도 결국 대학 생활에서 해야 할 고민을 뒤늦게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동아리 관련 벽보를 보면 한숨을 쉬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신입생 세미나의 진정한 목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사명감을 갖게 된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고기잡이 스펙 쌓기



유재준 교수 (자연대 물리·천문학부)
(2013년 9월 8일 대학신문)

언제부터인가 서울대생들도 ‘스펙’ 쌓기에 열중이다. 서울대 졸업장 프리미엄 덕에 타대생들에 비해 대학 시절 학점에 얹매이지 않고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었던 선배들은 학점 세탁까지 하며 스펙을 올리려는 후배들의 모습이 낯설고 안쓰럽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한테는 학점, 토익, 인턴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최고로 만드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대학 졸업과 함께 남는 것은 자기를 대변해 주는 스펙뿐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졸업생의 거의 절반이 우등 학점으로 졸업을 한다. 물론 이것은 하버드대와 같은 유수의 외국 명문 대학에 비해서도 특이한 일은 아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다수의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수한 학생이 많아지고 훌륭한 스펙을 갖춘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대학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 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생들을 인터뷰하며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한 학생이 그 분야에서는 나름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말했고 그것은 학생의 화려한 스펙에도 어울리는 듯 했다. 학생의 답에 한층 고무된 나는 왜 그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 그러자 ‘정답’이 없는 이 질문에 학생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든 나도 며쓱해지고 말았다.

강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요즘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너무 암전하다. 몇 해 전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왜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는지 물어 본 적이 있다. 학생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다. 질문을 하면 수업 시간의 일부를 잡아먹어서 친구들이 강의 듣는 시간을 빼앗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실상인즉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의 지식을 습득해 최고의 성적을 얻는 매우 ‘경제적인 학습’을 원했던 것이다. 질문을 통한 동기부여나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다. “왜?”라는 질문을 하며 뜰을 들이개 되면 행여 치열한 경쟁 속에 몇 발짝 뒤쳐질까 걱정하는 요즘 우리 학생들. 최고의 내신, 최고의 수능 성적을 내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지식을 잠시 곱씹어 볼 여유도 없이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 흡입해야 했던 중·고등학교 시절

몸에 배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탈무드』에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다. 현명한 서울대생은 물고기 자체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친절한 강의를 통해 어떤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돈이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스펙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기잡이 ‘스펙’을 쌓으면서도 왜 어떤 물고기는 잡으면 안 되는지 무슨 이유로 물고기를 잡는지 등의 질문을 하는 학생은 거의 전무하다.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스펙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훈련보다 그 문제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기워야 한다. 남이 시키는 것을 묵묵히 쫓아가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학 문제 풀이하듯 정답 확인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왜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인다. 그러면서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대학은 스펙을 쌓기 위한 ‘인력 양성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의 틀을 짜고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2015학년도 입학식사

서울대학교의 새 가족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녀를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학인으로서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도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불확실하며 그 결과를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없이 여러분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지게 되는 책임과 의무를 실감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한 뼘씩 성장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가꾸어나가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지금 까지 해 왔던 공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은 주어진 정답만을 학습하는 곳도,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도 아닙니다.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곳입니다. 남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란 지성과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입니다. 성과와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선(公共善), 그리고 공공성은 잊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서울대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지식과 스펙만을 갖춘 지식 기술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지(善意志, guter Wille)가 여러분의 의지작용 전체를 관통하고 생활의 근본을 구성하도록 확립하여야 합니다. 긴 호흡과 너른 시각에서 세상을 관조함으로써,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때, 여러분의 진가가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은 여러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사회적 책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서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진리와 정의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 스승과 동료, 선배와 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SNU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사회, 자신감과 겸손함,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과 화해를 거치면서 두터운 신의가 쌓이고 평생을 함께 할 동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에 내가 그릇된 길은 차마 갈 수 없고, 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기에 그가 거짓된 행동은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몇 년 간 여러분은 이곳 관악에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궁지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품게 될 높은 이상과 활기찬 기백은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신입생 여러분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선한 인재'로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부모님들께서는 눈도 뜨지 못하던 조그만 아기가 믿음직한 젊은이가 되어 지금 입학식장에 서 있기까지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들에게 선택할 자유와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새내기들이 '선한 인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좌절과 극복의 경험을 거치면서 이 나라를 짚어지고 나갈 동량지재(棟梁之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2015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옛 사람에게 듣는 책읽기와 배움의 자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15세 제자 황상(黃裳)에게 이론 말 중에서

敏於記誦, 其弊也忽,
銳於述作, 其弊也浮,
捷於悟解, 其弊也荒

잘 익는 이는 치밀하지 못한 단점이 있고
글을 잘 짓는 이는 과히한 단점이 있으며.
이해력이 빠른 이는 허황한 단점이 있다.



이종목 교수 選 · 譯 (인문대 · 국어국문학과)

그림) 강세황(姜世晃), 〈화수종사도(禾穗?斯圖)〉, 18세기, 종이에 담채, 24.3x1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양만리(楊萬里)의 <익재장서목록서(益齋藏書目序)> 중
우연지(尤延之)의 어록에서

飢讀之以當肉。寒讀之以當裘。
孤寂而讀之以當朋友。幽憂而讀之以當琴瑟。

배가 고프면 책을 읽어 고기를 대신하고
날이 추우면 책을 읽어 가죽옷을 대신하며
외로울 때에는 책을 읽어 벗을 대신하고
우울할 때에는 책을 읽어 거문고를 대신한다.



이종목 교수 選 · 譯 (인문대 · 국어국문학과)

그림) 이경윤(李慶胤), 〈고사관월도(高士觀月圖)〉, 16세기, 종이에 수묵, 44.4x28.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지 도(맥)

지 도(맥)

2016 서울대 새내기
힘차게 출발합시다!

발행일 2016년 02월 01일

발행인 안 병 직

발행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